

하남의 성씨와 인물

제2장 하남의 동족 마을과 세거 성씨

제3장 하남의 인물



제1장 하남의 성씨

제1절 성씨와 본관

1. 성씨의 유래

삼국이 성립되기 이전 고대 사회에 개인을 나타내는 성씨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우리나라는 한자가 들어오면서부터 성(姓)을 사용하기 시작하였는데, 문명이 발달한 씨족들이 자신들의 존재를 다른 씨족과 구분하기 위해 각각의 명칭을 사용했고, 문자가 들어오면서 이것을 성으로 표현하였던 것이다. 고구려에서는 장수왕(413~491) 때부터 고(高)씨라는 성을 썼고, 백제에서는 근초고왕(346~374) 때부터 여(餘)씨라 하였다가 무왕 때에 이르러 부여(夫餘)씨라 하였다. 중국 문물의 수입이 비교적 늦었던 신라에서는 진흥왕 때부터 김(金)씨라는 성을 사용하였다. 그후 고구려에서는 해(解)·을(乙)·예(禮)·송(松)·목(穆)·우(于)·주(舟)·마(馬)·손(孫)·창(倉)·동(董)·예(芮)·연(淵)·명림(明臨)·을지(乙支) 같은 10여 개의 성을, 백제에서는 사(沙)·연(燕)·협(劔)·해(解)·진(眞)·국(國)·목(木)·백(百)의 8대성과 왕(王)·장(張)·사마(司馬)·수이(首爾)·고이(古爾)·흑치(黑齒) 성을 쓰고 있었다. 그리고 신라에서는 박(朴)·석(昔)·김(金)의 3성과 이(李)·최(崔)·정(鄭)·손(孫)·배(裨)·설(薛)의 6성을 사용하였다. 이 가운데 신라의 성들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은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여 한반도의 주인이 되었기 때문이다.

한자가 유입되었다고 하여 모든 계급의 사람들이 성을 사용한 것은 아니었다. 7세기 후반부터 진골(眞骨)과 육두품(六頭品) 같은 신라사회를 주도하는 계급이 한자로 된 성을 먼저 사용하였다. 이때 성씨를 갖는다는 것은 하층계급과 자신을 구별 짓는 특권의식을 드러내는 것이었

다. 마치 귀족을 포함한 지배세력들이 왕경인(王京人)이라 칭하면서 수도 경주에 모여 살았던 것처럼, 성씨를 갖는 것도 특권계급의 전유물이었던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후삼국시대에 지방의 호족이나 촌주(村主)들이 스스로 성을 만들어 쓰거나, 남의 성을 빌어 사용하는 방법으로 성을 갖는 데서도 분명하게 드러난다. 신라말 지방사회의 성장과 중앙귀족들의 지방 이주가 이러한 경향을 부추기기도 하였으나, 성씨의 취득이 확대된 것은 특권계급의 특권의식이 반영되었기 때문이기도 하였다. 지방호족이나 촌주들은 성을 얻음으로써 자신들이 지배하는 일반 백성보다 우월한 정치적·사회적 지위를 차지하였을 뿐 아니라, 백성을 지배하는 원리로 이용하였을 것으로 추측된다. 이를 가장 잘 이용한 사람이 바로 후삼국을 통일하고 고려를 건국한 태조 왕건(王建)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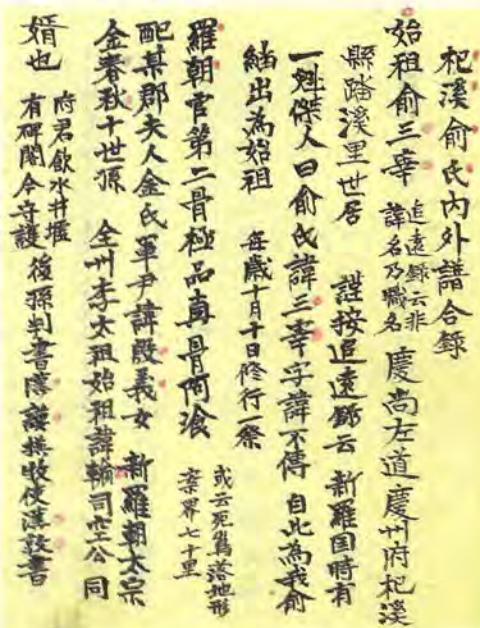
태조 왕건은 후삼국을 통일한 뒤 통치조직을 정비하기 위해 전국의 군·현을 개편하는 과정에서 토성(土姓)을 나누어 정하였다. 그는 고려의 건국과정에서 자신을 도운 지방호족들이나 공신들에게 통일과정에 세운 공으로 성을 내렸다. 그 결과, 태조 왕건으로부터 직접 성을 받은 지방호족은 그렇지 않은 호족이나 지방민보다 높은 사회적 지위를 차지하는 계기를 갖게 되었다. 그러나 이 시기 가장 중요한 변화는 전국의 각 군현에 출신지와 거주지 토성을 각각 나누어 정하면서 성씨의 체계가 확립되었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성이 본격적으로 보급된 시기는 고려 초기라 하겠다. 이러한 성씨 체계는 고려를 거쳐 조선에 이르기까지 귀족관료 뿐 아니라 점차 양민에까지 확대되었다. 그러나 조선시대에도 모든 백성이 성을 가진 것은 아니었다. 16세기 이전까지만 해도 전체 인구의 30~40% 정도가 천민계급으로 성을 가지지 못하였다. 이들 천민계급이 성을 갖게 되는 시기는 한말에 이르러서였다. 천민계급이 사회변화로 인해 신분해방이 되자, 성을 갖지 못한 백성들도 성씨를 갖게 되었다. 이러한 추세로 한말에 이르면 최하층을 제외한 모든 한국인이 성을 갖게 되었다.

한국의 성씨는 수용·정착·분화 과정에서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한국의 성씨가 비록 중국의 영향을 받았다 하더라도 중국의 성씨와 다른 특징을 갖고 있다. 즉, 성과 본관은 가문을 나타내고, 이름은 그 가문의 세대를 알려주는 항렬(行列)과 개인을 구별하는 자(字)로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성씨를 통해 개인은 물론 가문의 세대까지 알 수 있는 특징이 있다. 또한 한국의 성은 270여 개로 중국·일본에 비해 그 수가 매우 적으며, 인구의 50% 이상이 김씨·이씨·박씨·최씨 같은 몇 개의 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와 아울러 여자가 결혼을 하면 남편의 성을 따르는 외국과는 달리, 한국은 결혼을 하여도 자신의 성씨를 유지하는 특성이 있다. 전통적으로 혈연적인 귀족의식과 뿌리 깊은 씨족 의식을 강하게 가지고 있는 한국에서는 부계(父系)를 중요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성을 바꾸지 않는다는 원칙이 존재한다는 것은 한국 성씨의 또 하나의 특징이라 하겠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 사회가 여성의 성을 존중했음을 알려주는

것이며, 한국 사회에 있어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다른 나라보다 높았다는 것을 말해준다 하겠다. 성씨는 그 분화 과정에서 성만으로 같은 족속을 구분할 수 없었기 때문에 본관(本貫)이 도입되었다. 그러나 본관도 역시 성씨와 마찬가지로 분관(分貫)·분적(分籍)이 늘었다. 처음에는 시조의 발상지를 본관으로 하였으나 점차 군(君)으로 봉토 받은 곳·벼슬 이름·후손의 일부가 새로 이주한 곳을 새로운 본관으로 삼기도 하였다. 이것이 흔히 말하는 중시조(中始祖)이다. 본관제는 고려초기 지방호족들이 중앙귀족으로 점차 신분이 상승되면서 새로운 관료군에 편입되자, 현거주지가 아닌 조상의 본거주지를 본관으로 삼으면서부터 비롯되었다. 그러나 본관이 하나일 경우, 가문의 구성원의 수가 점차 늘어나는 것을 감당할 수 없어 이전의 본관과 다른 본관을 사용하게 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후손들 가운데 사회적·정치적으로 출세한 자가 있는 경우에 더욱 두드러졌다. 출세한 사람이 자신의 가문을 다른 가문과 구분하기 위해 자신을 중시조로 하는 본관을 만들었던 것이다.

한국에서의 족보(族譜)는 성씨와 관련하여 빼놓을 수 없는 자료 가운데 하나이다. 이런 족보는 성씨 체계와 본관제와 함께 발전하였다. 성씨와 관련하여 1차 사료라 할 수 있는 족보는 조선시대 왕실과 관부(官府)에 의해 처음으로 작성·간행되었다. 그 뒤 16세기 중반 이후 명문세족들이 앞을 다투어 족보를 간행하기 시작하였고, 그 결과 17세기 이후 족보가 쏟아져 나오게 되었다. 그러나 조선전기에 족보를 간행하거나 초안을 만들어 두었던 가문들은 비교적 충실하고 정확한 족보를 간행한 반면, 이러한 중간단계를 거치지 않은 가문들은 관련자료의 불충분으로 인하여 자의적인 수식이 많은 족보가 간행되기도 하였다. 이런 족보들은 자신의 조상을 극단적으로 미화하고 조상의 관직들을 과장하였으며, 심지어 조작된 경우도 있었다. 또한 어떤 가문의 족보에서는 자신의 조상이 중국에서 우리나라에 이주해와 시조가 되었다는 것도 있다.

성씨와 본관을 논할 때, 우리가 주의하여야 할 점이 있다. 그것은 성과 본관을 바꾸려는 사람들 특히, 성과 이름이 없던 하층계급으로부터 성장한 신흥세력들이 대성(大姓)과 거족(巨族)에 자신들의 성과 이름을 투탁하여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높이려 하였다는 점이다. 족보의 대부분



『기계(의창)유씨 내외보 합록』

이 19세기 말에서 일제시대에 간행되었다는 사실이 이러한 경향을 반증하는 것이다. 앞에서 족보 가운데 사실과 맞지 않은 허위를 기재한 족보도 있음을 지적하였지만, 이러한 족보를 무비판적으로 이용할 경우 성씨나 본관 또는 선대 인물을 제대로 평가할 수 없다. 다음에 서술하겠지만, 집성촌(集姓村)의 경우도 고려초부터 거주했다던 지, 선대가 높은 벼슬을 했다던 지 하는 내용을 사실이라고 그대로 믿어서는 안된다. 다시 말하면, 족보의 내용을 완전한 사실로 믿는 것은 위험한 생각이다. 그러므로 족보에 나타난 사실을 이용할 때에는 반드시 당시의 사료와 비교, 검토해야 비로소 실제 사실을 밝힐 수 있다.

2. 성씨의 종류와 본관

성은 역대 관계문헌에 따라 그 수가 일정하지 않다. 최초의 전국적인 성씨 자료라 할 수 있는 『세종실록』 「지리지」에 의하면, 약 250여 개의 성씨가 나타난다. 이후 1486년(성종 17)에 편찬된 『동국여지승람』에는 270여 개의 성씨, 영조 때 이의현(李宜顯)이 편찬한 『도곡총설(陶谷叢說)』에는 298개의 성씨가 보인다. 이렇게 많은 것은 『세종실록』 「지리지」 소재 250여 성씨와 『동국여지승람』 270여 성씨 및 이후 귀화한 성이 합쳐졌을 뿐만 아니라, 『도곡총설』 편찬 당시 이미 소멸된 망성(亡姓)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19세기 후반인 고종대에 발간된 『증보문헌비고』에는 이보다도 훨씬 많은 496개의 성이 나타난다. 이는 삼국시대로부터 조선시대까지 존재했던 성을 모두 열거했기 때문이다. 또한 정조대의 이덕무가 편찬한 『앙엽기(盎葉記)』에는 음운별로 성을 기록하여 379개의 성을 수록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이미 소멸한 망성 및 한자성이 들어오기 전의 성까지 모두 싣고 있다. 그러므로 조선시대 성은 그 수가 대략 『세종실록』 「지리지」에 기록된 250여 개였던 것으로 여겨진다.

고대로부터 조선시대까지 정부는 백성들에게 요역과 징세를 부과하기 위해 호구조사라는 명목으로 인구조사를 실시해 왔다. 정확한 호구조사는 부국강병의 기초가 되기 때문에 국가에서는 무엇보다도 호구조사에 많은 행정력을 기울였다. 지금과 달리 조선시대에는 사람의 숫자가 세의 근간이므로 3년마다 호구조사를 시행하였다. 또한 총 인구 및 인구의 동태를 파악하여 시정의 기초자료로 삼으려 했던 것도 호구조사의 목적 가운데 하나였다. 이것은 지금의 인구조사와 크게 다를 바가 없는 것이다. 그러나 조선시대의 조사방법은 근래에 실시되고 있는 과학적 인구 센서스와 달리, 읍지를 작성할 때 조사된 인구수나 호적대장을 기초로 하여 계산된 것이다. 그러므로 당시의 호구조사는 일정한 시점에 있어서 실제인구와 일치하지 않는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또한 16세기 이전까지 천민계층이 전체 인구의 40~50%를 차지하고 있었으므로

전체적인 인구조사에는 어려움이 많았다.

근대적 의미의 전체적인 인구조사가 처음 실시된 때는 1925년이다. 그뒤 5년 간격으로 13차례에 걸쳐 시행되었는데, 인구조사와 더불어 성씨와 본관을 조사한 것은 1930년부터이다. 이 조사가 비록 일제총독부에 의해 조사된 것이지만, 우리나라 전체 인구와 본관을 함께 조사했다는 사실은 당시로서는 획기적인 일이었다. 이때 우리나라의 성씨는 250개였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뒤 한국인의 손으로 성씨를 조사한 것은 1960년의 일이다. 이때의 조사가 비록 인구센서스에 부수된 조사로 실시되기는 했지만, 당시의 성씨는 30년 전의 조사보다 8개의 성이 많은 258개의 성이었다. 당시 조사에서는 성씨만을 한자로 기입하게 하여 여기에 기록된 성씨의 종류와 분포상황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현지조사가 충분하지 못하여 확인되지 못한 성씨가 상당수 있었으며 특히, 남·북이 분단되어 북한지역은 조사할 수 없었기 때문에 1960년의 조사자료는 1930년의 조사자료와 정확히 비교할 수는 없다. 이어 1966년의 인구센서스·1970년 총인구 및 주택조사에는 가구원 개개인의 성씨를 조사하는 데 어려움이 많아 가구의 성씨만을 한자로 조사하였으나, 역시 미확인된 성씨가 많았다. 그런 가운데 1985년 11월 1일을 기준으로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이 인구센서스를 실시하여 성씨와 본관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275개의 성씨와 3,435개의 본관이 확인되었는데, 이 성씨는 『세종실록』 「지리지」의 250여 성과 비슷하나 본관은 약 천여 개가 적은 편이었다.

1985년 11월 현재 우리나라 성씨 가운데 100명 이상인 성씨는 223개로 인구 2만명 이상인 성씨는 84개이고, 100명 이상 2만명 미만의 성씨는 139개의 성씨였으며, 인구 100명 미만의 희성(稀姓)은 52개로 파악되었다. 10대 성씨의 본관 수는 김씨(285)·이씨(241)·박씨(128)·최씨(127)·정씨(122)·강씨(33)·조씨(56)·윤씨(44)·장씨(6)·임씨(60) 등으로 나타난다. 이와 아울러 국내 10대 대본관의 순위는 ① 김해 김씨 ② 밀양 박씨 ③ 전주 이씨 ④ 경주 김씨 ⑤ 경주 이씨 ⑥ 진주 강씨 ⑦ 경주 최씨 ⑧ 광산 김씨 ⑨ 파평 윤씨 ⑩ 청주 한씨였다. 앞의 대본관 가운데 수로왕의 후손인 김해 김씨는 무려 전체 인구의 1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대본관의 대부분은 고려·조선시대의 명문거족(名門巨族)으로 나타나는데, 이러한 현상은 위의 대성이 이미 당대에 많이 분포한 원인도 있겠지만, 문벌을 숭상했던 조선시대 사회에서 이를 선호하였기 때문이다. 더구나 16세기 이래 무성층(無姓層)이 족보를 개조하거나 윤색하였고, 후대로 내려올수록 그 인구가 더욱 증가하였던 것에 기인한다.

제2절 하남의 관적 성씨

1989년 하남지역은 광주군 동부읍과 서부면을 합하여 시가 되었다. 광주에 속한 여러 읍 가운데 2개의 읍면이 합하여 시가 되었기 때문에, 이 2개의 읍면만을 대상으로 통계를 낸 자료가 보이지 않는다. 다만 1930년 10월 1일 조선총독부(朝鮮總督府)의 인구조사와 『경기도지(京畿道誌)』 하(1957)에 기록된 1953년 10월말의 통계자료가 있기는 하나, 이것 역시 모두 당시 광주군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현재의 하남지역에 살고 있던 사람들의 성씨는 알 수 없다. 근래에 와서 1985년 11월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이 인구 센서스를 실시하여 성씨와 본관을 조사하였는데, 그 결과 275개의 성씨와 3,349개의 본관이 확인되었다. 이 조사에서는 2만명 이상의 인구를 가진 84개의 성씨가 군 단위까지, 이하 100명까지의 인구를 가진 139개의 성씨는 시·도 단위까지, 100명 미만의 인구를 가진 52개 성씨는 전국 단위로 통계를 냈다. 이 자료의 통계는 하남지역이 시가 되기 전에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당시 광주군의 성씨와 본관을 파악한 것이다. 그러므로 이 자료를 통해서도 하남지역의 성씨는 알 수 없고, 다만 광주군의 성씨를 알 수 있을 뿐이다. 하남지역의 성씨와 본관을 조사하려면, 하남시민의 주민등록표를 모두 정리하여 통계를 내야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 작업은 불가능하다. 관적 성씨는 각 지역의 명칭을 본관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하남지역은 고려 이래로 하남시가 되기 전까지 광주군에 속했기 때문에, 하남의 관적 성씨는 광주를 본관으로 하는 성씨를 말한다고 할 수 있다. 즉, 현재 하남시는 1989년 광주군에서 분리되었기 때문에 하남을 본관으로 하는 성씨는 없고 다만 광주를 본관으로 하는 성씨가 있을 뿐이다. 광주의 관적 성씨를 알려주는 가장 오래된 자료는 『세종실록』 「지리지」의 성씨조이다. 이 기록은 1454년(단종 2)에 완성된 것으로 15세기에 존재한 조선시대 성의 종류와 본관의 수를 자세히 기록하고 있다. 그뒤 편찬된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과 『여지도서(輿地圖書)』 및 각종 읍지들이 광주의 성씨에 대해 말해주고 있다. 먼저 광주를 본관으로 하는 성씨는 『세종실록』 「지리지」에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토성(土姓)이 3이니, 이(李)·안(安)·김(金)이요, 가속성(加屬姓)이 3이니, 박(朴)·노(盧)·장(張)이요. 이 6성은 옛 문적과 지금의 본도(本道) 관록(關錄)에 의거한 것이며, 그 가속성(加屬姓)이란 것은 옛 문적에 기록되어 있는 바이니, 뒤에도 모두 이와 같다. 망성(亡姓)이

지역에 많았다. 그 이유는 수도에 인접한 토성들이 정치적 변화에 휩쓸려 흥망성쇠가 무성하였고, 서울에 있는 관료들이 빈번한 집권세력의 교체로 세력을 상실하고 도태하여 지방으로 내려 오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새로운 세력이 서울로 올라가 벼슬을 하면서 그들의 기반을 경기지역에 마련하였다. 그러므로 경기도는 다른 지역과 달리 유난히 성씨의 이동이 심하였다. 실제 『세종실록』 「지리지」에 기록된 성씨의 도별·성(姓)별·성관(姓貫) 수를 보면, 경기도의 망성은 141개로 전체의 30%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1530년(중종 25)에 편찬된 『신증동국여지승람』은 기존의 『동국여지승람』에다 『팔도지리지(八道地理志)』와 『동문선(東文選)』의 시문을 첨가하여 편찬, 보완된 것이다. 여기에는 토성과 가축성, 망성의 성씨 구분 없이 이(李)·윤(尹)·석(石)·한(韓)·안(安)·김(金)·지(池)·소(素)·노(盧)·장(張)·박(朴) 11개의 성씨가 나타난다. 이어 조선후기 편찬 지리서의 완성판이라 할 수 있는 1757년(영조 33)에 편찬된 『여지도서』에는 『신증동국여지승람』과 마찬가지로 성종의 구분 없이 이(李)·김(金)·석(石)·한(韓)·안(安)·박(朴)의 6개 성씨가, 1861년(철종 12)~1866년(고종 3)에 완성된 김정호(金正浩)의 『대동지지(大東地志)』에는 『여지도서』와 같은 6개 성씨가 나타난다. 이와는 달리 『사마방목(司馬榜目)』에 의하면, 김(金)·이(李)·노(盧)·임(林)·박(朴)·장(張)·변(邊)·정(鄭)·석(石)·최(崔)·안(安)·현(玄) 등 13개의 성씨가 보인다. 이를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구분	연대	성씨	계
『세종실록』 「지리지」	1454	李·安·金(토성), 朴·盧·張(가축성), 尹·石·韓·池·素(망성)	11
『신증동국여지승람』	1530	李·尹·石·韓·安·金·池·素·盧·張·朴	11
『여지도서』	1757	李·金·石·韓·安·朴	6
『대동지지』	1866	李·金·石·韓·安·朴	6
『사마방목』		金·李·盧·林·朴·張·邊·鄭·石·崔·安·玄·趙	13

이 기록에 의하면, 조선전기 광주의 성씨는 대개 『세종실록』 「지리지」를 기본으로 하여 11개의 성씨가 있었으나, 조선후기에 들어서는 노·장·지·소·윤의 5개 성씨가 빠진 6개의 성씨로 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을 끄는 것은 『사마방목』에 등장하는 13개 성씨이다. 『사마방목』은 조선시대 실시되었던 과거 가운데 하나인 생원·진사시의 합격자 명부이다. 사마시에 합격한 이들은 성균관(成均館)에 입학할 자격을 가졌으며, 성균관에서 수학한 뒤 문과에 응시할 수 있었다. 『사마방목』이 성씨를 파악하는 데 중요한 것은 시험 볼 당시의 신분 전력(前歷)과 이름, 자, 생년일 및 본관과 거주지가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가족 사항으로 아버지의 관직과 이름, 부모 및 조부모의 구존(俱存) 여부와 형제의 이름까지도 기록

되어 있다. 따라서 위의 13개 성은 조선시대를 통해 광주에 존재했었던 성씨이다. 『사마방목』을 통해서 볼 때, 조선시대 광주를 본관으로 하는 성씨는 읍지에 나오는 성씨 이외에도 최·변·정·현·조씨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망성으로 분류되었던 석씨가 등장하는 것으로 보아 비록 『세종실록』 「지리지」에는 망성으로 분류되었으나 후대에 다시 창성(創姓)을 한 것이 아니면, 『세종실록』 「지리지」의 찬자가 분류를 잘못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야 할 부분이 또 하나 있다. 『사마방목』에 새로 등장하는 5개의 성씨가 한국의 광주가 아니라 중국의 광주를 본관으로 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이다. 1985년 11월 현재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이 인구센서스를 실시하여 성씨와 본관을 조사한 결과, 광주를 본관으로 하는 성씨는 이·안·김·박·최·석·노의 7개 성씨이다. 여기서는 『사마방목』에 나오는 성씨를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1. 광주 이씨

광주 이씨의 시조는 신라시대 이자성(李自成)으로 그의 후손들은 대대로 경상도 칠원(漆原 : 현재 경상남도 함안 일대)에 살고 있었다. 935년(고려 태조 18) 신라 경순왕(敬順王)이 고려 태조에 귀부하자, 이들은 태조 왕건에게 복종하지 않고 절의를 지켰다. 이에 태조는 그들의 관직을 삭탈하고 칠원에서 회안(淮安 : 경기도 광주)으로 옮겨 살게 하였다. 이때부터 그들은 광주를 본거지로 하여 향리의 직임을 갖고 그들의 세계(世系)를 이어왔다.¹⁾

고려후기에 이르러 광주의 향리였던 이당(李唐)이 국자감시(國子監試)에 합격하였고, 그의 둘째 아들 이원령(李元齡)이 1355년(공민왕 4) 2월 지공거(知貢舉) 이공수(李公遂)·동지공거(同知貢舉) 안보(安輔)에 의해 문과에 급제하게 되어 벼슬에 나아가면서 가문이 번성하게 되었다.²⁾ 이원령은 과거에 급제한 뒤 영주(寧州 : 지금의 천안)를 맡아 다스렸고, 공민왕대 신돈(辛旽)이 정권을 독단하자 정치에 싫증을 느껴 아버지와 처자를 데리고 영천(永川)으로 피신하였다. 1371년(공민왕 20) 신돈이 축출되자, 그는 새로운 삶을 얻었다는 뜻으로 이름과 자를 각각 집(集)과 호연(浩然)으로 바꾸었다.³⁾ 이집은 1374년(공민왕 23) 합포(合浦)를 침범한 왜구를 격퇴하기 위해 출전하였으며, 이후 정3품 벼슬인 봉순대부 판전교시사(奉順大夫 判典

1) 『廣州李氏世譜』.

2) 許興植, 『高麗科擧制度史研究』, 일조각, 1981, 295쪽. 그러나 『광주이씨세보』에 의하면 원령의 문과급제를 1347년(충목왕 3)으로 적고 있는데, 아마 국자감시의 합격이었을 것이다.

3) 李楠福, 「通村 李集研究」, 『한국중세사연구』 4, 1997.

校寺事)에 임명되었다. 그러나 그는 곧 사직하고 1387년(우왕 13) 천녕(川寧)으로 돌아가 자연과 벗삼아 살다가 생을 마쳤다. 그는 당대의 유명한 학자 이색(李穡)·정몽주(鄭夢周)·이숭인(李崇仁)·김구용(金九容)·정도전(鄭道傳)·박상충(朴尙衷) 등과 교유 관계를 맺었다. 이 집은 죽은 후 조선 성종대에 의정부 좌찬성으로 증직되었으며, 1669년(현종 10) 광주 암사(巖寺) 강변의 구암서원(龜巖書院)에 배향되었다.

그는 3남 1녀를 두었는데, 이지직(李之直)·이지강(李之剛)·이지유(李之柔)가 그들이다. 이지직은 1380년(우왕 6) 전구서령(典廐署令)의 관직으로 문과에 급제하여 교리를 거쳐 판동·판서의 안찰사(按察使)를 역임하였고, 보문각 직제학을 거쳐 이후 광주 탄천(炭川)에 은거하였다. 슬하에 3남 4녀를 두었는데, 우의정을 역임한 이인손(李仁孫)이 가장 뛰어났다. 이인손은 5남을 두었는데, 이극배(李克培)·이극감(李克堪)·이극증(李克增)·이극돈(李克墩)·이극균(李克均)이 그들이다. 이들은 모두 과거에 급제하였는데 이 가운데 이극배·이극감은 공신(功臣)으로 봉해져 가문을 빛냈다. 한편, 이지강은 1382년(우왕 8) 봉선고 판관(奉先庫判官)으로 문과에 급제하여 문숙공에 올랐고, 이지유는 생원으로 1389년(공양왕 1) 문과에 급제하였다.

이후에도 광주 이씨는 많은 급제자와 관료들을 배출하여 문과 급제자가 188명에 이르렀다. 이 가운데 재상을 지낸 자가 5명, 대제학을 지낸 자가 2명, 청백리가 5명, 공신이 11명이었다. 특히, 조선초기인 세조와 성종대에 광주 이씨는 전성기를 누렸다. 이지직의 아들 이장손(李長孫)·이인손(李仁孫)·이예손(李禮孫) 3형제와 그들의 아들들이 가문을 빛냈기 때문이다. 그 가운데 이인손은 1417년(태종 17) 문과에 급제, 형조참판 등을 거쳐 1459년(세조 5) 우의정에 올랐다. 그의 아들 5형제들은 이극배가 영의정, 이극감이 판서, 이극증이 좌참찬, 이극돈이 좌찬성, 이극균이 좌의정에 이르는 등 모두 높은 벼슬에 올랐다.

광주 이씨는 갑자사화 때 인동(仁同)으로 유배되었다가 사약을 받은 이극균(李克均)의 경우를 비롯하여 연산군대에 주춧하였다가 명종과 선조대에 이르러 이준경(李浚慶)과 이덕형(李德馨)이 영의정, 이윤경(李潤慶)이 병조판서에 이르러 명문 가문으로서 지위를 유지하였다. 이준경은 1565년(명종 20)에 영의정에 이르고 선조 즉위 후 명종의 교지를 받들어 국정을 총괄한 당대의 거목이었고, 이덕형은 31세의 젊은 나이에 대제학에 오르고 38세에 우의정을 거쳐 42세에 영의정에 오르는 등 문장과 벼슬에서 뛰어났다.

일제시대의 인물로는 만주에서 독립군 활동을 한 이수택(李壽澤)과 이병택(李秉澤), 의병장으로 활약한 이용래(李雄來) 및 3·1운동 당시 33인의 한 사람이었던 이종훈(李鍾勳)이 있다. 천도교(天道敎)의 핵심인물이었던 이종훈은 손병희(孫秉熙)가 죽은 뒤, 1922년 7월 고려혁명단의 고문으로 추대되어 독립운동을 하다 만주에서 죽었다. 이외에도 이용태(李容兌)·이용준

(李容俊) 형제 등이 항일독립운동에 참여하여 독립을 위해 힘을 쏟았다.

광주 이씨는 조선전기의 별족이었기 때문에 일찍부터 족보가 간행되었다. 1613년(광해군 5)에 편찬된 『경술보(庚戌譜)』, 1724년(경종 4)에 간행된 『갑진보(甲辰譜)』가 있고, 정조와 고종대에도 족보가 간행되었다. 이집의 향사(享祀)는 음력 10월 15일이다. 1985년 현재 광주 이씨는 전국적으로 141,830명이 살고 있다. 이지유(李之柔)의 후손이 하사창동, 이지직(李之直)의 후손이 덕풍2동에 살고 있었다고 한다.

2. 광주 안씨

광주 안씨의 시조는 안방걸(安邦傑)인데, 그는 고려초기 광주의 향리[吏]로서 광주에서 일어난 반란을 평정하여 태조로부터 광릉군(廣陵君)에 봉해졌다. 그의 후손 안기(安器)가 충선왕과 공양왕대에 걸쳐 이부상서를 지냈고, 아들 안국주(安國柱)가 중랑장에 이르렀다고 한다.⁴⁾ 그리고 또 다른 아들 안성(安省)이 1381년(우왕 7) 과거에 급제하여 보문각 직제학, 상주(尙州) 판관을 거쳐 조선 개국후 청백리(淸白吏)로 뽑혔다. 『문과방목(文科榜目)』에 따르면, 안기의 아버지는 안해(安海)이고 조부는 안수(安壽)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들은 모두 광주의 향리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므로 광주 안씨가 본격적으로 관인을 배출하기 시작한 것은 조선시대였다고 할 것이다.

안성의 손자 안팽명(安彭命)은 1471년(성종 2) 문과에 급제하여 형조 정랑, 사헌부 장령을 거쳐 사간원 대사간(大司諫)이 되었으며, 뒷날 청백리에 뽑혔다. 안팽명의 아들 안경우(安景祐)는 성주(星州) 판관을 지내다가 조광조(趙光祖)세력으로 지목되어 화를 입었다. 성종~중종대 인물로 안윤손(安潤孫)과 안윤덕(安潤德)이 각각 동지중추부사와 한성부 좌윤을 지냈다. 또한 안윤덕의 증손 안황(安滄)은 임진왜란 당시 임금을 호종하여 광양군(廣陽君)으로 추봉되었다. 그뒤 안황의 6대손 안정복(安鼎福)은 영·정조대의 실학자로 광주 안씨 가문이 배출한 뛰어난 학자였다. 그는 이익(李翼)의 문인으로 첨지중추부사를 거쳐 광성군(廣城君)에 봉해졌다. 그는 이익에게 사숙하여 이용후생(利用厚生)을 강조하는 실학연구에 힘을 기울여 많은 저술을 남겼다. 특히, 역사에 관심이 많아 『동사강목(東史綱目)』을 저술하였고 좌찬성에 추증되었으며 시호를 문숙(文肅)이라 한다.

근대에 이르러서는 안종화(安鍾和)가 있는데, 그는 1905년 을사조약이 체결되자 민영환(閔

4) 洪敬謨, 『重訂南漢誌』, 人物.

泳煥)과 함께 조약의 폐기를 강력히 주장하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고 낙향하였다. 역사에 관심이 많아 『국조인물지(國朝人物志)』를 편찬하였다.

1739년(영조 15) 『기미보(己未譜)』를 비롯하여 1790년(정조 14) 『경술보(庚戌譜)』, 1866년(고종 3) 『병인보(丙寅譜)』같은 족보를 간행하였고, 1982년 시조 안방걸 이하 12세의 선조에 대해 제단을 만들어 매년 양력 4월 1일 제사를 지낸다. 1985년 현재 전체인구는 53,496명이다. 현재 하사창동에 광주 안씨가 약간 거주하고 있다.

3. 광주 김씨

경순왕의 후손 김녹광(金祿光)이 1236년(고종 23) 몽고의 침입 때 상장군(上將軍)으로 공을 세워 광주군(廣州君)으로 봉해지면서 광주 김씨의 시조가 되었다. 광주 김씨가 융성한 시기는 고려시대였는데, 김녹광의 아들 김굉(金閔)이 감찰어사를 지냈고 김굉의 아들 김훤(金暉)이 문하시랑 평장사라는 벼슬에 올라 가문을 빛냈다. 김훤은 삼별초의 난 때 김해방어사로 기용되었고, 충렬왕 때 예문관 대제학, 보문각 태학사, 문하찬성사를 거쳐 정2품인 문하시랑 평장사에 이르렀다. 그는 청백리(淸白吏)로 명망이 있었고 학문과 문장이 뛰어났을 뿐만 아니라, 글씨도 잘 써 당대의 명필로 꼽혔다 한다. 그의 아들 김남물(金南物)과 김개물(金開物)이 각각 안동부사와 사헌부 지평을 지냈다. 이밖에도 『문과방목』에 의하면, 광주 김씨로 1380년(우왕 6)에 급제한 김소(金邵)가 전 산원(散員)의 신분으로 과거에 응시하여 목사를 역임하였다.

조선시대에 가문을 빛낸 인물로는 임진왜란(壬辰倭亂) 당시 적을 물리친 의용장(義勇將) 김태허(金太虛)가 있다. 그는 장예원 판결사를 지낸 김려(金礪)의 손자로 옥포(玉浦) 만호(萬戶)로 있다가 일본군이 울산을 공격할 때 그곳에 머무르고 있었다. 그런데 당시 군수와 절도사가 성을 버리고 달아났기 때문에, 그가 임시 군수가 되어 흩어진 백성들을 모아 대구 팔공산(八公山)에서 3천의 의용군을 편성, 동래·양산·기장 등지를 다니면서 일본군과 싸워 공을 세웠다. 전쟁이 끝난 뒤, 그는 선무원종(宣武原從) 일등공신에 정해졌으며 죽은 후 양무공(襄武公)이라는 시호가 내려졌다. 그밖에 김려의 손자이고 김태허의 사촌인 김태을(金太乙)이 학문과 덕행이 뛰어났으며, 그의 아들 김수인(金守認)이 아버지를 이어 학문으로 대성하였다.

한말과 일제시대 인물로 만주에서 독립군의 군자금을 모금하다가 체포되었던 김진성(金振聲)과 평안북도 선천파출소를 폭파하려다 검거, 투옥되었던 김석창(金錫昌)이 있다. 그리고 김상윤(金相潤)은 김원봉(金元鳳)과 함께 의열단(義烈團)을 조직하여 밀양경찰서 폭파사건에 가담하였다가 상해임시정부에서 활동하였다. 김승문(金勝文)은 대한독립지원단을 결성하여 군자

금 모집에 참여하였다.

시조 및 중시조의 단(壇)이 광주읍 회덕리에 있으며, 매년 음력 10월 15일 제사를 지낸다. 족보로는 1982년에 간행된 『임술보』가 있다. 1985년 현재 전국적으로 20,815명이 살고 있다.

4. 광주 박씨

광주 박씨는 고려시대 전서(典書)를 지냈다고 하는 박명훈(朴明勳)을 시조로 한다. 그의 후손들이 광주에 정착하여 대대로 살면서 광주를 본관으로 하였다. 광주 박씨는 이곳에서 호장(戶長)직을 세습해 오다가 원나라를 배경으로 성장한 박수도(朴守道)에 이르러 가문이 흥성하였다.

그의 아들 박견(朴堅)은 향리로 시작해 중랑장을 거쳐 대호군이 되었다. 그의 가계에 대한 자세한 기록은 원(元)에 들어가 내시직을 한 박견의 아들 박쇄노울대(朴瑣魯兀大)가 이곡에게 광주 신복사의 중건을 부탁하는 기문에 자세히 나온다.

광주는 삼한에서 여러 주목(州牧)의 으뜸이 되고, 박씨는 또 주의 대성(大姓)이어서 그 조부 수도(守道)로부터 이상은 모두 본 고을의 직책을 맡아서 한 고을의 장이 되었고, 아버지의 휘는 견(堅)인데, 중랑장으로서 나이가 많아 사직할 때에 중현대부 감문위대호군이 되었었다. (중략) 군은 두 형과 두 아우가 있었는데 맏형 효진(孝眞)은 검교별장(檢校別將)이요, 다음은 연(璉)인데 낭장(郎將)이요, 아우 천우(天祐)는 벼슬하지 않았고, 다음은 관(寬)으로 안산군(安山郡)의 수령이었다.⁵⁾

앞서 설명한 광주 안씨와 광주 박씨의 경우는 고려말부터 광주의 이족(吏族)에서 사족(士族)으로 성장하였다고 하나 전형적인 신흥사대부의 성격을 갖고 있지는 않다. 『사마방목』에 의하면, 광주 박씨의 경우 사마시에 합격한 사례가 1건만 있을 뿐인데, 1531년(중종 26) 박세충(朴世忠)이 사마시에 합격한 것이 그것이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 박인수(朴仁壽)의 관직이 참봉(參奉)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보아 당시에 이미 가문의 세력을 잃은 듯하다. 1930년 국세조사 당시 웅진군 홍미면 식여리에 47호가 있었다고 전한다. 1985년 현재 전국적으로 2,219명이 살고 있다.

5) 李穀, 『稼亭集』 3. 「大元高麗國廣州神福禪寺重興記」.

5. 광주 최씨

조선시대 장사랑(將仕郎)을 지낸 최득보(崔得寶)를 시조로 한다. 1985년 현재 전국적으로 5,583명이 있다. 『사마방목』에 의하면, 광주 최씨의 과거 합격자는 1명만 나오는데, 1874년(고종 11) 사마시에 합격한 최환규(崔煥圭)이다. 그는 선산(善山)에 거주하였으며, 학생 최종국(崔宗國)의 아들이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6. 광주 석씨

『세종실록』 「지리지」에 의하면 광주 석씨는 망성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망성이란 이전에 있었으나, 1454년(단종 2) 『세종실록』 「지리지」를 편찬할 당시에는 없어진 성을 뜻한다. 그러나 『사마방목』에 따르면, 1507년(중종 2) 사마시에 합격한 석맹희(石孟熙)가 광주 석씨로 나오는 것으로 보아 망성은 아닌 듯하다. 그는 자(字)가 자명(子明)이고 광주에 거주했으며 부친 석차옥(石礎玉)은 장사랑(將仕郎)을 역임하였다고 하였다.

선조대에도 2명의 합격자가 나오는데, 1579년(선조 12) 식년시 병과에 급제한 석함(石涵)과 1570년(선조 3) 사마시에 급제한 석수복(石壽福)이 그들이다. 석함의 아버지는 석수도(石守道)로 통훈대부(通訓大夫) 전의감(典醫監)과 봉사(奉事)를 지냈다. 현재 광주 석씨는 석수도를 시조로 광주를 본관으로 삼았다고 하나 정확하지는 않다. 1985년 현재 전국적으로 95명에 지나지 않는 희성이다.

7. 광주 노씨

광주 노씨는 『세종실록』 「지리지」에 가속성으로 나오고 『신증동국여지승람』에도 보이는 성씨이다. 『사마방목』에는 1717년(숙종 43) 노진중(盧振宗)의 아들 노세태(盧世泰)와 1777년(정조 1) 유학 노희범(盧熙範)의 아들 노태열(盧泰說), 그리고 1894년(고종 31) 노응주(盧應疇)의 아들 노수번(盧秀蕃)이 사마시에 합격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중앙일보가 펴낸 『성씨의 고향』에 따르면, 강화에서 분파한 사족의 후에 노필상(盧弼商)이 통정대부(通正大夫)를 지낸 뒤 광주에 대대로 거주한 뒤, 그의 후손들이 광주를 본관으로 삼아 세계를 삼았다고 전하나 확실하지 않다. 1985년 현재 전국적으로 11,038명이 살고 있다.

8. 광주 장씨

『세종실록』 「지리지」에 가속성으로 나오는 장씨의 세계는 알 수 없고, 현재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사마방목』에 의하면, 1705년(숙종 31) 장익제(張翼齊)의 아들 장태갑(張台甲)이 사마시에 합격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680년(숙종 6)에 태어난 그는 자가 맹형(孟衡)이고 형제로 장태좌(張台左) · 장태우(張台右) · 장태수(張台壽)가 있다.

9. 광주 변씨 · 광주 현씨 · 광주 임씨 · 광주 정씨

현재 존재하지 않으나, 『사마방목』에 나오는 성씨로 광주 변(邊)씨 · 광주 현(玄)씨 · 광주 임(林)씨 · 광주 정(鄭)씨가 있다. 이들의 선조나 세계에 대해 알 수 없으나, 『사마방목』을 통해 그 성씨의 맥락을 간략히 알아보고자 한다. 먼저 변씨는 1792년(정조 16) 사마시에 합격한 변상찬(邊相璨)이 있다. 1740년(영조 16)에 태어난 그는 자가 보세(寶世)이고 성균관 생원 변득형(邊得衡)의 아들로 동생은 변상채(邊相采)이다.

그리고 광주 현씨의 경우, 1627년(인조 5) 합격한 현적(玄績)은 1602년(선조 35)에 현경창(玄景昌)의 아들로 태어났고 자가 공무(公懋)이다. 또 1639년(인조 17) 합격한 현사립(玄士立)의 아들 현득초(玄得初)가 있다. 광주 임씨의 경우 두 명의 사마시 합격자를 배출하였다. 1894년(고종 31)에 합격한 임병익(林秉翼)의 아들 임태하(林泰河)와 같은 해에 합격한 임태일(林泰一)이 있다. 마지막으로 광주 정씨의 경우 5명의 합격자가 있다. 1627년(인조 5)에 합격한 정회(鄭懷), 1650년(효종 1)에 합격한 정원경(鄭原慶), 1660년(현종 1)에 합격한 정하경(鄭夏慶), 1885년(고종 22)에 합격한 정면조(鄭冕朝)와 1894년(고종 31)에 합격한 정창조(鄭昌朝)가 있다.

〈장 득 진〉

제2장 하남의 동족마을과 세거 성씨

제1절 동족마을

성과 본관이 같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 사는 동네가 있는데, 이를 동족마을 또는 같은 성불이들이 함께 모여 산다고 하여 집성촌이라 부른다. 이것은 우리나라 전통사회 특징 가운데 하나로써, 최근에는 급격한 도시화와 택지개발 등으로 인해 많이 사라지기는 하였으나 아직까지도 지방에는 이러한 형태의 마을들이 적지 않다. 동족마을은 성씨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김촌(金村)·이촌(李村)·유씨동(劉氏洞) 등으로 불려지기도 한다.



능성 구씨 세거지 표지석

동족마을이 형성된 시기와 관련하여 그 연원을 고대 내지 고려초까지 소급하는 경우가 있고, 실제 집성촌에 거주하는 사람들까지도 자신들의 마을이 3~4백년, 혹은 5~6백년 전부터 있었다고 말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대부분의 동족마을은 대략 17세기 이후에 이르러서야 형성되었다. 왜냐하면 16세기 이전까지는 대체로 자녀균분상속제가 지켜져 부모의 입장에서 서는 아들과 딸, 친손자와 외손자

의 구별을 하지 않고 동일시하였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사위를 거느리는 경우가 많았고, 부

모의 제사가 있을 때에도 자녀가 돌아가면서 제사를 받들어 모셨다. 그러나 이러한 관습은 17세기부터 점차 붕괴되기 시작하여 사위나 외손이 처가나 외가의 재산상속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었다. 따라서 사위나 외손이 다른 성의 처가 또는 외가에 거주할 필요가 없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 부계 중심의 동성동본이 함께 사는 동족마을이 형성되기 시작한 것이다. 이러한 동족마을의 형성은 우리나라 향촌사회의 특징이 동족을 중심으로 발전해 왔다는 것을 입증하는 사례이기도 하다.

동족마을의 형성 과정은 대략 다음과 같다. 한 지역을 본관으로 하는 종족이 여러 대를 거쳐 계속 거주한 경우가 가장 많고, 일족이 자기의 본관지가 아닌 다른 곳으로 이주하여 새로운 마을을 구성하고, 후손들이 그 마을을 계속해서 발전시킨 경우도 있다. 천재지변이나 정치·사회적 상황의 급격한 변화로 도피·유배된 이후, 그곳에서 일족이 융성한 경우이다. 이러한 경우, 정치적으로 실각한 관료 중 학식이 뛰어난 사람이 그곳에서 학문을 가르쳐 정치·학문적으로 저명한 인물을 배출한 경우가 적지 않다. 즉, 자신의 세대는 몰락하여 벼슬길에 오르지 못하였지만 자손들을 교육시켜 그 자손이 가문을 일으킨 것이다. 아무튼 동족마을이 생기게 된 이유는 우리나라 사회가 혈연공동체적 생활을 영위했던 데서 오는 유습이라고 생각된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유교문화권이었던 특수성도 동족마을의 형성에 한몫을 담당하였다. 즉, 유교적 여러 행사에 종족 모두가 힘을 합쳐야 했는데, 집성촌을 구성함으로써 상부상조 및 노동집약적인 일들을 자치적으로 해결할 수 있었다. 반면, 종가를 중심으로 한 지나친 위계의식이 강해 사회발전에 있어서 부정적인 면도 있었다. 1930년대 조선 총독부 중추원에서 동족마을에 대한 현황을 조사하였는데, 이 조사에서 하남지역에는 3개의 동족마을이 보인다.

1930년대 하남지역 동족마을 일람표

지 역	성 씨	가 구 수	인 원 수(명)
중부면 상산곡리	기계 유씨	113	591
동부면 하산곡리	기계 유씨	61	350
서부면 감일리	능성 구씨	61	350

이 표에 의하면, 1930년대 하남시에는 3개의 동족마을이 있었는데, 기계 유씨가 두 개의 마을이고, 능성 구씨가 하나의 마을을 이루고 있었다.

그외 하남지역의 동족마을 분포를 보여주는 또 다른 자료로는 1957년에 간행된 『경기도지』가 있다. 이 자료는 1950년대 하남지역 동족마을의 분포 상황을 알려주고 있는데,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950년대 하남지역 동족마을 일람표

지 역	성 씨	가 구 수	세거기간(년)
중부면 상산곡리	기계 유씨	74	300
동부면 신장리 · 창우리	전주 이씨	169	300
동부면 망월리	광주 이씨	34	80
동부면 천현리	함평 이씨	35	200
동부면 망월리 · 신장리	경주 김씨	69	200
동부면 덕풍리	밀양 박씨	71	400
동부면 미사리 · 망월리	경주 최씨	158	200
동부면 하산곡리 · 덕풍리	기계 유씨	146	400
동부면 창우리 · 망월리	파평 윤씨	34	150
동부면 풍산리 · 하산곡리	청주 한씨	39	100
동부면 신장리	배천 조씨	48	200
동부면 망월리	남양 홍씨	36	200
서부면 감북리	밀양 박씨	49	미상
서부면 감일리	능성 구씨	37	"
서부면 감일리	밀양 박씨	20	"
서부면 상사창리	전주 이씨	26	"
서부면 상사창리	인동 장씨	24	"
서부면 하사창리	광주 안씨	20	"
서부면 춘궁리	온양 방씨	25	"
서부면 춘궁리	김해 김씨	20	"
서부면 초일리	연안 이씨	25	"
서부면 초일리	전주 강씨	24	"

출전 : 경기도, 『경기도지』 하, 1957.

위의 표는 20여 년전 일제가 조사한 동족마을의 수와 비교하면 그 수가 증가하였음을 보여 준다. 이러한 결과는 조사의 방법에 대한 차이에 기인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세월이 흐를수록 도시화 내지 대가족제의 붕괴로 인해 동족마을의 수가 줄어들게 마련이다. 그런데 20년이 지난 후의 동족마을 수가 증가한 것은 일제시대의 조사가 종합적이고 체계적이지 못하였다는 것을 말해준다고 하겠다. 뿐만 아니라 위의 표에서는 동족마을의 형성시기를 제시해 주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조선 초기인 500년 전의 것도 있으나 대부분이 16, 17세기 이후에 형성되었음을 보여준다.

제2절 세거 성씨

1. 진주 강씨

시조는 강이식(姜以式)으로 전하나 진주를 관향으로 삼은 것은 신라말에 태중대부(太中大夫) 판내의령(判內議令)을 지낸 강진(姜縉)으로부터 시작된다. 진주 강씨는 박사(博士)공파, 소감(少監)공파, 시중(侍中)공파, 인헌(仁憲)공파로 크게 나누어지고, 11세 강효정(姜孝貞)의 후계가 경기도 광주에 터를 잡았다고 전한다. 부사직공 강석환(姜錫桓)의 4대손인 강재선(姜在善)이 죽자 그의 처 최씨가 두 아들을 데리고 하남지역 초이동 지지미 마을에 이주하여 세거하기 시작하였다고 하나 정확한 것은 알기 어렵다.

2. 능성 구씨

벽상삼한삼중대광(壁上三韓三重大匡) 검교상장군(檢校上將軍)을 지낸 구존유(具存裕)를 시조로 한다. 구존유는 송나라 한림학사 출신이라 전하는 능성(綾城) 주(朱)씨 주잠(朱潛)의 딸과 결혼하여 능성에서 생활하였는데, 이로 인해 본관을 능성이라 한 듯하다. 능성 구씨의 분파는 고려말 조선초에 활동한 7세조의 인물을 파조로 하여 11개 파로 나뉘었는데, 이 가운데 9개 파가 실존하고 나머지는 전하지 않는다. 구현좌(具賢佐)의 후손이 판사파(判事派), 구현로(具賢老)의 후손이 전서파(典書派), 구영량(具英良)의 후손이 시랑중파(侍郎中派), 구홍(具鴻)의 후손이 좌정승파(左政丞派), 구성량(具成亮)의 후손이 판안동파(判安東派), 구성로(具成老)의 후손이 도원수파(都元帥派)이다. 그리고 구현보(具賢輔)의 후손이 낭장파(郎將派), 구현기(具賢器)의 후손이 감무파(監務派)이다. 능성 구씨가 세족으로 등장한 것은 각 파조가 활동하였던 이 시기였다.

하남시 감일동 능안마을에 세거하고 있는 구씨 동족마을은 도원수파의 파조 구성로의 손자 구치관(具致寬)의 4세손 직장공(直長公) 구징(具徵)이 감일동에 묘소를 두고, 이어 그의 후손들이 이 마을에 세거하기 시작하면서부터 형성되었다고 전한다. 구성로는 고려말 1388년(우왕

14) 조전원수(助戰元帥)로 요동정벌에 참여하였다가 이성계파에 속하여 위화도에서 회군하여 공을 세웠다.

이어 그는 동지밀직, 경상도 도절제사를 거쳐 조선개국 후 자헌대부로 강원도 도원수에 올랐다. 이어 구치관은 구성로의 손자이며 공주목사를 역임한 구양(具楊)의 아들로 조선전기 능성구씨가 배출한 대표적인 인물이다. 1434년(세종 16) 알성문과에 급제하였는데, 계유정란(癸酉靖亂) 이후 좌승지에 오르고 이어 좌익 3등공신에 올라 능성부원군에 봉해졌다가, 1466년(세조 12)에는 영의정이 되었다. 성품이 엄격하고 깨끗하여 재산을 늘리지 않아 청백리(清白吏)에 뽑혔다. 『신증동국여지승람』에는 구치관묘(具致寬墓)가 주 동쪽 60리에 있는데, 서거정이 비명을 지었다고 전한다.

3. 경주 김씨

경주 김씨는 경순왕의 셋째 아들 영분공(永芬公) 김명종(金鳴鍾)과 넷째 아들 대안군(大安君) 김은열(金殷說) 및 세계를 알 수 없는 장군공(將軍公) 김순웅(金順雄)의 후손으로 이루어진 성씨다. 경주 김씨는 천년 이상된 가문으로 많은 인구를 가지고 있고 그 분파도 많다.

하남에 거주하고 있는 경주 김씨는 계림군파의 파조 김순웅의 13세손 김균(金綱)의 둘째 아들 김중성(金仲誠)의 12세손 김성좌(金聲佐)대부터 하남시 망월동 구산에 세거하면서부터 시작하였다고 한다. 김성좌의 4세손 김영춘(金永春)의 아들 김우집은 1839년(헌종 5) 기해박해(己亥迫害) 때 순교한 천주교 성인인데, 이를 미루어 보건대 경주 김씨가 하남지역에 거주하기 시작한 것은 18세기 초기로 추정된다.

김우집은 1841년(헌종 7) 4월 29일 서대문 밖에서 처형되고, 그 동생들인 김만집과 김문집은 남한산성의 광주관아에서 각각 참수 순교하였다. 그리고 김우집의 아들 김성희(金聖熙)와 김만집의 아들 김차희(金次熙)도 역시 병인박해 때 체포되어, 1868년(고종 5) 남한산성에서 순교하여 구산에 묻혔다.

김균은 고려말 밀직부사를 역임하고 이성계를 도와 조선 건국에 참여하여 개국공신의 반열에 올랐고, 벼슬은 좌찬성에 이르렀다. 장군공의 후손 가운데 김균의 후손이 계림군(鷄林君)파가 된다. 계림군파는 김균의 둘째 아들 김중성(金仲誠)과 셋째 아들 김계성(金季誠)의 아들 대에서 다시 나뉘어진다. 김중성의 아들 김안민(金安民)이 감사(監事)공파, 김신민(金新民)이 부제학공파, 김인민(金仁民)이 판윤(判尹)공파로 나뉘어지고, 김계성의 아들 김중순·김중효·김종우가 공호(恭胡)공파로 나누어진다.

4. 밀양 박씨

박씨는 시조를 신라의 첫 임금 박혁거세(朴赫居世)로 한다. 밀양 박씨는 신라 경명왕(景明王)의 큰 아들 박언침(朴彦忱)을 시조로 한다. 밀양 박씨는 자손이 번창하여 많은 분파로 나뉘어지는데, 8세조 박언부(朴彦孚)의 후손이 밀성부원군(密城府院君)파이고 그 후손 가운데 10세조 박원(朴元)의 후손이 사문진사(四門進士)공파, 13세조 박척(朴陟)의 후손이 충헌(忠憲)공파, 15세조 박중미(朴中美)의 후손이 밀직부원군(密直府院君)파, 16세조 박현(朴鉉)의 후손이 규정(糾正)공파이다. 이외에도 많은 중시조를 두고 파를 형성하고 있으나 규정공파가 가장 번성하였다. 박원은 인종 묘정에 배향된 박의신(朴義臣)의 아들로 사문진사를 지냈고, 박현은 고려 때 무과에 급제하여 사헌부(司憲府) 규정을 지내고 태사(太師)에 이르렀으며, 청백리로 세상에 칭송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도학(道學)과 문장에도 뛰어났다.

하남시의 세거 성씨로는 병자호란 당시 황산 일대 사패지를 받은 사문진사공파의 후손 박경응(朴慶應)의 증조부인 박억년(朴億年)이 1516년(중종 11) 터를 잡은 데에서 비롯되었다고 전한다. 박경응의 경우, 『사마방목』에 따르면 통훈대부로 안산군수를 지냈고, 그의 아들인 박흥문(朴興文)이 1654년(효종 5) 생원시에 합격한 후, 1669년(현종 10) 식년시에서 과거에 급제하였다. 그러나 당시 하남시에 거주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감북동에는 규정공파 파조 박현의 14세손으로 경기관찰사를 역임한 박자흥(朴自興)의 후손이 1623년(인조 1) 경부터 세거하기 시작하였다고 한다. 『사마방목』에 의하면, 박자흥의 자는 인길(仁吉)로 1581년(선조 14)에 태어나 유학(幼學)의 신분으로 1610년(광해군 2) 식년(式年) 진사(進士)시에 합격하였고 같은 해에 문과에 급제하였다. 부친은 박승종(朴承宗)으로 영의정을 역임하였으며, 형제로는 박자응(朴自凝)이 있다. 박자흥이 시험 볼 당시인 1610년 그의 거주지는 서울이었으므로 그후에 세거한 것으로 보지만 확실하지는 않다.

5. 온양 방씨

온양 방씨는 신라시대 당(唐)의 문화사절로 왔다가 귀화한 방지(方智)를 시조로 한다. 이어 상주(尙州) 출신으로 고려 태조 왕건을 도와 광종대에 상서좌복야에 오른 방운(方雲)을 중시조로 하는데, 그가 만년에 온수군(溫水君)으로 봉하게 되면서부터 상주를 버리고 온양을 본관으로 삼은 듯하다. 대략 9세 방희진(方曦進) 이래로 경기도 양주·광주·풍덕 등의 지역에 온양 방씨의 묘역이 있는 것으로 보아, 이 무렵부터 서울을 비롯한 경기지역에 세거한 것으로 보인다.

다. 하남시에는 춘궁동 버구리 마을에 판서(判書)공파 파조 방서(方曙)의 13세손인 방현(方鉉)이 1634년부터 세거하기 시작하였다고 전한다. 판서공파는 17세손 방강(方綱)이 황해도 연안으로 유배된 후, 대략 19세인 방득정(方得正)·방치정(方致正)의 대부터 양주·광주·개성 등지로 옮겨가 터를 굳혔다고 전한다.

6. 청송 심씨

청송 심씨는 고려시대 위위시승(衛尉寺丞)을 지낸 심홍부(沈洪浮)를 시조로, 조선시대에는 정승 13명, 왕비 3명, 부마 4명 등을 배출한 가문이다. 시조의 증손인 심덕부(沈德符)와 심원부(沈元符) 형제에서 세계가 둘로 나뉘어지는데, 조선건국에 참여한 심덕부의 후손들이 대대로 서울에 살면서 벼슬을 지낸 데에 비해, 동생 심원부는 새 왕조에 협력하지 않고 벼슬을 마다하여 두문동에 들어갔고 그 후손들도 벼슬을 멀리했다. 심덕부의 아들 7형제에서 다시 7개파로 나뉘어지는데 그중 넷째 아들인 심징(沈澄)의 인수부윤(仁壽府尹)공파와 다섯째 아들인 심온(沈溫)의 안효(安孝)공파가 번성하여 벼슬을 도맡았다. 하남시에는 7세손 동지중추부사 겸 오위장을 지낸 심연(沈挺)이 춘궁동·성산동에 이주하면서부터 세거하기 시작하였다고 전한다. 이어 상산곡동에도 세거하고 있다.

7. 기계 유씨

신라 때 아찬(阿飡)을 지낸 유삼재(兪三宰)를 시조로 한다. 이후 신라말 유의신(兪義臣)이 고려에 불복하자 그를 기계현의 호장으로 강등시킴으로써 그 후손들이 기계를 관향으로 삼아 세계를 이어 나갔다. 기계 유씨가 하남시와 인연을 맺은 것은 임진왜란 때 충목(忠穆)공 유홍(兪泓)이 서울이 함락될 위기에 처하자 왕자 임해군(臨海君) 등과 함께 지원병을 모집하기 위해 강원도·함경도 등지로 출정하면서 최초로 야영을 했던 곳이 바로 검단산(黔丹山) 아래의 계곡이었다는 데서 출발한다. 이를 계기로 기계 유씨의 자손들 가운데 비교적 많은 사람들이 가구를 이루며 살고 있다. 유홍은 서울이 함락되자 왕비를 해주로 피신시킨 후 객사했는데, 그의 아들인 유대술(兪大述)과 유대건(兪大建) 형제가 아버지의 묘를 경기도 고양군에서 검단산 기슭의 새능 마을로 이장하면서 터를 잡고 살았던 것이 하남시 하산곡동과 상산곡동 기계 유씨 마을의 유래이다.

유홍은 고려시대의 판사재감사를 지낸 유성복(兪成福)의 6대손이며, 연산군 때 문과에 급제하여 중종반정 후 사간을 지내고 예조판서를 역임한 유여림(兪汝霖)의 손자이다. 명종 때 문과에 급제 한림(翰林) 등을 거쳐 충청·전라·경상·함경·평안도의 5도 관찰사를 역임하고,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이조판서·참찬으로 좌의정에 이르렀으며 기성부원군(杞城府院君)에 책봉되었다. 유홍의 아들 유대진(兪大進)은 1579년(선조 12) 식년(式年) 사마시에 합격한 자로, 자가 신보(新甫)이며 1554년(명종 9)에 태어나서 1583년(선조 16) 문과에 급제하였다. 형으로 유대술(兪大述)·유대건(兪大建), 동생으로 유대일(兪大逸)이 있었다. 기계 유씨는 영조와 정조시대에 황금기를 맞이하여 유척기(兪拓基)가 1739년(영조 15) 우의정이 되고, 이어 영의정이 되어 30여 년간 노론(老論)의 영수로 군림하였다. 이외에도 가문을 빛낸 인물로 개항기 개화파의 선두주자인 『서유견문(西遊見聞)』의 저자 유길준(兪吉濬)과 대한민국 헌법을 기초하여 건국에 공헌한 유진오(兪鎭午) 등이 있는데, 이들의 묘가 각각 창우동과 상산곡동에 있다.

8. 연안 이씨

연안 이씨는 신라의 삼국통일 때 당나라 중량장으로 소정방(蘇定方)을 따라와 백제를 멸망시키는데 크게 기여한 이무(李茂)를 시조로 한다. 이무는 신라에 남아 백제 멸망의 공으로 연안백(延安伯)에 봉해졌다고 하며, 그의 후손들이 이곳을 관향으로 삼았다고 한다. 연안 이씨는 10개의 분파로 나뉘어져 있으나 각 파조는 시조만 알고 시조와의 세계와 각 파조(派祖)들 간의 관계도 알 수 없다. 이습홍(李襲洪)의 후손이 태자첨사(太子詹事)공파, 이현려(李賢呂)의 후손이 판소부감(判少府監)공파, 이지(李漬)의 후손이 통례문부사(通禮門副使)공파인 3개 파가 10개 분파 중 가장 번성하였다. 연안 이씨는 조선조에 문과 급제 250여 명, 상신(相臣) 8명, 대제학 8명, 청백리 7명 등을 배출한 명문가로서, 하남지역에는 1690년대 말 초일동에 태사첨사공파 이습홍의 16대손 이유백(李有伯)이 이곳에 묘를 둬으로써 그의 아들 이문준(李文竣)부터 세거하기 시작하였다고 전하나 근거가 미약하다.

9. 함평 이씨

함평 이씨의 시조는 고려 광종대의 신호위대장군(神虎衛大將軍) 이언(李彦)이다. 이언이 함풍군(咸豐君)으로 봉해지면서부터 그의 후손들이 함안을 관향으로 삼은 듯하다. 함풍은 함안의

옛 이름이다. 하남지역에는 이언의 10대손 이종생(李從生)의 후손들인 함성군파가 천현동 샘재마을 교산동에 세거하고 있다. 이종생은 1460년(세조 6) 별시 무과에 급제하여 선략장군(宣略將軍)·절충장군(折衝將軍)을 거쳐 1467년(세조 13) 이시애(李施愛)의 난 때 공을 세워 2등공신 함성군(咸城君)에 올랐다.

이어 충청·함경·경상도 병마절도사를 지내고, 동지중추원, 오위도총부 부총관 겸 사복장, 한성부 좌윤 등을 역임하였다. 그가 죽은 뒤 장량공(莊襄公)의 시호를 받았다. 그의 아들 이양(李良)도 연산군과 중종대에 전라·충청 수군절도사, 함경도 병마절도사 등을 역임하였다. 특히, 함평 이씨는 조선시대에 무인으로서 많은 활약을 하였고 72인의 문과 급제자를 배출한 가문이다.

10. 인동 장씨

인동 장씨는 고려초기 삼중대광신호위상장군(三重大匡神虎衛上將軍)을 지낸 장금용(張金用)을 시조로 한다. 그뒤 그의 후손들이 옥산(玉山)에 세거하면서 본관을 옥산으로 하여 세계를 이었으나, 조선시대에 이르러 옥산이 인동(仁同)으로 바뀜에 따라 관향도 인동으로 바뀌게 되었다. 장금용의 선조는 장정필(張貞弼)로 알려지고 있으나 세계(世系)를 잃어 버렸고, 고려 우왕 때에 태상경(太上卿)으로서 문하시중 도첨의밀직사를 지내고 옥산군(玉山君)으로 봉해진 장백(張伯)을 중시조로 하고 있다. 인동 장씨의 주요 세거지는 17세손 장영손(張永孫)의 후손이 남양주·광주 등지에 나뉘어 살았다. 또한 태상경공 장백의 후손들이 파주와 광주 등지에 살아온 사실이 『무진보(戊辰譜)』에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일찍이 서울을 비롯한 경기도 일원에 터를 잡아온 듯하다.

장백의 11대손 장호익(張虎翼)의 후계가 파주·장단·광주 등지에 세거하였다고 하며, 하남 지역에는 상사창동 법화골에 태상경공파의 12대손 장헌익(張憲翼)이 1690년(숙종 16)에 정착하여 세거하기 시작하였다고 전한다.

11. 담양 전씨

고려시대 현량으로 천거되어 좌복야 참지정사에 이르렀고 충원(忠元)의 시호를 받고 담양군(潭陽君)으로 봉해진 전득시(田得時)를 시조로 한다.

이후 그의 후손들이 담양을 본관으로 하여 세계를 이어왔다. 이어 7세에 와서 전녹생(田祿生)이 사헌부 대사헌, 전귀생(田貴生)이 밀직제학, 전조생(田祖生)이 첨의부사 등의 관직을 거쳐 가문을 번성케 하였는데, 이들을 일컬어 '전씨 삼은(三隱)'이라 한다. 이 3형제 중 전녹생은 고려 충혜왕 때 명신으로 내외 요직을 두루 거치면서 많은 치적을 남겼다. 하남지역에는 전녹생의 후손 전문성(田文聖)의 아들들이 남양주시 수택동에 살다가 1850년(철종 1) 그들의 경작지가 있는 둔지로 건너와 살았는데, 1925년 대홍수 때 지금의 선동으로 옮겨 세거하였다고 전한다.

12. 배천 조씨

고려 현종대 좌복야(左僕射)를 지낸 조지린(趙之遴)을 시조로 한다. 그의 아들 조양유(趙良裕)가 배천군에 봉하여졌으므로 그 후손들이 이곳을 관향으로 하여 세계를 이어왔다. 배천 조씨는 11세 조득주(趙得珠)의 후손이 부흥부원군(復興府院君)과 등으로 나누어지고 조득주의 증손 숙위공(肅魏公) 조반(趙胖)의 아들 조서로(趙瑞老) 후손이 다시 승지(承旨)공과 등으로 나뉘어진다. 하남지역에는 조반의 9세손 조필방이 한성부 좌윤을 퇴직한 후 더우개·당정리(堂亭里)에 정자를 짓고 풍류를 즐겼고, 이후 이곳에 정착함으로써 시초가 되었다고 하나 근거가 매우 미약하다.

13. 경주 최씨

경주 최씨는 신라말 석학 최치원(崔致遠)을 시조로 하는 성씨이다. 하남지역의 경우, 최치원의 18세손 최근(崔謹)이 임진왜란 당시 미사동으로 피난을 와 세거하기 시작하였다고 전한다. 최근의 외아들 최희순(崔希順)은 최승운(崔勝雲)·최천길(崔天吉)·최천남(崔天南)·최천운(崔天雲)·최덕지(崔德枝) 5형제를 두었다. 이들은 미사동·망월동의 장수마을, 풍산동의 진등마을, 덕풍3동의 방통이마을에 흩어져 세거하였다고 한다. 경주 최씨는 세계상 20여 파를 헤아리는데, 9세손 최현우(崔玄祐)를 중시조로 하는 화숙(和淑)공파가 이곳으로 이주하였다. 특히, 구산에 세거하는 사람들 가운데 조선후기 천주교 박해 때 순교한 사람이 많은데, 이들이 일찍부터 천주교에 귀의했음을 알 수 있다. 유명한 인물로는 신소설을 쓴 최찬식(崔贊植)과 자유당 정권 당시 내무부 장관을 지낸 최인규(崔仁圭)가 있다.

14. 남양 홍씨

남양 홍씨는 같은 본관이지만 조상을 달리하는 당홍(唐洪)계와 토홍(土洪)계가 있다. 당홍계의 경우, 당에서 귀화한 홍천하(洪天河)를 시조라 한다. 그러나 그 이후의 계대(系代)가 확실하지 않아, 고려 태조를 도와 삼한통일의 공을 세운 개국일등공신 홍은열(洪殷悅)을 기세조(起世祖)로 한다. 한편, 토홍계의 경우, 고려 중엽 금오위 별장을 지낸 홍선행(洪先幸)을 시조로 한다. 하남지역의 세거 성씨는 망월동 상망의 홍은열(洪殷悅)의 17세손 홍희영(洪希榮)이 1700년대 초에 세거하기 시작하면서 부터라고 전하나 고찰할 길이 없다.



1950년대 하남지역 동쪽마을 분포도

제3장 하남의 인물

제1절 삼국시대

고흥(高興) : ? ~ ?

백제 근초고왕 때의 학자로 출생에 관해서는 자세히 알 수 없다. 다만, 중국적인 성씨를 가진 것을 미루어 백제에 귀화한 중국인으로 보는 견해도 있고, 토착인으로서 한화(漢化)하여 고씨를 칭하게 된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신증동국여지승람』·『광주부읍지』·『중정남한지』에 의하면 고흥을 이 지역 인물로 소개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이 지역과 관계가 깊은 인물로 이해된다.

고흥은 백제의 박사로서 백제 최초의 역사서라 할 수 있는 『서기(書記)』를 편찬했는데, 『삼국사기』에는 『고기(古記)』를 인용하여 “백제는 개국 이래 아직 문자로서 사실을 기록함이 없었는데, 이에 이르러 박사 고흥을 얻어 비로소 『서기』를 가지게 되었다”고 기록하였다.

〈참고문헌〉 『三國史記』;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신증동국여지승람』 광주목

제2절 고려시대

왕규(王規) : ? ~ 945년(혜종 2)

고려 초기 광주(廣州)지방의 호족출신으로 태조 왕건을 받들어 대광(大匡)에 이르렀다. 왕규는 두 딸이 태조의 제15비(妃) 광주원부인과 광주원군을 낳은 제16비 소광주원부인에 책봉되자, 광주의 지방세력을 기반으로 한 왕실의 외척으로서 막강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그에 대한 기록 가운데 하나인 강원도 영월(寧越)의 흥녕사징효대사탑비(興寧寺澄曉大師塔碑)를 보면, 왕규가 흥녕사 조성에 태조 왕건과 함께 참여하고 있다. 이로 미루어 볼 때, 하남지역의 천왕사를 비롯한 대사찰 조성에도 왕규가 관계하였을 것으로 짐작된다. 한편, 왕규는 염상(廉相)·박수문(朴守文)과 함께 태조의 임종을 곁에서 지킨 세 재신 중 한 사람으로서, 태조가 죽자 그 유명(遺命)을 안팎에 선포하는 중책을 맡기도 하였다. 이처럼 왕규는 태조의 두터운 신임을 받았으나, 혜종이 즉위한 뒤에는 혜종의 왕권에 도전하는 가장 강력한 적대세력의 하나가 되었다. 결국 왕규는 자기의 외손자 광주원군을 왕위에 앉히려고 난을 일으키려다가 정종에 의해 진압되었다. 그뒤 정종은 왕규를 붙잡아 갑곳에 귀양보냈다가 사람을 보내어 죽였으며, 그의 일당 300여 명도 아울러 처형하였다.

〈참고문헌〉 『高麗史』 ; 『高麗史節要』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탄문(坦文) : 900년(효공왕 4) ~ 975년(광종 26)

고려초기의 고승(高僧)으로 광주인이며 성은 고(高)씨이고 자(字)는 대오(大悟)이다. 5세에 출가할 뜻을 품었고, 그뒤 양주(楊洲) 장의사(莊義寺)의 신엄(信嚴)에게서 불경 등을 배웠으며, 15세에 구족계(具足戒)를 받았다. 계행이 매우 높아 고려 태조가 별화상(別和尚)이라 불렀고, 왕후가 잉태하자 순산(順產)을 기원하게 하였는데, 그로 인해 광종이 태어나자 태조로부터 특별한 대우를 받게 되었다. 구룡산사(九龍山寺)에 머물면서 『화엄경(華嚴經)』을 강의할 때에는 새가 날아들고 호랑이가 뜰에 와 엎드려서 별대덕(別大德)이라 불렀다는 설화도 전해질 정

도로 교선(敎禪)을 겸비하였다. 또 942년(태조 25)에 염주(鹽州)와 배주(白州)에 메뚜기가 창궐하였을 때 그가 『대반야경(大般若經)』을 강(講)하자 벌레가 없어지고 풍년이 들었다는 설화도 전해진다. 태조에 이은 혜종과 정종 또한 그를 지극히 공경하였고, 광종은 그를 왕사(王師)로 삼고 귀법사(歸法寺)에 머물게 하였다.

특히, 그는 광종과의 관계가 밀접했으며, 광종의 불교 개혁정책에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여겨진다. 974년(광종 25)에 국사(國師)가 되어 가야산으로 옮겨갈 때 광종이 왕후와 백관(百官)을 데리고 전송했으며, 어의(御醫)를 보내어 병을 살피게 하였을 정도로 공경 받았다. 다음해 3월 가부좌한 채 입적(入寂)하니, 향년 75세이고 법랍(法臘) 61세였다. 시호는 법인(法印), 탑호는 보승(寶乘)이며, 충청남도 서산시 운산면 용현리 보현사지(普賢寺址)에 탑비가 남아있다.



보현사지 탄문 탑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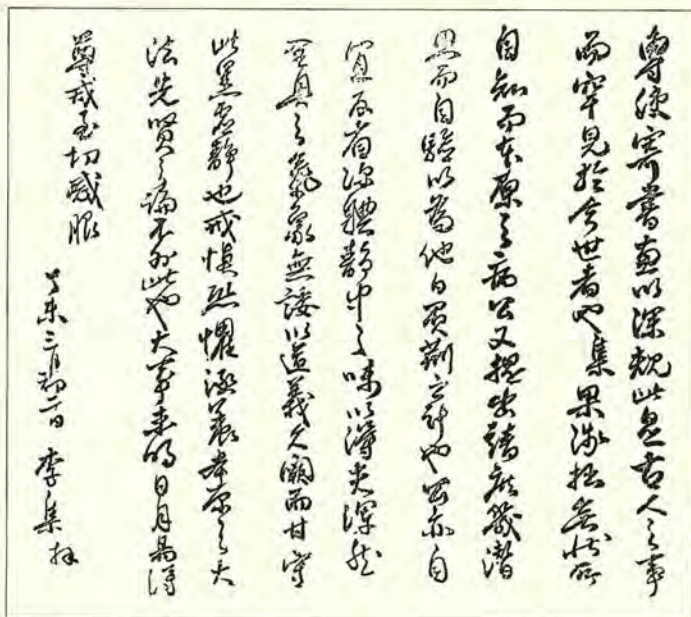
〈참고문헌〉 『高麗史』; 『朝鮮金石總覽』;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李能和, 『朝鮮佛教通史』, 신문관, 1917; 金龍善, 『光宗의 改革과 歸法寺』, 『高麗光宗研究』, 一潮閣, 1981.

이양(李陽) : ? ~ ?

공민왕대의 공신이다. 그는 1352년(공민왕 1) 공민왕이 원나라의 연경(燕京)에 있을 때 수종한 공으로 연저수종이등공신(燕邸隨從二等功臣)에 봉해졌다. 1363년(공민왕 12) 김용(金鏞)이 공민왕의 흥왕사(興王寺) 행차를 기회로 왕을 죽이려고 한 흥왕사의 변이 일어났을 때, 이양은 전공판서(典工判書)로서 김용 세력을 토벌하여 그 공으로 흥왕토적이등공신(興王討賊二等功臣)에 서훈되었다. 『경기인물지』에는 그의 묘가 하남시 덕풍동(德豐洞)에 있다고 한다.

〈참고문헌〉 『高麗史』; 『京畿人物誌』;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이집(李集) : 1327년(충숙왕 14) ~ 1387년(우왕 13)



이집 친필

고려말의 학자이자 문인으로, 본관은 광주(廣州)이다. 원래 이름은 원령(元齡)이고, 자는 성로(成老)·호연(浩然), 호는 묵암자(墨巖子)·둔촌(遁村)이다. 광주의 향리로 국자감 생원이었던 이당(李唐)의 아들로 안보(安輔)에게 배웠다. 1347년(충목왕 3) 과거에 급제하였고 전해지며, 문장을 잘 짓고 지조가 굳기로 명성이 높았다. 그는 왜구를 격퇴하기 위해 합포종사(合浦從事)를 역임하였고, 판전교시사(判典校寺事)에 이르렀다. 개성에 거주하고 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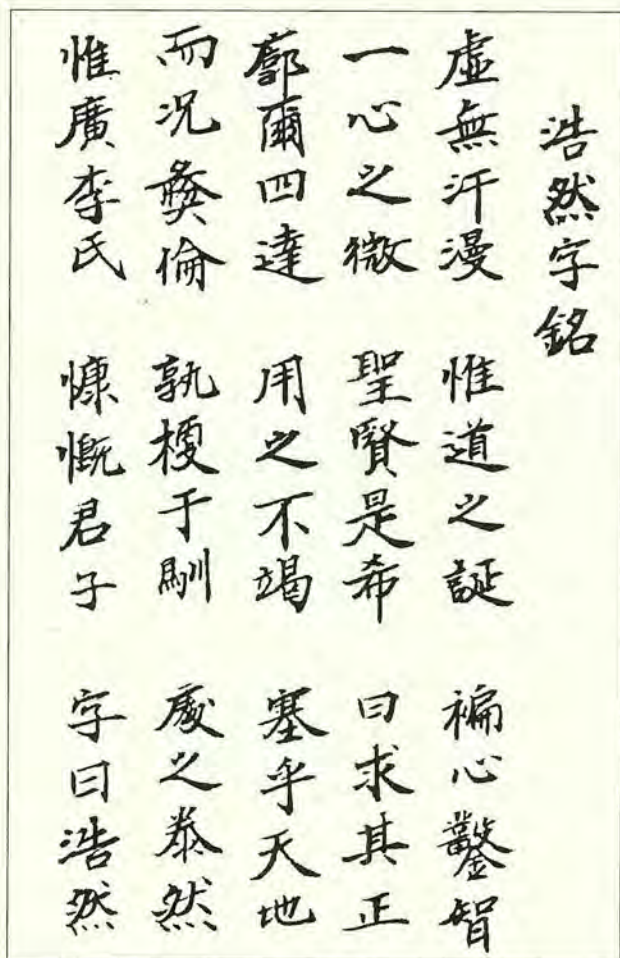
을 때 신돈(辛旽)의 문객이었던 채가(蔡哥)와 한 마을에 살았는데, 신돈을 미워한 이집은 여러 사람이 보는 앞에서 채가를 배척하였다. 이 사건으로 신돈의 미움을 받아 1368년(공민왕 17) 그는 아버지를 등에 업고 가족과 함께 영천(永川)에 있는 사간(司諫) 최원도(崔元道)의 집으로 피하여 겨우 죽음을 면하였다. 1371년(공민왕 20) 신돈이 죽자 개경으로 돌아와, 그는 이름과 자·호를 한꺼번에 고쳐 이름을 집(集), 자를 호연, 호를 둔촌이라 하였다. 얼마 후 그는 판전교시사(判典校寺事)에 임명되었으나 곧바로 사직하고, 여주 천령현(川寧縣 : 여주군 금사면 이포)에 묻혀 살면서 독서로 세월을 보냈다. 이때 그는 김구용(金九容)과 서로 가까워 아침 저녁으로 대화하면서 말년을 보냈다.

그는 사람됨이 강개(慷慨)하고 말할 때마다 정곡을 찔렀으며, 행실이 우뚝하여 절의(節義)로 자부하였다. 고려말 삼은으로 유명한 이색(李穡), 정몽주(鄭夢周), 이승인(李崇仁) 등과 교류하였고, 학문에 있어서 명성이 높았다.

문집의 부록에 실린 삼은의 기(記)·서(序)·서(書)는 그와 이들과의 관계를 잘 보여준다. 문장을 지을 때 정련(精練)하고 충담(沖澹)한 필치가 있었지만 무엇보다도 시에 뛰어났다. 그의 시는 꾸미거나 돌려 말하기보다 직서체(直敘體)에 의한 자연스럽고 쉬운 작품이 많다. 『동

국여지승람』에는 그가 조선조에 벼슬을 지냈다고 잘못 기록되어 있는데, 1611년(광해군 3) 그의 8대손 영의정 이덕형(李德馨)의 주청이 받아들여져 『신증동국여지승람』에서 바로 잡혀지게 되었다.

1669년(현종 10)에 건립된 광주(현재의 서울 강동구 암사동)의 구암서원(龜巖書院)에 제향되었다. 저서로는 『둔촌유고(遁村遺稿)』가 있다. 아들로 이지직(李之直)·이지강(李之剛)·이지유(李之柔) 3형제가 있는데, 이들은 모두 과거에 합격하여 이지직은 형조참의 보문각 직제학, 이지강은 좌참찬, 이지유는 성주(星州)목사에 이르렀다. 그후 대부분의 손자들도 과거에 합격하여 광주 이씨를 조선 전기 최고의 별족으로 만들었다. 그의 묘는 광주군(廣州郡) 세촌면(細村面) 대원리(大院里 : 지금의 성남시 하대원동)에 있다. 묘표(墓表)가 있었으나, 1633년(인조 11년) 다시 세우면



호연자명

서 10대손 이휴징(李休徵)이 비문을 찬하고, 11대손 이상진(李象震)이 글을 썼다.

〈참고문헌〉 『高麗史』; 『朝鮮王朝實錄』; 『李集墓碣』; 『重訂南漢誌』; 『城南市史』; 『京畿人物誌』; 『松坡區誌』, 『서울六百年史』;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제3절 조선시대

이지강(李之剛) : 1363년(공민왕 12) ~ 1427년(세종 9)



이지강의 묘

조선전기의 문신이다. 본관은 광주(廣州), 자는 중잠(仲潛)으로, 판전교시사(判典校寺事)를 역임한 이집(李集)의 아들이다. 그는 1382년(우왕 8) 과거에 급제하여 중서문하성의 녹사(錄事)를 거쳐 1392년(태조 1) 기거주(起居注)로서 조선의 건국에 참여하였다. 1393년(태조 2) 6월 현빈 유씨의 일을 논하다가 순군옥에 갇혔으나, 같은 해 6월 공신인 까닭에 사면되었다.

이방원(李芳遠)의 측근으로, 이방원이 즉위한 뒤 사헌부 장령으로서 풍기 단속과 개국공신의 제거에 앞장섰다. 1407년(태종 7) 4월 을과(乙科) 제2등(第二等)에 급제하고, 예문관 직제학에 특별히 임명되어 토지 40결을 하사 받았다. 곧이어 판선공감사(判繕工監事)가 되어 조선초기 궁궐 수축에 힘썼으며, 수원부사가 되어 민정을 직접 다스리기도 하였다. 1411년(태종 11) 예조참의로서 충청도·전라도 경차관에 임명되어 민정을 순찰하고 관리의 탐학을 밝혀 탄핵, 파직시켰다. 그후 이조참의를 거쳐 1414년(태종 14) 12월 예문관 제학(藝文館提學)에 임명되었다. 이듬해 정월 경상도관찰사·충청도관찰사를 거쳐 1416년(태종 16) 한성부윤이 되어 도성의 살림을 주관하였다. 이듬해 다시 경상도관찰사를 역임하고 다시 내직으로 옮겨 호조참판·형조참판을 지냈다. 1418년(태종 18) 3월 사헌부(司憲府)에서 형조참판이었던 그를 상소하여 죄를 청하였다. 그러나 태종은 이지강이 이미 간원(諫院)의 탄핵을 당하여 정부와 육조(六曹)에서 함께 의논하여 죄를 정하였으니 다시 청할 수가 없다면서 이지강을 두둔하였다. 그후 곧바로 함길도관찰사(咸吉道觀察使)로 복직되었고, 3일 후 다시 호조참판 세자좌부빈객(世

子左副賓客)으로 임용되었다. 1419년(세종 1)에는 세종이 즉위하자 호조참의 동지경연사(戶曹參議同知經筵事)로 임명되고 부사로서 명나라에 다녀왔으며, 평안도관찰사·이조참판을 역임하고 다시 호조참판이 되어 재정체계를 바로 잡는 데 힘썼다. 1420년(세종 2) 호조판서, 이어 1421년(세종 3) 7월 예조판서, 1422년(세종 4) 9월 호조판서, 1424년(세종 6) 6월 참찬 겸 대사헌, 참찬 등을 지내고, 1425년(세종 7) 7월 중군도총제(中軍都摠制)가 되어 군권을 총지휘하게 되었으나, 다음달인 윤6월에 병으로 사임하였다. 시호는 문숙(文肅)이며, 그의 묘는 할머니 인화(仁華) 이씨가 있는 덕풍2동에 있다.

〈참고문헌〉『朝鮮王朝實錄』：『廣州郡誌』：『城南市史』：『京畿人物誌』：『서울六百年史』：『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정척(鄭陟) : 1390년(공양왕 2) ~ 1475년(성종 6)

조선전기의 문신으로 본관은 진주(晉州), 자는 명지(明之), 호는 정암(整菴)이다. 증첨지중추원사(贈僉知中樞院事) 정장(鄭莊)의 증손이고, 증호조판서 정설(鄭舌)의 아들이다. 어머니는 진주 강씨(晉州 姜氏)로 산원(散員) 강우(姜祐)의 딸이다. 그는 1408년(태종 8) 생원시에 합격하고 1414년(태종 14)에 식년문과에 급제하여 교서관 정자(校書館正字)에 보직되었으며, 여러 차례 승진하여 봉상시 주부(奉常寺主簿)가 되었다. 이어 사헌부 감찰·예조 정랑·검사를 거쳐 전농시 소윤(典農寺少尹)에 승진되었고, 의정부 사인으로 잠시 옮겼다가 지승문원사가 되었다. 당시 임금의 관(棺)은 사용할 시기에 임박하여 만드는 것이 상례였다. 그런데 그가 조정에 새로운 의견을 내어 처음으로 장생전(長生殿)을 세우게 하였다. 1444년(세



정척의 신도비

종 26) 첨지중추원사가 되고 공조·호조·예조의 참의를 두루 역임한 뒤, 1448년(세종 30) 경창 부윤(慶昌府尹)이 되었다. 1449년(세종 31) 성절사가 되어 명(明)에 갔다왔으며, 1450년(세종 32) 예조 참판이 되어 『양계지도(兩界地圖)』를 찬진하였다. 1453년(단종 1)에 가정대부에 오르고, 1454년(단종 2) 자헌대부 판한성부사에 승진되었다가, 1455년(단종 3) 외직으로 나가서 충청도관찰사가 되었다. 세조가 즉위하자 불러들여 지중추원사에 임명하였다. 1457년(세조 3) 본직으로 봉조청(奉朝請)이 되고, 1463년(세조 9) 양성지(梁誠之)와 함께 『동국지도(東國地圖)』를 찬진하였다. 1468년(세조 14) 정헌대부가 되었으며, 1471년(성종 2) 부사직으로 옮겼다.

정척은 청렴·신중하였고, 또한 일을 처리하는데 있어서 정밀·상세했을 뿐만 아니라 매우 부지런했다. 해자(楷字)와 전문(篆文)의 글씨가 정밀하고 교묘하여, 옥새와 관인의 글씨가 모두 그의 솜씨에서 나왔다고 한다. 또한 전례(典禮)와 고사(故事)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조정의 의례와 제도를 찬술한 것이 많았다. 성품이 충성스럽고 효성스러워 공경(公卿)이나 오래 사귄 친구의 부음이 있을 때에는 비록 질병이 있더라도 소식(素食)을 먹었다고 한다. 한번은 세종이 병이 나서 포도를 먹고자 했으나 절기가 늦어 구할 수 없게 되자, 자기 집 마당에 있던 수정포도를 따서 올렸다. 세종이 흡족해 하자 이때부터 해마다 포도를 진상하였다고 한다. 세조가 즉위하여 “부왕께서 정척의 청렴하고 정직함을 여러 번 칭찬한 것을 들은 것이 어제처럼 또렷하다”라 하고 예우하였다. 시호는 공대(恭戴)라 하였다. 그의 묘는 하남시 초이동(草二洞)에 있다.

〈참고문헌〉 『朝鮮王朝實錄』; 『廣州郡誌』; 『京畿人物誌』; 『서울六百年史』;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김정경(金定卿) : 1345년(충목왕 1) ~ 1419년(세종 1)

조선전기의 문신으로 본관은 안산(安山)이다. 문하시중 김위(金渭)의 증손이고, 판삼사사(判三司事) 김원상(金元祥)의 손자이며, 진주목사 김성경(金星慶)의 아들이다. 고려 말에 군부사총랑(軍簿司摠郎)을 역임한 그는 새로운 왕조 창업에 찬성하고 이성계(李成桂)를 지지하였다. 조선이 개국한 뒤 그는 사문절도사를 거쳐 이조전서를 지냈는데, 인사관리를 잘하였다. 1396년(태조 5) 판예빈시사(判禮賓寺事)가 되어 전라도와 충청도의 여러 성을 수축하고 군비를 점검하였으며, 병선(兵船)의 허실을 조사하였다.

1400년(정종 2) 방간(芳幹)의 난이 일어나자, 그는 한성부윤으로서 이방원(李芳遠)에 협력하여 이를 진압하였다. 그 공으로 그는 좌명공신(佐命功臣) 4등에 정해지고 연성군(蓮城君)으로 봉해졌다. 그뒤 공안부윤(恭安府尹)이 되었는데, 명 나라에 사신으로 가는 것을 피하기 위

해 병을 핑계 삼다가 대간의 탄핵을 받기도 하였다. 1404년(태종 4) 좌군도총제(左軍都摠制), 1408년(태종 8) 개성부 유후(開城府留後)를 역임하고, 1410년(태종 10) 성절사(聖節使)로 명나라에 다녀왔다. 김정경은 용맹하고 매사에 적극적이었으나, 재물을 좋아하여 사람들로 부터 비난을 받았다고 한다. 시호는 위정(威靖)이며, 묘는 하남시 감북동에 있다.



김정경의 묘

〈참고문헌〉『朝鮮王朝實錄』；『國朝人物考』；『始興郡誌』；『廣州郡誌』；『京畿人物誌』；『서울六百年史』；『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희령군(熙寧君)：? ~ 1465년(세조 11)

조선전기의 종실로 이름은 타(陀)이다. 어머니는 태종의 후궁 최씨(崔氏)이다. 그는 어릴 때부터 질병으로 하루도 조정에 설 수가 없었다. 그러나 평소 성품이 온순하고 부드러웠으며, 정조(正朝)·동지(冬至) 때 가정(家庭)에 위패를 설치하고 예를 행하였다. 1433년(세종 15) 정월 세종은 이타를 희령군(熙寧君)으로 봉하였고, 중한 병을 가엾게 여겨 특별히 과전(科田) 1백 결(結)을 주었다. 1452년(단종 즉위) 단종이 호조(戶曹)에 명령을 내려 윤처공(尹處恭)의 집을 주었다. 1465년(세조 11) 7월에 죽었는데, 그의 줄기에 따르면, “이정(夷靖)이라고 시호(諡號)하니, 마음이 편안하며 편안함을 좋아하는 것을 이(夷)라 하고, 부드



희령군(이타)의 신도비

럽고 곧으며 편안히 살다 죽은 것을 정(靖)이라" 한다 하였다. 그의 자식으로 아들이 셋 있었는데, 맏아들 이감(李堪)은 화성군(花城君)이고, 둘째 아들 이배(李培)는 영원정(領原正)으로 먼저 죽었다. 셋째 아들 이계(李玪)는 곡강령(曲江令)이다.

〈참고문헌〉『朝鮮王朝實錄』

박강(朴薑) : 1406년(태종 6) ~ 1460년(세조 6)



박강 신도비

조선전기의 문신으로 본관은 반남(潘南)이다. 고려시대 정당문학(政堂文學)이었던 박상충(朴尙衷)의 후예이자 좌의정 박은(朴堧)의 아들이다. 형제로는 박규(朴葵)·박환(朴煥)이 있다. 1442년(세종 24) 4월 그는 대호군(大護軍)으로 의금부의 탄핵을 받아 곤장 80대를 맞아야 했다. 그러나 그는 공신의 후예라는 이유로 관직만 파면되었다. 다음달에도 탄핵이 계속되자, 세종이 황희(黃喜)에게 의논하게 하였다. 의논한 대신들이 “이 사람들의 죄는 불경(不敬)에 관계되니 마땅히 직첩(職牒)을 회수하고 곤장을 집행하여 그 나머지 사람들을 징계해야 될 것입니다”고 건의하니, 국왕이 그대로 따랐다. 1444년(세종 26) 대호군을 거쳐 이듬해 군기감정(軍器監正)에 임명되고 특별히 통훈대부(通訓大夫)로 한 계급이 올려졌다. 이어 판사를 거쳐 1447년(세종 29) 12월 평안도 경차관으로

임명되어 평안도를 순시하는 직무를 다했으며, 다음해 2월에는 첨지중추원사(僉知中樞院事)에 임명되었다. 그후 1449년(세종 31) 2월 공조참의, 5월 이조참의를 지낸 후, 8월 평안도 도진무로 요동 변란을 막았다. 이어 이조참의를 거쳐 1450년(문종 즉위) 8월 황해도 도절제사(黃海道都節制使)가 되었으나, 같은달 말에 하직하였다. 그뒤 1450년 3월 황해도 도관찰사 겸 병마도절제사 판해주목사, 1452년(단종 즉위) 12월 중추원부사(中樞院副使)가 되었다.

1453년(단종 1) 10월 강원도관찰사(江原道觀察使)로 나갔으나, 11월 다시 중추원부사에 임명되었다. 그뒤 1455년(단종 3) 9월 수양대군의 왕위찬탈에 협력하였다. 그 공으로 그는 추충좌익공신(推忠佐翼功臣) 3등에 정해지고 금천군(錦川君)에 봉해졌다. 1456년(세조 2) 7월 경상·전라·충청 삼도순찰사(慶尙全羅忠淸三道巡察使)와 지중추원사(知中樞院事)를, 다음해 정월 충청·전라·경상도의 도순찰사(都巡察使)로서 부사(副使) 구치관(具致寬) 등과 함께 경상·전라·충청도의 여러 진(鎭)과 포(浦)를 순시하고 사건을 낱낱이 열거하여 기록하였다.

1457년(세조 3) 지중추원사(知中樞院事), 8월 좌상대장, 9월 지중추원사를 거쳐 1458년(세조 4) 6월에 좌익 3등공신으로 정해졌다. 1459년(세조 5) 정월 선공감 제조(繕工監提調), 7월 황해도 도순찰사(黃海道都巡察使), 9월 중추원사, 10월 우상대장(右廂大將), 1460년(세조 6) 정월 중추원사를 지냈다. 그는 특히 무예에 능했는데, 왕이 양녕대군(讓寧大君)과 박강에게 활을 쏘게 하니, 박강이 많이 맞혀 내구마(內廐馬) 1필을 받았다. 뿐만 아니라 사냥에도 능해서 1460년(세조 6) 10월 세조가 황주진(黃州鎭)·해주진(海州鎭)·수안진(遂安鎭)의 군사를 합쳐 주엽산(走葉山)에서 사냥하게 하였는데, 호랑이 한 마리와 노루·사슴·여우·돼지 등 40여 마리를 잡았다. 박강은 1460년(세조 6) 11월 7일 죽었는데, 세조가 쌀·콩 40석, 종이 100권, 유둔(油屯) 4부를 부의(賻儀)하였다. 박강은 성품이 정교하고 재주가 많았다고 한다. 시호(諡號)는 세양(世襄)이며, 묘는 하남시 초이동에 있다.

〈참고문헌〉 『朝鮮王朝實錄』; 『朴薑神道碑』

이종생(李從生) : 1423년(세종 5) ~ 1495년(연산군 1)

조선전기의 무신으로 본관은 함평(咸平), 자는 계지(繼之)이다. 선략장군 호분위호군(宣略將軍虎賁衛護軍)으로 병조판서에 추증된 이극명(李克明)의 아들이다. 1460년(세조 6) 7월 그는 별시무과에서 을과 제3인에 뽑혀 등급을 몇 단계 뛰어넘어 창신교위(彰信校尉)에 임명되었다. 같은해 10월 북정(北征) 도원수 신숙주(申叔舟)의 군관으로 공이 있어 선략장군에 발탁되었으며, 1461년(세조 7) 5월 도시(都試)에서 1등을 하여 선절장군(宣節將軍)이 되어 수직(守職)으로 의흥위 대호군(義興衛大護軍)이 되었다. 1464년(세조 10) 어모장군(禦侮將軍)이 되어 동관진 첨절제사(潼關鎭僉節制使)가 되고, 1466년(세조 12) 절충장군(折衝將軍)에 올랐다. 1467년(세조 13) 이시에(李施愛)의 난을 진압할 때, 그는 북청 만령(蔓嶺)에서 반란군을 대파하는데 위장(衛將)으로서 선봉이 되었다. 그 공으로 그는 적개공신(敵愾功臣) 2등에 정해지고 함성군(咸城君)에 봉해졌다. 이듬해 건주위(建州衛)의 여진인을 공격한 공으로 영변대도호부

사가 되었으며, 1469년(예종 1) 한성좌윤이 되었다가 평안동서중 삼도절도사(平安東西中三道節度使)가 되었고, 1471년(성종 2) 도총관을 겸하였다. 1473년(성종 4) 내금위장이 되었다가 이어 충청도 병사가 되었다.



이종생 공신록전

1479년(성종 10) 윤필상(尹弼商)의 건주위정벌 때 호분위장(虎賁衛將)이 되어 출전하여 선봉으로 싸워 공을 세우고 부상을 입었다. 1481년(성종 12) 영안남도병사 겸 북청도호부사에 임명되었으며, 1485년(성종 16) 경상우병사가 되었다. 1491년(성종 22) 겸사복장(兼司僕將)이 되었고, 1495년(연산군 1)에는 부총관을 겸임하였다. 그는 타고난 성품이 정직하고 너그럽고 후하였으며, 직무를 이행할 때 대세를 따르고, 사람을 대할 때는 관대하였다. 또한 그는 명장으로서 지덕을 겸하였다는 평을 들었다. 시호는 장양(莊襄)이고, 묘는 하남시 감북동에 있다.

〈참고문헌〉 『朝鮮王朝實錄』, 『京畿人物誌』,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밀성군(密城君) : 1430년(세종 12) ~ 1479년(성종 10)

조선전기의 종실로 이름은 침(琛)이고 자는 문지(文之)인데, 세종의 12번째 아들로 다섯 번째 서자이며, 어머니는 신빈 김씨(愼嬪 金氏)이다. 1442년(세종 24) 7월 밀성군(密城君)에 봉해졌고, 1444년(세종 26) 풍저창사(豐儲倉使) 민승서(閔承序)의 딸과 혼인하였다. 1452년(문종 2) 3월 병이 위독하게 되자, 문종이 안평대군(安平大君) 이용(李瑬)에게 중을 모아 흥천사(興天寺)에서 기도하게 했더니 병이 나았다 한다.

세조(世祖)는 그가 언행을 삼가고 조심하며 우애(友愛)가 돈독함을 가상하게 여겨 금병(禁

兵)을 맡게 하였다. 그리고 1461년(세조 7) 3월 국왕이 직접 미곡 30석(石)· 황두(黃豆) 20석을 내려 주었다. 세조가 군정에 뜻을 두자 삼군진무소를 고쳐서 도총부를 만들고, 도진무를 도총관을 삼아 종실의 중신을 택하여 제수할 때 가장 먼저 그 선택에 응하였다.

1462년(세조 8) 모친상을 당하자 홀로 여막에서 예를 다하니, 사람들이 그의 효성을 칭찬하였다.



밀성군(이침)의 묘

1467년(세조 13) 정월에 세조가 그를 겸오위도총부(兼五衛都摠府) 도총관(都摠管)으로 삼아 이시애의 난을 평정하러 보내려 하였으나 병이 있어 교체하였다. 1468년(세조 14)에는 유도장(留都將)· 유도상(留都相)을 겸하였다. 세조의 배려가 지극하여 세조가 죽자 그의 묘 자리를 보는 데 깊이 관여하였다. 1468년(예종 즉위) 10월 남이(南怡)가 죄에 연루되어 죽을 때 수충보사정난익대공신(輸忠保社定難翼戴功臣)의 칭호를 받았다. 1469년(예종 1) 세종대왕의 능(영능)을 여주로 옮길 때 도제조가 되어 일을 추진하였고, 예종이 도총관으로 삼아 병권을 장악하게 하자 사양하였다.

그러나 예종은 특명으로 밀성군 이침의 셋째 아들과 넷째 아들을 군으로 봉해 주었다. 성종이 즉위하자 호위한 공이 있다고 해서 좌리공신의 호를 하사했다. 1474년(성종 5) 12월 사간원에서 종친의 범법을 탄핵하는 것에 대해 구례(舊例)에 종친(宗親)이 법을 어기면 종부시(宗簿寺)에서 규핵(糾劾)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1478년(성종 9) 여름, 병에 걸려 치료했으나 다음해 정월 집에서 죽었다. 향년 50세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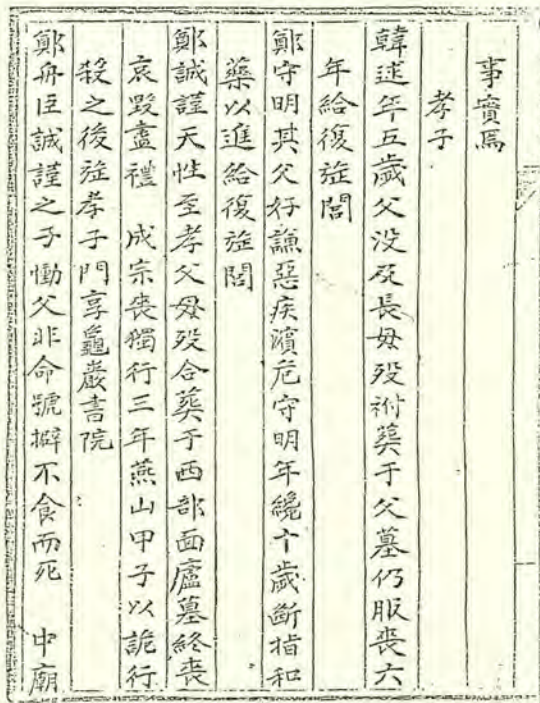
이침은 4남 2녀를 낳았는데, 첫째 아들은 이계(李誠)로 가덕대부 운산군(雲山君)이고, 둘째 아들은 이당(李諱)으로 승헌대부 춘성군(春城君)이고, 셋째 아들은 이상(李讚)으로 정의대부 수안군(遂安君)이고, 넷째 아들은 이격(李諱)으로 정의대부 석양군(石陽君)이다. 큰 딸은 판관 하한문(河漢文)에게, 둘째 딸은 참봉 안우하(安友夏)에게 시집갔다.

이침은 타고난 성품이 현명하고 민첩하며 몸가짐이 단정하고 정중하여 집에 첩을 두지 않았고 법도를 지켰다. 이에 역대 임금의 사랑이 식지 않았고, 항상 사옹원(司饗院)· 문소전(文昭殿)· 종부시 제조(宗簿寺提調)가 되었다. 성종이 시호(諡號)를 장효(章孝)라 하였고, 1782년(정조 6) 2월 효희(孝僖)라는 시호(諡號)가 내려졌다. 묘는 하남시 초이동에 있다. 서거정이

찬한 신도비와 함께 향토유적 제2호로 지정되어 있다.

〈참고문헌〉『朝鮮王朝實錄』; 『密城君神道碑』; 『廣州郡誌』;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정성근(鄭誠謹) : 1446년(세종 28) ~ 1504년(연산군 10)



『중정남한지』의 정성근 기사

효자문(孝子門)을 세워 정려(旌閭)하고 구암서원(龜巖書院 : 현재의 서울시 암사동)에 제향되었다. 시호는 충절(忠節)이다.

〈참고문헌〉『朝鮮王朝實錄』; 『廣州郡誌』; 『서울六百年史』; 『重訂南漢誌』; 『晉州鄭氏恭戴公派世譜文獻錄』

운산군(雲山君) : 1453년(단종 1) ~ 1510년(중종 5)

조선전기의 종실로 아버지는 세종의 12자 밀성군(密城君) 이침(李琛)이고, 어머니는 여흥

조선전기의 문신이다. 본관은 진주(晉州), 자는 이신(而信)으로 대제학 정척(鄭陟)의 아들이며, 김종직(金宗直)의 문인(門人)이다. 1474년(성종 5) 식년문과에 급제하고 1479년(성종 10) 홍문관 수찬·부교리·부응교·전한·직제학 등 홍문관에서만 재직하였다. 그 동안 여러 차례 경차관(敬差官)으로 지방에 파견되어 민정을 살피고 유민들을 진휼하였으며, 대마도에 선유사로 파견되기도 하였다. 그후 해주목사·우부승지·좌부승지 등을 지내다 성종 국상(國喪)에 홀로 3년 상을 지낸 죄로 1504년 갑자사화(甲子士禍)에 연루되어 처형되었으나, 중종반정(中宗反正) 후에 신원(伸冤)되었다. 천성(天性)이 효성스러워 부모가 돌아가자 광주 서부면(西部面)에 합장(合葬)하고 여막(廬幕)을 지어 상기(喪期)를 마쳤다. 뒤에

민씨이다. 이름은 계(誠), 자는 신옹(愼翁)이다. 그는 어려서부터 총명하여 세조의 귀여움을 받았다. 12세에 정의대부(正義大夫)를 제수받고, 세조가 직접 사서(史書)와 경서(經書)를 가르쳤다. 그뒤 그는 밀지를 잘 받들어 정2품 승헌대부(承憲大夫)에 올랐으며, 1468년(예종 즉위) 10월에 운산군(雲山君)에 봉해졌다. 성종이 즉위한 후, 1472년(성종 3) 정월 종묘에 부제할 때 헌관인 그에게 안구마(鞍具馬) 1필을 하사하고, 1484년(성종 15) 4월 소덕대부(昭德大夫) 운산군(雲山君)으로 봉하였다.

이듬해 4월 다시 홍록대부 운산군(雲山君)으로 삼았고, 홍록상전 종부시(興祿常典宗簿寺)의 도제조(都提調)에 이르렀다. 일을 시행하는데 너그럽고 가혹하지 않아, 종실들이 공경하여 감히 잘못을 저지르지 못했다고 한다. 또 문소전(文昭殿)과 사옹원(司饔院)의 일을 주관할 때에도 어긋남이 없어 보는 이들이 뛰어나다고 하였다 한다.

1493년(성종 24) 3월 종친의 병을 살피는 것에 대한 불만스러운 점을 상소하였다. 그는 “신 등이 만약 병들었다고 보고하면 종부시에서 살펴보고도 믿지 못해 또다시 가까운 이웃에게 물어봅니다. 그러나 동반(東班)의 조사(朝士)들은 비록 참봉(參奉)만 되어도 병들었다고 보고하면 다시 묻는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종친에게는 이와 같으니, 이는 전하께서 종친을 가까이 하시는 뜻에 어긋납니다”고 하였다. 1504년(연산군 10) 죄에 연루되었으나, 지위가 높고 오랫동안 사옹



운산군 신도비

원 제조(司饔院提調)를 지냈다 하여 죄를 모면하였다. 이러한 사건에도 불구하고, 왕은 그를 가장 높은 직품인 현록대부(顯祿大夫)를 내렸다. 한편, 대신들이 연산군을 내쫓고 중종을 추대할 때 이를 도와 그 공으로 그는 병충분의익운정국공신(秉忠奮義翊運靖國功臣)의 호를 받았다. 1509년(중종 4) 6월 종친부·종부시·사옹원의 제조가 되었으나, 대간은 그가 의롭지 않은 일을 많이 행하였기 때문에 제조가 되기에 알맞지 않은 사람이라 반대했다. 왕은 “운산군이 의롭지 못한 일을 하였던 지는 모르겠으나, 종부시의 유사는 의례로 지위 높은 종실을 임명하는 것이니 또한 교대할 수 없다”면서 거부하였다. 그러나 대간과 대신들의 계속되는 비판을 견디지 못해 벼슬을 그만 두고 조회만 받들었다. 그후 매년 대궐에 나가 문안례를 마치면 곧바로 집으로 돌아와 소일하였다.

1510년(중종 5) 12월 17일에 죽었고, 1511년(중종 6) 3월 초10일에 광주 서쪽 대덕들(大德原 : 현재의 하남시 초이동)에 장사지내고 공소(恭昭)의 시호를 내렸다. 첫째 부인은 주부 곽득륜(郭得倫)의 딸로 딸 하나를 낳고 죽었고, 재취 정씨는 김제군수 정자숙(鄭自淑)의 딸로 1460년(세조 6)에 태어나 시집왔는데 운산군을 장사지내고 4개월만에 병으로 죽으니, 이해 8월 19일 운산군의 묘에 합장하였다. 운산군과 정씨 사이에 아들 3형제를 두었는데, 첫째 아들은 이갱(李鏗)으로 철성군(鐵城君)이고, 둘째 아들은 이강(李綱)으로 고성군(固城君)이며, 셋째 아들은 이진(李鎭)으로 광성부정(匡城副正)이다. 딸이 3명 있었는데, 큰딸은 곽씨 소생으로 파천군(坡川君) 윤탕노(尹湯老)에게, 둘째 딸은 참봉 조신충(趙信忠)에게, 셋째 딸은 유학 송세영(宋世英)에게 시집갔다. 1518년(중종 13) 4월 28일 남곤(南袞)이 찬한 신도비가 초이동에 있다.

〈참고문헌〉『朝鮮王朝實錄』; 『雲山君神道碑』

성경온(成景溫) : 1461년(세조 7) ~ 1504년(연산군 10)



성경온의 묘

조선전기의 문신으로 본관은 창녕(昌寧), 자는 사아(士雅)이다. 아버지는 영의정 성준(成俊)이며, 어머니는 참의 이계기(李啓基)의 딸이다. 1483년(성종 14) 사마시에 합격하고 여러 해 과거에 급제하지 못하다가 1498년(연산군 4) 빙고별제(氷庫別提)에 제수되었고, 이어 사헌부감찰·호조좌랑·의금부도사 등을 역임하였다.

1503년(연산군 9) 별시문과에 병과(丙科)로 급제하여 공조정랑에 이르렀다. 그러나 아버지 성준이 윤씨의 폐위를 찬성하는 상소를 올렸기 때문에 갑자사화 때 직산에 유배되어 교살되었다. 이로 인하여 그는 형 성중온(成仲溫)과 함께 먼 곳으로 유배되었다가 해도(海島)로 이배(移配)되었으며, 연산군이 아버지를 용서 해주지 않고 대죄를 그에게 씌우려고 하자 자살하였는데, 그의 나이 44세였다. 이에 중종은 그의 무고함을 불쌍히 여겨 홍문관 부제학에 추증하였다. 기개와 도량이 크고 넓었으며, 행동이 엄

하여 국사를 할 때에도 정도를 굽히지 않았다. 그의 묘는 하남시 감북동에 있다.

〈참고문헌〉『朝鮮王朝實錄』; 『國朝人物考』; 『成景溫墓碣』;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이씨(李氏) : ? ~ ?

공조정랑(工曹正郎) 성경온(成景溫)의 아내이다. 1504년(연산군 10)에 성경온이 멀리 귀양가 죽자 이씨는 빈장(殯葬)에 모든 예를 다하였고 너무 슬퍼하여 몸이 지나치게 마르게 되었다. 묘 옆에 여막(廬幕)을 짓고 살며 제전(祭奠)을 모두 손수 갖추었고, 상기(喪期)를 마쳤는데도 주식을 입에 대지 않고 평생을 흰 옷으로 지냈다. 중종초(中宗初)에 열녀문이 세워졌다.

〈참고문헌〉『重訂南漢誌』

임열(任說) : 1510년(중종 5) ~ 1591년(선조 24)

조선중기의 문신으로 본관은 풍천(豐川), 자는 군우(君遇), 호는 죽애(竹崖)이다. 교수 임장손(任長孫)의 증손이고, 성균관 생원 임제(任濟)의 손자이며, 남부참봉(南部參奉) 임명필(任明弼)의 아들, 첨정 윤훤(尹萱)의 외손, 이한(李漢)의 사위이다. 그는 문학과 덕망이 높은 원로로 네 명의 임금을 섬기면서 벼슬하였다. 1531년(중종 26) 생원·진사시에 합격하였고,



임열의 묘

1533년(중종 28) 별시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여 홍문관 정자가 되어 사관(史官)을 겸임하였다. 박사를 거쳐 1535년(중종 30) 11월 부수찬이 되었으며, 1536년(중종 31) 홍문관 수찬으로서 문과증시에 을과로 급제하였고, 다시 1538년(중종 33) 이조좌랑으로 영시(英試)에 차석으로 합격했다. 불과 10년 미만에 세번씩 대과에 급제한 것은 보기 드문 일이었다. 문학에 명망이 높은 까닭에 말미를 얻어 호당(湖堂)에 들어가 사가독서(賜暇讀書)를 하였다.

1539년(중종 34) 7월 홍문관 교리·시독관, 1542년(중종 37) 3월 부교리, 다음달 사헌부 집의를 거쳐 1543년(중종 38) 9월 홍문관 전한, 다음달 10월에는 홍문관 직제학이 되었다. 이듬해 정월 병조참지가 되었다가 8월 이조참의에 제수되었다. 같은달 다시 우부승지를 역임 하였다.

1548년(명종 3)에는 천추사로 명에 다녀왔고, 1549년(명종 4) 8월에는 강원도 관찰사로 제수되었다가, 다음해 7월 다시 예조참의에 제수되었다. 1551년(명종 6) 2월 병조참의가 되었고 1553년(명종 8) 6월에는 지제교에 임명되었다. 대사성·형조참의를 거쳐 1557년(명종 12) 10월 공조참판이 되었다. 1558년(명종 13) 9월 사간원 대사간(司諫院大司諫)으로 제수되었고, 11월 장례원 판결사(掌隸院判決事)로, 1560년(명종 15) 5월 병조참판, 동년 8월 한성부 우윤, 1562년(명종 17) 2월 한성부 좌윤, 같은해 8월 평안도 관찰사가 되었으나 이듬해 10월 사헌부에서 탐욕스럽다고 하여 탄핵하였다. 그러나 1564년(명종 19) 9월 다시 한성부 좌윤에 제수되었다. 1567년(명종 22) 5월에 한성부 판윤이 되었고, 1572년(선조 5) 12월 경상도 관찰사로 나갔다가 물품을 준비하지 못한 죄로 파직당하였다. 그러나 이듬해 특진관이 되었고, 한성부 판윤에 이르렀으나 계속해서 대간의 탄핵을 받았다. 지중추부사에 이른 후, 1591년(선조 24) 5월 죽었다.

그는 젊어서부터 문장으로 알려져 관직에 있으면서 근면 성실로 치적이 있었다. 60년 가까이 조정에 있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풍족했는데, 이로 인해 그는 신진세력으로부터 검소하지 못하다는 탄핵을 자주 받았다. 그러나 그는 사람을 알아보는데 뛰어나 관학 유생들의 추앙을 받았으며, 조정에서도 인재를 알아보는데 선견지명이 있는데다가 남에게 양보를 잘한다 하여 여러 차례 시험관이 되었다고 한다. 울곡(栗谷) 이이가 전형관으로 있을 때 늘 “임모(任某)는 무슨 연유로 오랫동안 등용하지 못하는가? 그가 바로 정경(正卿)을 보필할 적임자이지 않더냐?” 하고, 개탄하여 말했는데, 이 때문에 다시 주목을 받게 되었지만 공조판서의 탄핵으로 제수되지 못하였다. 문장에 조감(藻鑑)이 있고 고시(考試)에 남다른 안목이 있어서, 그가 발탁한 사람은 모두 명인(名人)이었거나 혹은 뒷날 유명해지기도 하였다.

2남 4녀를 두었는데, 첫째 아들은 승로(崇老)로 찰방(察訪)을 지냈고, 둘째 아들은 영로(榮老)로 문과 장원에 합격하고 또 중시에 뽑혀 관직이 종부시 정(正)에 이르렀다. 첫째 딸은 부사 남궁계(南宮悌)에게, 둘째 딸은 현감 이준(李浚)에게, 셋째 딸은 군수 신흥점(申鴻漸)에게, 넷째 딸은 종실인 흥령군(興寧君) 이수전(李秀荃)에게 시집갔다. 유집(遺集)으로 10여 권을 남겼으나, 전란 때 분실하여 알 수 없다. 묘소는 하남시 초일동(草一洞)에 있으며, 1753년(영조 29) 4월 문정(文靖)이라는 시호가 내려졌다.

〈참고문헌〉『朝鮮王朝實錄』; 『任說神道碑』; 『서율六百年史』;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유홍(兪泓) : 1524년(중종 19) ~ 1594년(선조 27)

조선중기의 문신으로 본관은 기계(杞溪), 자는 지숙(止叔), 호는 송당(松塘)이다. 첨지중추부사(僉知中樞府事) 유기창(兪起昌)의 증손, 예조판서 유여림(兪汝霖)의 손자, 증영의정 유관(兪綰)의 아들이다. 어머니는 의령 남씨(宜寧 南氏)로 증사복시정(贈司僕寺正) 남충세(南忠世)의 딸이다. 유홍은 11세에 부친을 여의었으나 힘써 공부하여 1549년(명종 4) 사마시에 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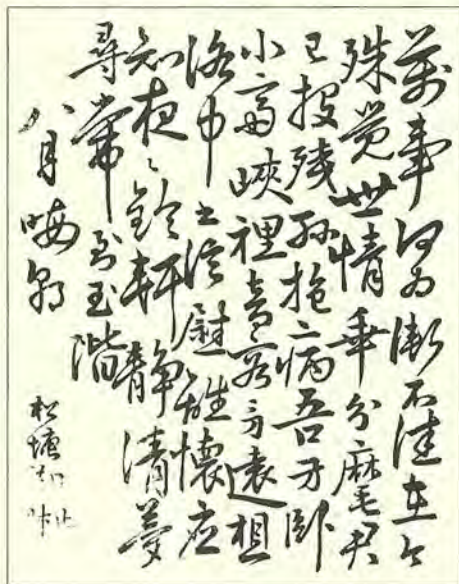
유홍의 묘

격하고 1553년(명종 8) 별시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여 승문원(承文院)에 배속되었다가, 예문관(藝文館)으로 들어가면서 벼슬하기 시작하였다. 1555년(명종 10) 기사관, 같은해 7월 예문관 검열을 역임하였고, 1557년(명종 12) 정월 강원도 어사가 되어 민심을 수습하였다. 같은해 4월 홍문관 부수찬이 되었는데, 남쪽지방이 왜란을 겪자 경상우도 평사(評事)로 천거되었다. 이듬해 4월 홍문관 수찬이 되었다가 6월 병조좌랑에 임명되었다. 1559년(명종 14) 정월 홍문관 부수찬, 3월 홍문관 수찬, 같은달 병조좌랑, 4월 사간원 정원, 6월 사헌부지평으로 자리를 옮겼다. 이때 이량(李樑)의 권력남용을 탄핵하였다가, 1559년(명종 14) 8월 병조정랑, 1560년(명종 15) 5월 이조좌랑, 1561년(명종 16) 5월 경기도사(京畿都事)로 좌천되었다. 1562년(명종 17) 4월 병조정랑, 1563년(명종 18) 5월 홍문관 교리, 6월 병조정랑을 지내고 12월 사헌부 장령, 1564년(명종 19) 정월 사헌부 집의를 역임하였다. 이때 유홍은 시사를 논하는 상소문을 올렸는데, 이 때문에 2월 사복시정(司僕寺正)으로 교체되었다. 그후 감시(監試)의 고시관으로서 이이(李珥)에게 장원을 주었다. 1565년(명종 20) 2월 홍문관 응교, 3월 의정부 사인이 되었고, 문정왕후의 상사(喪事)에 산릉도감으로 치산을 맡아 그 공로로 통정계(通政階)에 오르고, 조금 뒤 승정원 동부승지에 임명되었다가 우부승지로 올랐다. 부모의 봉양을 위해 춘천부사가 되었는데, 그곳에서 선정을 베풀어 선정비가 세워졌다.

호조참의가 되었다가 충청도·전라도의 관찰사에 임명되었고 가선대부(嘉善大夫)에 올라 1573년(선조 6) 7월 회령부사가 되었으며, 다음해 3월 개성유수(開城留守)가 되었다. 얼마 뒤 어머니의 상을 당하였고, 복을 벗은 1578년(선조 11) 11월 다시 경상도 관찰사에 임명되었으

나 병으로 나가지 않았다. 이어 한성부 우윤, 형조참판, 호조참판을 거쳐 함경도 관찰사로 나갔다. 1582년(선조 15) 6월 특별히 가자되어 자헌대부(資憲大夫) 한성부 판윤에 올랐고, 공조판서를 거쳐 예조판서 겸 지의금부사 도총부 도총관에 임명되었다. 그때 조정에서는 평안도의 일을 걱정하여 그를 특별히 평안도 관찰사로 삼았다. 그해 연말 지중추부사로 내직에 들어왔고 1587년(선조 20) 10월 사은사(謝恩使)로 차출되어 서장관(書狀官) 윤섬(尹暹)과 함께 명나라에 갔다. 다음해 5월 선조는 모화관(慕華館)에 나가 칙서를 맞이하고 유홍에게 자급을 올리고 전 30결, 노비 5구(口), 그리고 가사가정목(家舍價正木) 30동을 하사하였다. 이는 사은사 유홍이 황제로부터 망룡의를 하사 받았기 때문이었다.

유홍이 선조에 의해 특별히 가자(加資)된 것은 명나라에서 『대명회전(大明會典)』이 거의 완성되자, 선조는 명 조정에 청해서 얻어오게 하였다. 유홍은 명 조정의 예부(禮部)를 찾아가 자문(咨文)을 건네주고 『대명회전』을 청하였다. 그러나 예부에서는 아직 황제의 어람(御覽)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책을 먼저 주기가 어렵다고 하였다. 유홍 일행이 간곡히 청하니, 예부상서(禮部尙書) 심리(沈鯉)가 그 정성에 감동하여 제본(題本)을 갖춰 순부(順付)를 주청하였다. 이에 황제가 허락하여 부권(付卷)이 특별히 하사되고 칙서까지 내려졌다.



유홍 글씨

경성(京城)을 지켜 사직과 함께 죽을 것을 청하였다. 그러나 신립(申瑰)의 패전이 전해지고 선조가 평안도 방면으로 피난가자, 그는 선조를 수행하여 평양에 이르렀다. 이때 선조가 요동으로 건너가 명에 의지하려 했는데, 유홍은 선조의 요동행을 반대하였다. 같은해 5월 우의정에

1589년(선조 22) 좌찬성으로서 판의금부사를 겸임할 때, 정여립(鄭汝立) 사건이 일어났는데 이 사건에 연류되어 체포된 자가 매우 많았다. 유홍은 옥사에서 형을 함부로 쓰는 경우가 많으면서 은혜를 배풀 것을 청하여 풀려난 사람들이 많았다. 1590년(선조 23) 8월 광국공신(光國功臣)·평난공신(平難功臣)의 녹권(錄卷)을 받았다. 광국공신은 왕실의 종계(宗系)를 변무(辨誣)한 공이고, 평난공신은 역적을 토벌한 공이다. 유홍은 수충공성익모수기광국(輸忠貢誠翼謨修紀光國) 1등공신(一等功臣)과 협책평난(協策平難) 2등공신이 되었으며, 보국숭록대부(輔國崇祿大夫) 기성부원군(杞城府院君)에 봉해졌다. 이해 12월 이조판서를 역임하고 다음해 2월 교체되었다.

1592년(선조 25)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유홍은

임명된 그는 일본군이 점차 압박하자 왕비를 모시고 함경도로 피난하려다가 다시 행재소로 되돌아오기도 하였다. 한편, 명으로의 내부(內附)를 꾀하던 선조는 세자 광해군에게 종묘의 신주를 받들고 강계로 가 국가의 부흥(復興)을 도모하라 하고 조정의 신료들을 양조(兩朝)에 나누어 속하게 하였다. 이때 유홍은 종묘사직을 지키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면서 세자를 따르겠다고 청하였다. 같은해 7월 유홍은 세자를 모시고 강계(江界)로 피난하였다. 강계로 간 세자는 강계가 벽지이기 때문에 전국에 명령이 미칠 수 없다면서 영을 넘어 동북으로 들어가 사방에 호소하고 요해지(要害地)를 지키려고 하였다. 그러나 일본군이 이미 관북까지 진격하여 하는 수 없이 관서로 되돌아 왔다.

당시 여러 사람의 의견이 임시방편으로 묘사(墓社)의 신주(神主)를 땅에 묻어 두자고 하였다. 유홍은 이런 제안을 반대하며 세자를 모시고 이천에 이르렀다. 도착한 뒤, 각 도에 글을 띄워 일본군을 토벌할 것을 회유하자, 조정의 소재를 알지 못해 우왕좌왕하던 백성들과 의병들이 모두 광해군의 명령을 받들게 되었다. 유홍은 조정을 강화로 옮겨 충청도와 전라도의 군사를 모아 경성을 회복하고자 청했다. 그러나 조정의 공론은 불가하다고 하자, 그는 일선에 나가 장군들을 독려하겠다고 청했다. 이에 세자 광해군이 유홍을 도체찰사로 삼으니, 언관은 유홍이 늙었다면서 임용을 반대하였다.

그후 경성에 주둔한 일본군이 물러가자, 선조는 유홍에게 먼저 경성에 가서 정리할 것을 명하였다. 이에 유홍은 서울로 들어와 불탄 도성을 정리하고 전쟁에 고통받는 백성들을 구호하는데 힘을 기울였다. 선조가 경성에 돌아오자, 유홍은 왕비와 함께 해주(海州)에 머물면서 시사 10여조를 적은 차자를 올렸다. 이 글에는 남



유홍의 사당(충목사)

들이 말하기 꺼려하던 대목이 많았기 때문에 반대파의 공격을 받았다. 1594년(선조 27) 11월 우의정에서 다시 좌의정으로 승진하였으나, 유홍은 사직소를 올렸다. 그는 인품과 벼슬이 맞지 않아 여러 차례 물의를 일으켰고 나이가 많아 질병이 많으니 빨리 정승의 직책을 그만두도록 명하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그러나 선조는 대신이 사퇴할 때가 아니라면서 사직하지 말라고 하였다. 이러한 왕명에도 불구하고, 사헌부는 같은해 12월 14일 유홍의 체차를 청하였다. 사헌

부의 강력한 체차에도 불구하고, 선조는 그에 대한 신임을 두텁게 가졌지만 결국 유홍은 체직 되었고 곧이어 죽었다.

전 부인 이씨(李氏)는 교리 이준인(李遵仁)의 딸로 을축년에 44세의 나이로 일찍 죽었는데 뒤에 정경부인이 되었다. 후 부인 김씨(金氏)는 서령(署令) 김광열(金光烈)의 딸이다. 이씨(李氏) 부인은 3남 1녀를 두었는데, 첫째 아들 유대술(俞大述)은 옥천군수, 둘째 아들 유대건(俞大建)은 대사간, 셋째 아들 유대진(俞大進)은 공조참의를 역임하였다. 딸은 현감 김탁(金琢)에게 출가하였다. 한편 김씨(金氏) 부인은 1남 1녀를 두었는데, 유대일(俞大逸)은 삼척부사를 역임하였고, 딸은 모관(某官) 김집(金集)에게 출가하였다. 그는 남효온(南孝溫)의 『추강집(秋江集)』을 초간하였으며, 유저로는 『송당집(松塘集)』 4권이 있다. 시호는 충목(忠穆)이다. 묘와 신도비가 하남시 하산곡동에 있는데, 1813년(순조 13)에 세워진 신도비는 이조판서 장유(張維)가 짓고 자손인 유한지(俞漢芝)가 쓰고 아울러 전액하였다.

〈참고문헌〉 『朝鮮王朝實錄』; 『俞泓神道碑』; 『京畿人物誌』; 『서울六百年史』

이억기(李億祺) : 1561년(명종 16) ~ 1597년(선조 30)

조선중기의 무신으로 본관은 전주(全州), 자는 경수(景受), 호는 송봉(松峰)이다. 아버지는 필주군(泌洲君) 이연손(李連孫)이고 어머니는 교리(校理) 박명건(朴命堅)의 딸이다. 삼형제 가운데 셋째로, 첫째 형 이억복(李億福)은 12살 위로 무과에 급제하여 경원부사(慶源府使)를 지냈고, 둘째 형 이억희(李億禧)는 벼슬을 하지 않고 초야에 묻혀 살았다. 어려서부터 무예에 뛰어났으며, 17세에 사복시 내승(司僕寺內乘)이 되었다. 이후 무과에 급제하여 여러 벼슬을 지냈다. 경흥부사(慶興府使)·온성부사(穩城府使) 등 국방의 요직에서 전공을 세웠는데, 온성부사 시절에는 여러 여진인을 사로잡아 큰 명성을 얻었다. 특히, 1587년(선조 20) 첫째 형 이억복이 경원부사로 있으면서 여진인의 침입으로 전사하자, 적을 추격하여 시신을 거두기도 하였다.

1591년(선조 24) 순천부사를 거쳐 임진왜란 때에는 전라우수사로 이순신·원균 등과 합세하여 당항포(唐項浦)·한산도(閑山島)·안골포(安骨浦)·부산포(釜山浦) 등지에서 적선을 대파하고 제해권을 장악하는데 공을 세웠다. 1596년(선조 29)에는 휘하의 전선을 이끌고 전라좌·우도 사이를 왕래하면서 진도와 제주도의 전투 준비를 성원하였다. 아울러 한산도의 삼도수군통제사 이순신 본영을 응원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도 하였다. 이순신이 무고로 투옥되자 이항복·김명원 등과 함께 그의 무죄를 주장하였다. 1597년(선조 30) 정유재란 때 통제사 원균의 휘하에서 부산의 왜적을 공격하다가 칠천량해전(漆川梁海戰)에서 패하여 원균·최호 등과

함께 전사하였다. 임진왜란 후 공신책정 당시 선무공신(宣武功臣) 2등으로 병조판서에 추증되었고 완흥군(完興君)으로 추봉되었다. 1602년(선조 35) 여수 충민사(忠愍祠)에 이순신과 함께 배향되었으며, 1616년(광해군 8) 해남의 충무사(忠武祠)에도 배향되었다. 시호는 의민(毅愍)이다. 사후에 시신을 거두지 못하여 경기도 양주 아차산



이억기의 신도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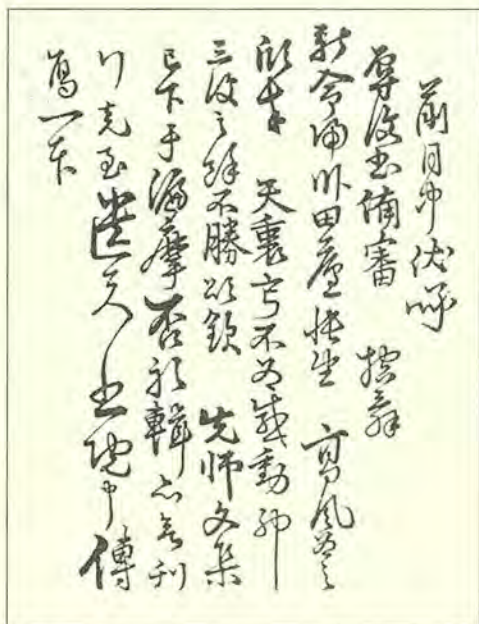
(현재의 구리시 아천동) 밑에 의관으로 장사지냈다. 최근 하남시 배알미동에 후손들이 세운 신도비가 있다.

〈참고문헌〉『崇禎大夫完興君神道碑』; 『朝鮮王朝實錄』;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九里市誌』.

임숙영(任叔英) : 1576년(선조 9) ~ 1623년(인조 1)

조선중기의 문신이다. 본관은 풍천(豐川), 원래 이름은 상(湘), 자는 무숙(茂淑), 호는 소암(疎庵)이다. 한성부 판윤(判尹) 임열(任說)의 증손, 임승로(任崇老)의 손, 정유일(鄭惟一)의 외손, 감역관(監役官) 임기(任奇)의 아들, 승지(承旨) 이상홍(李尙弘)·윤정(尹挺)의 사위이다. 천성이 곧고 지조가 개결하였으며 총명하여 10세에 시를 지었다 한다. 기억력이 뛰어나 한번 읽은 책은 잊지 않았고, 생원·진사시의 방목을 한번 훑어보고 외웠다 한다. 국조의 전고와 씨족의 원류 및 산천·도로·민요·조세 등을 모두 잘 알았으며, 천하의 지리도 그 지역을 다녀본 것처럼 알았다. 그는 4·6문을 잘 지었는데 그가 지은 통군정서(統軍亭序)는 중국 학자가 천년 이래의 절조(絶調)가 다시 해외에서 나왔다고 할 정도로 칭찬받았다. 이규보의 삼백운을 흠모한 나머지 읍시 600운을 지었는데, 사람들이 모두 탄복하였다고 한다.

임진왜란(壬辰倭亂) 때 부모를 잃고 고아가 되어 이곳 저곳을 돌아다녔지만, 학문하는데 게으름이 없었다. 1601년(선조 34)에 진사가 되고, 성균관에서 10년 동안 수학하였다. 논의가 과감하였으며 전후 유소(儒疏)가 그의 손에서 나왔다. 1611년(광해군 3) 별시문과의 대책(對



임숙영의 글씨

策)에서 주어진 이외의 제목으로 척족의 횡포와 이이첨(李爾瞻)이 왕의 환심을 살 목적으로 존호를 올리려는 것을 심하게 비난하였다. 이를 시관 심희수(沈喜壽)가 제일로 발탁하려다가 동료들의 만류로 병과로 급제시켰는데, 광해군이 대책문을 보고 크게 노하여 이름을 삭제하도록 하였다. 이 일로 인하여 몇 달 간 삼사의 간쟁과 이덕형·이항복(李恒福) 등의 주장으로 무마되어 다시 급제되었다. 그러나 한탄의 시를 지었던 권필은 매우 혹독한 고문으로 죽었고, 그를 뽑은 심희수는 벼슬을 그만두었다. 처음 승문원 정자(正字)로 관직에 올라 박사가 되었는데, 마침 봉산군(鳳山君)의 무옥(誣獄)사건이 일어나 국청의 가주서에 추천되자 병을 핑계로 출사하지 않았다. 1612년(광해군 4) 봄 승정원에 들어가 주서(注書)를 제수받았다.

1613년(광해군 5) 영창대군(永昌大君)을 무고하는 계축옥사(癸丑獄事) 때 모든 관료들이 영창대군을 처치하라고 하자 그는 다리가 아프다는 핑계로 정청(庭請)에 참가하지 않았다.

당시 집권층에 대한 거침없는 극렬한 언사로 인해, 이이첨 세력은 그를 삭탈관직하고 외지로 쫓아냈다. 그는 광주(廣州)의 용진(龍津)에 은거하면서 재명(才名)이 더욱 떨쳐졌다. 오두막집에서 죽도 너럭치 못한 생활을 하였지만 남에게서 지푸라기 하나도 취하지 않았다. 마침 대궐의 영건(營建)으로 재정이 크게 모자라 속방과(贖放科)를 시행하자, 친구 한 사람이 임숙영을 구출하려고 모금하여 속(贖)을 바치고자 했다. 그러나 임숙영은 이를 허락하지 않았고 오히려 편지를 써서 심하게 나무랐다. 1623년(인조 1) 인조반정으로 광해군이 축출되자 다시 관계에 나아가 예문관 검열(檢閱)로서 사관을 겸직하게 되었다. 이후 홍문관 정자·박사(博士)·부수찬(副修撰)·경연검토폰(經筵檢討官) 등을 역임하고, 지제교 겸 춘추관 기주관(知製敎兼春秋館記注官)이 되었다. 경연에 입시해서는 건의하고 논하는 바가 많아 왕이 즐겁게 받아들였다고 한다. 호당(湖堂)에 선발되어 사가독서(賜暇讀書)를 하였고, 이후 사헌부 지평(持平)으로 승진하였다. 임숙영은 문장이 유달리 뛰어나고 경사(經史)에 밝았으며 고문(古文)에 힘썼고, 중국 육조(六朝)의 사육문(四六文)에 뛰어났으며, 저서에는 『소암집(疏菴集)』이 있다. 묘는 하남시 초일동에 위치하고 있다. 구암서원(龜岩書院)에 둔촌(遁村) 이집(李集)과 함께 제향되었다.

〈참고문헌〉『朝鮮王朝實錄』;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重訂南漢誌』; 『京畿人物誌』

박자흥(朴自興) : 1581년(선조 14) ~ 1623년(광해군 15)

조선중기의 문신으로 본관은 밀양, 원래 이름은 흥립(興立), 자는 인길(仁吉)이다. 병조판서 박계현(朴啓賢)의 증손이고, 지돈영부사 박안세(朴安世)의 손자이며, 아버지는 영의정 박승종(朴承宗)이다. 어머니는 청풍 김씨로 1581년(선조 14) 서울 낙산에서 태어났다. 1601년(선조 34) 감시(監試)에서 진사에 급제하였고, 1610년(광해군 2) 별시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였



박자흥의 묘

다. 그러나 이때 고시관이 아버지 박승종과 장인 이이첨(李爾瞻)이었기 때문에 물의를 빚었다. 1611년(광해군 3) 5월 세자시강원 설서가 되었고 7월에 딸이 세자빈으로 책정되었다. 이 때문에 그는 벼슬이 정2품 전직으로 올랐다. 1612년(광해군 4) 사간원 정언에 임명되었고, 세자시강원 사서를 겸임하였다. 이조정랑을 거쳐 1616년(광해군 8) 승정원 동부승지가 되었으며, 그 뒤 형조참의·전라도관찰사·홍문관 부제학·형조참판을 지냈다. 1621년(광해군 13) 성균관 대사성이 되었고, 1623년(광해군 15) 경기도 관찰사를 재직하고 있을 때 인조반정이 일어났다. 그는 아버지 박승종과 함께 반정군에 대항하여 군사를 일으키고자 하였으나 뜻대로 되지 않자 목을 매어 자살하였다. 박자흥은 이이첨의 사위로서 서로 반목하였지만, 인목대비 폐비론의 과정에서 형조참판으로 폐비절목을 정하는 일에 앞장섰다. 딸이 세자빈이 된 뒤, 권세를 얻어 민전을 탈취하고 사치하여 원망을 사기도 했다. 그의 묘는 감이동 정림에 있다.

〈참고문헌〉『朝鮮王朝實錄』; 『燃藜室記述』

박경응(朴慶應) : 1584년(선조 17) ~ 1663년(현종 4)

조선중기의 문신으로 본관은 밀양(密陽), 호는 일옹(一翁)이며, 통훈대부 전현감(前縣監) 박신(朴信)의 아들이다. 건원능 참봉(健元陵參奉)으로 제수받고 1636년(인조 14) 병자호란 때 금오랑으로 왕을 모시고 남한산성으로 갔다. 1646년(인조 24) 그의 아들 가운데 첫째 박창문



박경응의 묘

운데 3명이 문과에 급제하였다. 박경응은 일찍이 학문이 뛰어나 과거장에서 이름을 떨쳤음은 물론 『중용(中庸)』과 『대학(大學)』을 외우고 글읽기를 좋아하였다. 특히, 박경응은 자신의 도와 마음 자세를 다듬는 것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의 유고(遺稿)로는 『일옹집(一翁集)』만이 전해지고 있으며, 묘는 하남시 풍산동에 있다.

〈참고문헌〉 『朴慶應墓碣』; 『廣州郡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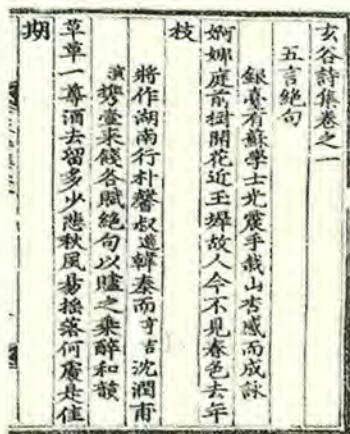
(朴昌文) · 셋째 박진문(朴振文) · 다섯째 박이문(朴以文)이 모두 생원시에 합격하는 경사를 누렸다. 당시 그의 벼슬은 안산(安山)군수였다. 이어 박창문은 1651년(효종 2) 별시문과에 급제하였고, 박이문은 1660년(현종 1) 식년문과에 급제하였다. 한편, 넷째 아들 박흥문(朴興文)은 1654년(효종 5) 생원이 된 후, 1669년(현종 10) 식년문과에 급제하는 등 5명의 아들 가

정백창(鄭百昌) : 1588년(선조 21) ~ 1635년(인조 13)

조선중기의 문신으로 본관은 진주(晉州), 자는 덕여(德餘), 호는 현곡(玄谷) · 곡구(谷口) · 대탄자(大灘子) · 천용(天容)이며, 공청도관찰사 정효성(鄭孝成)의 아들이다. 1606년(선조 39) 생원 · 진사가 되고, 1611년(광해군 3) 별시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여 이듬해 주서를 거쳐 검열 · 봉교 · 대교 등을 역임하였다. 1613년 경망하고 아침을 잘한다는 이유로 탄핵받아 파직당하였으나, 곧 대교로 복직하여 오랫동안 사관(史官)으로 있었다. 사필(史筆)이 엄정하였으므로 이이첨 세력의 주목을 받았다. 1613년(광해군 5) 광해군이 사관에게 신덕왕후(神德王后)의 옛 일을 조사시킴으로써 모후에 대한 사건이 시작되었다. 이이첨(李爾瞻)이 사국(史局)을 위협하여 이방석(李芳碩)의 처치전말(處置顛末)을 자세히 기록하게 하여 영창대군(永昌大君)을 관련시키려 하였으나, 그는 이를 거절하였다. 폐모론이 더욱 심해지자 이이첨 세력에게 몰려 다시 파직되어 경기도 양근(楊根)에 들어가 임숙영(任叔英) · 이식(李植) 등과 더불어 은둔생활을 했는데, 세인들은 이들을 삼사(三士)라 불렀다. 1623년(광해군 15) 인조반정으로 부수찬에

등용되어 헌납·교리·수찬을 거쳐, 1625년(인조 3) 보덕·사간·사인 등을 역임하였다. 같은 해 사가독서(賜暇讀書)한 뒤, 이듬 해 집의로 문과증시 을과로 급제하였으나 국구(國舅)인 장인 한준겸(韓浚謙)의 덕택이라는 비난을 받아 관직에 취임하지 않았다. 그러다가 1627년(인조 5) 동부승지, 다음 해 예조참의·대사간을 지낸 뒤 1631년(인조 9) 이조참판이 되었다. 같은 해 이행원(李行遠)의 죄를 태만하게 다스린 죄로 다시 파직당하였다가 1633년(인조 11) 대사간에 복직되었으나, 척신(戚臣)이라는 논란으로 취임하지 않았다. 좌부승지·부제학을 거쳐 도승지를 지냈고, 1635년(인조 13) 경기도관찰사로 재직하다 병으로 죽었다. 저서로는 『현곡집(玄谷集)』 7권 3책이 있으며, 묘는 하남시 초이동에 있다.

〈참고문헌〉 『朝鮮王朝實錄』;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정백창의 『현곡집』

이기축(李起築) : 1589년(선조 22) ~ 1645년(인조 23)

조선중기의 무신으로 본관은 전주(全州), 자는 희열(希說)이다. 효령대군(孝寧大君) 이보(李補)의 8대손이고, 수군절도사 완원군(完原君) 이경유(李慶裕)의 아들이다. 어머니는 옥구현감 고언명(高彦命)의 딸이다. 어릴 때부터 비범하여 궁마(弓馬)로 단련한 뒤 1620년(광해군 12) 무과에 급제하였다. 당시 종형 완풍군(完豐君) 이서(李曙)가 장단부사(長湍府使)로 있으면서 인목대비(仁穆大妃)의 유폐(幽閉)에 분개하여 반정(反正)을 모의하고 있었다. 그는 종형과 지기(志氣)가 서로 맞아 능양군(綾陽君)이 있는 곳과 장단 사이를 매일 오가면서 거사(舉事)의 연락을 맡았을 뿐 아니라, 반정 당일 장단군이 입성할 때 선봉장으로 들어



이기축의 사당

府使)로 있으면서 인목대비(仁穆大妃)의 유폐(幽閉)에 분개하여 반정(反正)을 모의하고 있었다. 그는 종형과 지기(志氣)가 서로 맞아 능양군(綾陽君)이 있는 곳과 장단 사이를 매일 오가면서 거사(舉事)의 연락을 맡았을 뿐 아니라, 반정 당일 장단군이 입성할 때 선봉장으로 들어

왔다. 그 공으로 익사공신(翼社功臣) 3등에 책록되고, 통정(通政)으로 승계하여 금군장(禁軍將)이 되었고 이어 수별장(首別將)이 되었다. 1628년(인조 6) 9월 정사공신(靖社功臣) 가선대부로 승진하였다. 이어 다음해에는 위원군수로 나갔다가 읍민이 채삼(採蔘)한 사건으로 파직되었고, 곧 이어 호위별장(扈衛別將)·금군장(禁軍將)·오위장(五衛將)·군문천총별장(軍門千總別將) 등을 역임한 뒤, 1635년(인조 13)에는 삭주(朔州)부사로 승진하였으나 술에 취한 것 때문에 파직되었다. 1636년(인조 14) 병자호란 당시 금군장으로서 남한산성(南漢山城)으로 왕을 호종하였고, 어영별장(御營別將)으로서 남한산성의 남문을 지켰다. 이 공으로 가선(嘉善)으로 승계하고 완계군(完溪君)으로 봉해졌다. 조선과 청의 화약이 맺어진 뒤, 그는 세자를 모시고 심양(瀋陽)에 갔다가 3년 뒤 병으로 돌아왔다. 당시 변방이 날로 위태롭고 아버지가 연로하였으므로 자원하여 삼척첨사로 갔고, 1642년(인조 20)에는 장단부사가 되었으나 어머니의 병 때문에 사양하였다. 인품이 기개가 있고 의협심이 강하며 비범하였다. 한성부 판윤에 추증되었다. 시호는 양의(襄毅)이며, 그의 사당이 하남시 상사창동에 있다.

〈참고문헌〉『朝鮮王朝實錄』;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허목(許穆) : 1595(선조 28) ~ 1682(숙종 8)

조선중기의 문신으로 본관은 양천(陽川), 자는 문보(文甫)·화보(和甫), 호는 미수(眉叟), 시호는 문정(文正)이다. 1615년(광해군 7) 정언옹(鄭彦翁)에게 글을 배우고, 1617년(광해군 9) 아버지 허교(許喬)가 거창현감에 임명되자 아버지를 따라가서 문위(文緯 : 1555~1632)에게 가르침을 받고, 문위의 소개로 정구(鄭述 : 1543~1620)에게 수학하였다. 1624년(인조 2) 광주의 우천(牛川)에 살면서 자봉산(紫峯山 : 지금의 하남시 검단산)에 들어가 독서와 글씨에 전념하여 그의 독특한 전서(篆書)를 완성하였다. 1626년(인조 4) 인조의 생모 계운궁 구씨(啓運宮具氏)의 복상(服喪)문제와 관련되어 박지계(朴知誠)가 원종의 추숭론(追崇論)을 제창하자, 그는 동학의 재임(齎任)으로서 임금의 뜻에 영합하여 예를 혼란시킨다고 유벌(儒罰 : 유생들이 정한 벌칙으로 부황(付黃)이나 삭적(削籍) 등의 벌)을 받았다. 이에 인조는 그에게 정거(停擧 : 일정기간 과거를 보지 못하게 하는 벌)를 명하였는데, 뒤에 벌이 풀렸으나 과거를 보지 않고 검단산에 은거하여 학문에만 전념하였다.

1636년(인조 14) 병자호란으로 영동(嶺東)으로 피난하였다가 이듬해 강릉·원주를 거쳐 상주에 이르렀으며, 1638년(인조 16) 의령의 모의촌(慕義村)에서 살게 되었다. 1641년(인조 19) 다시 사천으로 옮겼으며, 그뒤 창원·칠원 등지로 전전하다가 1646년(인조 25) 마침내 경

기도 연천의 고향으로 돌아왔다. 다음해 어머니 이씨의 상을 당하자 상중에 『경례유찬(經禮類纂)』을 편찬하기 시작하여 3년 뒤에는 상례편(喪禮篇)을 완성하였다. 1650년(효종 1) 정릉참봉에 제수되었으나 1개월만에 그만두었다. 이듬해 내시교관이 된 뒤 조지서 별좌(造紙署別坐)·공조좌랑을 거쳐 용궁현감에 임명되었으나 부임하지 않았다. 1657년(효종 8) 공조정랑에 이어 지평에 임명되었으나, 효종을 만나 상소를 올리고는 임금의 덕과 정치의 폐단에 대해 말하고는 사임을 청하였다. 이에 사복시 주부로 옮겼으나 사직하고 고향에 돌아왔다. 1659년(효종 10) 장령이 되어 임금의 덕을 논하는 상소를 올렸으며, 또한 당시 송시열(宋時烈)·송준길(宋浚吉) 등이 주도하는 북벌정책에 신중할 것을



허목의 영정

효종에게 간하는 옥계명(玉几銘)을 지어 바쳤다. 같은해 효종이 죽자, 상례를 논하는 상소를 올리고 장악원정(掌樂院正)에 임명되었으나 나가지 않았다. 1660년(현종 1) 경연(經筵)에 출입하였고, 다시 장령이 되어 효종에 대한 조대비(趙大妃 : 인조의 계비)의 복상기간이 잘못되었으므로 바로잡아야 한다고 상소하여 정계에 큰 파문을 던졌는데, 이를 기해복제라 한다. 이 때문에 정계가 소란스러워지자, 현종은 그를 삼척부사로 임명하였다. 여기서 그는 향약을 만들어 교화에 힘쓰고 『척주지(陟州誌)』를 편찬하는 한편, 『정체전중설(正體傳重說)』을 지었다. 그 후 숙종이 즉위하면서 그의 주장에 받아들여지자, 서인은 실각하고 남인의 집권과 더불어 대사헌에 임명되었으나 사직소를 올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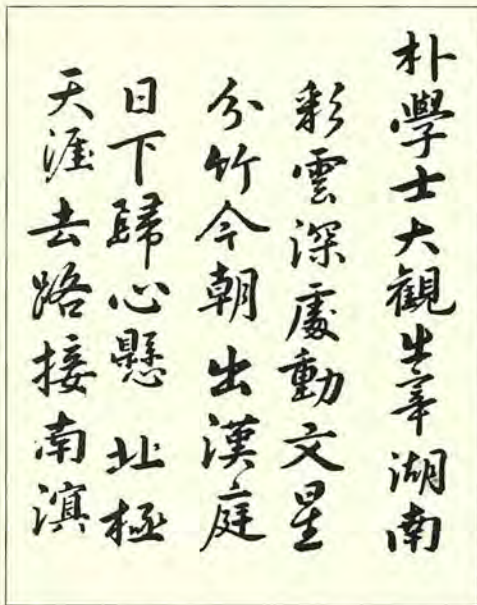
1675년(숙종 1) 이조참판·비국당상(備局堂上)·귀후서 제조(歸厚署提調)를 거쳐 자헌대부(資憲大夫)에 승진되고, 의정부 우참찬 겸 성균관 제조로 특진되었다. 이어 이조참판을 거쳐 우의정에 승진되어 과거를 거치지 않고 유일하게 삼공(三公)에 오른 인물이 되었다. 이해 덕원(德源)에 유배중이던 송시열에 대한 처벌을 두고 영의정 허적(許積)의 의견에 맞서 가혹하게 처벌할 것을 주장하였다. 이로 인해 남인은 송시열의 처벌에 온건론을 주장한 탁남(濁南)과 강경론을 주장한 청남(淸南)으로 나뉘어졌고 허목을 청남의 영수가 되었다. 그는 지덕사(至德祠)의 창건을 건의하고, 체부(體府)·오가작통법(五家作統法)·지패법(紙牌法)·축성(築城) 등을 반대했다. 사임을 요청해도 번번히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특명으로 기로소 당상(耆老所堂上)이 되었는데 음사(蔭仕)로서는 특별한 예였다. 1677년(숙종 3년) 북벌론과 호포법(戶布法)을

주장하는 윤휴(尹鑄)에 맞서 그 폐단을 논하고 반대하였다. 이듬해 사직하고 고향으로 돌아와 저술과 후진양성에 전념하였다.

그는 그림·글씨·문장에 모두 잘했는데, 특히 전서에 뛰어나 동방 제1인자라는 찬사를 받았다. 현재까지 남아있는 그의 대표적인 글씨로는 삼척의 척주동해비(陟州東海碑), 시흥의 영상이원익비(領相李元翼碑), 파주의 이성중표문(李誠中表文)이 있고, 그림으로 묵죽도(墨竹圖)가 전한다. 저서로는 『동사(東事)』·『방국왕조례(邦國王朝禮)』·『경설(經說)』·『경례유찬』·『미수기언(眉叟記言)』이 있다.

〈참고문헌〉『朝鮮王朝實錄』·『東國輿地志』·『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민응협(閔應協) : 1597년(선조 30) ~ 1663년(현종 4)



민응협의 글씨

조선중기의 문신으로 본관은 여흥(驪興)이며 자는 인보(寅甫)이고 호는 명고(鳴皋)이다. 봉정대부 민영(閔諤)의 아들이며, 외가는 목은 이색의 후예로서, 어머니는 부제학을 역임한 이균(李均)의 손녀이자, 교관(敎官) 이습(李習)의 딸이다. 5세에 처음으로 글을 썼으며 쉽게 암송하였다. 광해군 때 아버지가 공부하기를 명하여 과거에 응시, 1617년(광해군 9) 사마시에 합격하여 방목에 올랐으나 병으로 나가지 못하였다. 이어 1623년(인조 1) 비로소 성균관의 국자생으로 들어갔다.

1630년(인조 8) 동궁의 세마로 봉해졌으나 음직에 의한 선발이었고, 여러 차례 과거에 응시하였으나 실패하다가 1633년(인조 11) 식년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였고, 이듬해 10월 사헌부 지평을 제수받았으나 장릉(章陵)의 추숭(追崇)에 대한 의

논을 엄정하게 하여 북청 판관(北靑判官)으로 임명되었다. 이후 1635년(인조 13) 6월 다시 홍문관에 들어갔다가 다음해에는 지평에 이어 전적(典籍)이 되었다. 같은해 겨울에 청군이 갑자기 들이닥쳐 임금의 어가(御駕)가 남한산성에 이르렀는데 민응협이 어사(御史)로서 전투를 독려하였다. 1637년(인조 15) 정월 서울이 무너지고 소현세자(昭顯世子)와 봉림대군(鳳林大

君)·인평대군(麟坪大君)이 청군에 포로가 되었을 때, 양식을 삼태기에 담아 정성을 다하였으며, 세자와 두 대군이 심양(瀋陽)으로 인질로 가게 되자 문학(文學)으로 동행하였다. 1638년(인조 16) 11월 세자가 심양에 있으면서 민응협을 보내어 정조문안례(正朝問安禮)를 거행하였다.

이어 1639년(인조 17) 3월 사간, 4월 수찬, 5월 장령, 6월 수찬, 7월 장령, 10월 부교리, 12월 사간, 1640년(인조 18) 정월 부교리, 4월 교리, 5월 부응교, 1642년(인조 20) 10월 교리 등의 관직을 역임하고, 1644년(인조 22)에는 광주(光州)목사가 되어 다시 외직으로 나갔다가 다음해 4월 집의가 되었다. 같은해 5월 접위관(接慰官)으로 동래에 파견되어 왜신접대를 수행하였다. 1645년(인조 23) 윤6월 사간, 8월 집의, 9월 교리, 10월 사간, 12월 교리, 1646년(인조 24) 정월 사간, 부응교, 8월 사간을 거쳐 같은달 동래부사가 되어 형률 집행에 매우 근엄하고 모든 일을 잘 처리하여 크게 명성을 얻었다. 이때 왜관(倭館)의 담이 헐리자, 일본인들이 이를 이용해 왜관을 넓혀 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였으나 단호히 거절하여 그들의 기세를 꺾었다.

1648년(인조 26) 10월, 그는 다대포첨사(多大浦僉使) 조광원(趙光瑗)이 일본인에게 봉변을 당했다는 이유로 동래부사에서 파직되었다. 당시 다대포첨사 조광원은 왜관 짓는 일을 감독하였는데 조광원이 말을 타고 문에 이르는 것을 본 일본인이 자기들을 앞잡아 본다고 여겨 조광원을 때렸던 것이다. 이 일을 들은 인조는 크게 노하여 훈도(訓導)와 별차(別差)를 잡아들



민응협의 묘

이고 나라를 욕되게 한 조광원의 죄를 다스리고 동래부사 민응협(民應協)의 직위를 파면하라고 명하였던 것이다. 당시 동부승지 이시만(李時萬)은 “민응협이 자신을 다스리는 것이 깨끗하고 일을 조처하는 것이 강명한 사람이니 쉽게 교체해서는 안됩니다”라고 그의 파면을 중지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인조는 “민응협이 전부터 일을 조처하는 것이 허술하고 졸렬하여 담장을 물려 달라는 청을 엄히 배척하지 못했으니, 왜노(倭奴)가 행패를 부린 것이 필시 이 사람에게서 연유되었을 것이”라면서 그의 요청을 거절하였다. 그러나 다음해 2월 다시 동래부사가 되었다.

1650년(효종 1) 8월 승지를 거쳐 경상도관찰사가 되자 사헌부에서 탄핵을 하였으나 왕이 따

르지 않았다. 1651년(효종 2) 예조참의·대사성·대사간을 거쳐 다음해 10월 다시 대사간, 1653년(효종 4) 10월 이조참의, 1654년(효종 5) 2월 대사간, 다음해 6월 도승지, 8월 함경도 관찰사가 되었다. 1657년(효종 8) 7월 강화유수, 1658년(효종 9) 5월 대사헌을 거쳤으나 같은해 11월 강화유수 시절 강도(江都)에 있으면서 군향미를 마음대로 썼기 때문에 탄핵받아 연안(延安)으로 유배당하였다. 현종대에 들어서 그는 다시 1660년(현종 1) 12월 대사성으로, 다음해 2월 병조참판, 3월 대사헌이 되었다가 8월 패초(牌招)하였는데 나가지 않았다는 이유로 교체되었다. 그러나 11월 다시 대사헌에 제수되었으나 다음달 영릉을 봉심할 때, 병을 핑계로 나오지 않아 왕이 크게 화를 내 옥리(獄吏)에게 회부한 지 여러 날만에 파직되었다. 1663년(현종 4) 2월 다시 대사헌에 임용되었으나 상소하여 교체되었다.

이해 11월 죽전동(竹前洞) 집에서 죽었는데 이때 나이 67세였다. 3남 3녀를 두었는데, 첫째 딸은 용천부사(龍川府使) 한유(韓休)에게 시집갔고, 첫째 아들 민희(閔熙)는 좌의정에, 둘째 아들 민점(閔點)은 좌찬성 겸 대제학(左贊成兼大提學)에 이르렀으며, 둘째 딸은 판결사(判決事) 이후(李煦)에게, 셋째 딸은 학사(學士) 김대헌(金大猷)에게 시집갔다. 막내아들 민암은 우의정에 이르렀다. 묘는 하남시 춘궁동에 있으며 막내아들이 찬한 신도비와 함께 그의 묘역에 있다.

〈참고문헌〉『朝鮮王朝實錄』; 『閔應協神道碑』;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능창대군(綾昌大君) : 1599년(선조 32) ~ 1615년(광해군 7)



능창대군의 묘

조선중기의 종실로 이름은 전(佺)이며, 선조의 손자이다. 원종(元宗: 定遠君)의 셋째 아들로 인헌왕후 구씨(仁獻王后 具氏)의 소생이며 인조의 동생으로 인조가 즉위한 뒤 능창대군(綾昌大君)에 봉해졌다. 그는 어려서부터 재주와 지혜가 뛰어나고 말타기와 활쏘기에 능하였다. 1615년(광해군 7) 8월 광해군은 능창군을 인정문(仁政門)에서 직접 국문하고 옥에 가두

었다. 능창군이 신경희(申景禧)의 추대를 받아 왕이 되고자 한다는 죄수 소명국(蘇鳴國)의 무고 때문이었다. 즉, 윤길과 신경희가 한 동아리가 되어서 모든 흉모와 은밀한 계책을 몰래 서로 의논하였는데, 임금의 관상과 명운·국운의 길흉을 사사로이 멋대로 점을 치고는 능창군이 40년간 치평할 임금이라 하였다는 것이다. 결국 이 사건의 주모자 신경희는 죽음을 당하고 능창군을 비롯한 양시우(楊時遇)·김정익(金廷益)·소문진(蘇文震)·김이강(金以剛)·오충갑(吳忠甲)은 귀양을 가게 되었는데 이 사건을 신경희의 옥사라고 한다. 강화도 교동(喬桐)에 위리안치(圍籬安置)된 능창군에게 토인(土人) 고봉생(高封生)으로 하여금 위리 안에 같이 거주하게 하고 밖에서 석회수(石灰水)로 밥을 지어 들여보냈다. 그러자 고봉생은 날마다 제 밥을 덜어서 주었다고 한다. 같은해 11월 능창군의 병이 깊었을 때, 광해군은 의원을 급히 보내 치료하게 할 뿐 아니라 별장(別將)에게 명령하여 충분히 치료하게 하고 그와 동시에 만일 신중히 하지 못한 일이 있으면 잡아다가 용서하지 않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능창군은 괴로움을 견디지 못하고 글을 써서 부모와 결별을 고하고 스스로 목을 메어 결국 11월 17일 위리안치된 곳에서 죽었다. 그런데 수장은 거짓으로 병이 들었다고 보고하고 곧이어 죽었다고 알렸다. 왕이 겉으로는 놀라고 괴이한 표정을 지었지만 실제로는 넋지시 유도한 것이라 한다. 어쨌든 능창군이 죽자, 광해군은 음식과 구료(救療)하는 등의 일에 대해 전교가 없었다는 이유로 구시백과 별장이응성(李應星), 교동현감(喬桐縣監) 황정열(黃廷說)을 모두 붙잡아다 엄히 국문한 다음 죄를 정하였고, 경기도관찰사 노직(盧稷) 역시 살리지 못하였다고 추고하였다. 능창군은 호탕하고 풍도(風度)가 있었으며 궁마술(弓馬術)이 남달리 뛰어나고 외모도 웅장하였다. 시호는 효민(孝愍)이고, 1632년(인조 10)에 대군으로 추봉되었다. 현재의 하남시 준궁동에 장사지냈으나 1999년 봄에 묘를 다른 곳으로 옮겼다.

〈참고문헌〉 『朝鮮王朝實錄』;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廣州郡誌』

이씨(李氏) : 1565년(명종 20) ~ 1636년(인조 14)

한산 이씨(韓山李氏)로 참의(參議) 허직(許稷)의 아내이다. 『소학(小學)』·『논어(論語)』·『맹자(孟子)』에 능통했으며, 평소에 의젓하게 열장부(烈丈夫)의 풍도(風度)가 있었다. 병자호란 때 남편 허직(許稷)이 관리로 남한산성에 들어가자 부인 혼자 자녀를 데리고 저자도(楮子島)에서 산협(山峽)으로 피난하던 중 검단산(黔丹山) 아래에 이르렀을 때 청군을 만나자 몸에 지니고 있던 칼을 뽑아 자결하였다. 이 일이 알려져 열녀문이 세워졌으며, 허직(許稷)이 다음과 같은 글을 지었다.

乙丑에 나서 丙子에 죽었고, 일찍이 德이 있더니 義를 좇았도다(乙丑生丙子死, 風有德結就義). 삼남녀 있어서 祭祀를 이을 것이고, 旌閭를 命하시기에 家翁은 기록하노라(三男女承厥祀, 命旌閭家翁識).

〈참고문헌〉『廣州郡誌』; 『重訂南漢誌』

서혼남(徐欣男) : ? ~ 1667년(현종 8)



서혼남의 비



남한산성 서문 밖 널무니 (현재의 하남시 감이동)에서 태어난 천민 출신이다. 1636년(인조 14) 병자호란이 일어나 남한산성이 청군에게 포위되어 성밖의 소식이 끊기자, 나라에서는 전령을 모았으나 응하는 자가 없어서 곤경에 처해 있었다. 이때 서혼남이 자청하여 성밖으로 나가 한지에 쓴 왕의 유지를 찢어 노끈을 꼬아 찢어진 옷을 엮어매고 봉두구

면에 쪽박을 들고 거지·병자 행세를 하며 적진을 교묘히 빠져나가 경상도·전라도·충청도와 강원도에 전하였다. 또한 적진을 여러 차례 오가며 적정을 보고하고 청군 3~4명을 죽이는 등 큰 공을 세워 나라에서는 정3품 가의대부의 품계를 내렸다. 1667년(현종 8)에 죽어 광주군 중부면 검복리 병풍산에 묻혔으나 근래에 와서 화장하여 묘비만 남게 되었다.

〈참고문헌〉『徐欣男功績碑』

임상원(任相元) : 1638년(인조 16) ~ 1697년(숙종 23)

조선중기의 문신으로 본관은 풍천(豐川)이며, 자는 공보(公輔)이고, 호는 염헌(恬軒)이다.

아버지는 이조참판에 증직된 임중(任重)이며, 어머니는 전주 이씨(全州 李氏)로 목사 이갱생(李更生)의 딸이다. 1660년(현종 1)에 사마시에 합격하였고, 1665년(현종 6) 별시문과에 장원 급제하여 평안도 도사를 지냈으며, 1671년(현종 12) 정언을 거쳐 용강현령이 되었다가 1673년(현종 14) 교리로 승진되었다. 1676년(숙종 2) 청풍부사로 있을 때 문과증시에 병과로 급제한 뒤, 1680년(숙종 6) 동부승지가 되었다. 이듬해에 공조참판을 지냈으며, 1684년(숙종 10) 대사간에 이어 이듬해 대사성이 되었다. 1686년(숙종 12) 대사헌을 지내고, 1687년(숙종 13) 도승지를 역임하였으며, 사온부사가 되어 청나라에 다녀왔다. 공조판서와 우참찬·한성부 판윤 등을 지냈다. 송시열(宋時烈)을 유배시킬 때 방면할 것을 주장하였다. 저서로 『염헌집(恬軒集)』 10책과 『교거쇄편(郊居瑣篇)』이 있다. 시호는 효문(孝文)이며, 묘는 하남시 초일동에 있다.

〈참고문헌〉 『朝鮮王朝實錄』;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임상원의 『염헌집』

심진(沈摺) : 1650년(효종 1) ~ 1722년(경종 2)

조선중기의 무신으로 본관은 청송(靑松)이며, 자는 진경(晉卿)이다. 좌참찬 심광언(沈光彦)의 5세손이다. 1676년(숙종 2) 무과에 급제하여 선전관을 거쳐 전라우도 수군절도사·내금위장·전라병마사 등을 역임하였다. 소론이 신임사화를 일으켜 노론을 대거 축출할 때 남인 목호룡(睦虎龍)이 고변한 사건이 있었다. 이때 소론 김용택(金龍澤)·이천기(李天紀) 등과 더불어 그의 조카인



심진의 교지

심상길(沈尙吉)이 여기에 가담하였는데, 심진은 당시 전라병마사로 있으면서 무명 1동(同), 돈 300냥, 부채 50자루, 종이 수십 권을 그 조카에게 주었다는 명목으로 연루되어 양산에 유배를 당하였다가 다시 잡혀 올라와 고문으로 죽었다. 1783년(정조 7)에 관직이 회복되어 병조판서에 추증되었다. 시호는 장민(壯愍)이며, 묘는 하남시 천현동에 있다.

〈참고문헌〉『朝鮮王朝實錄』;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구정(具程) : 1682년(숙종 8) ~ 1741년(영조 17)

조선후기의 무신으로 하남시 감일동에서 출생하였다. 그는 무과에 급제하여 장연부사(長淵府使)가 되었으나, 노론과 소론의 당파 싸움을 피하여 벼슬을 사양하고 광주 향리에 돌아와 있었다. 1728년(영조 4년) 이인좌(李麟佐)가 청주(淸州)에서 난을 일으켜 진천(鎭川)·음성(陰城)을 함락하고 경기로 진격하려 하였다. 당시 정부는 반란을 일으킨 이인좌와 같은 소론인 도순무사(都巡撫使) 오명항(吳命恒)에게 이인좌를 치게 되었다. 이때 노론들은 소론이 일으킨 난리를 소론이 치게 되었다면서 상관하려 하지 않았다. 이를 듣고, 구정은 크게 노하여 “나라가 있는 뒤에 당파가 있는 것인데 국세가 위급하거든 어찌 노론·소론을 따져서 모르는 체 하리요. 내 비록 노론이지만 이번에는 소론과 협력하여 대적을 파하리라”고 상소하면서 출전을 자청하였다. 국왕은 이러한 구정의 생각을 장하게 여겨 기뻐하면서 오명항의 부하로 있게 하였다. 이때 같이 출전한 장수는 모두 소론이었고 구정만 노론이었다. 그래서 노론은 그를 욕하였고, 소론은 시기하였다. 선봉장이 된 구정은 안성천(安城川)에서 이인좌를 크게 격파하고 죽산(竹山) 조피산(朝避山)에서 이인좌를 사로잡았다. 그 공으로, 그는 공신(功臣)과 봉군(封君)에 봉해졌다. 그러나 그는 노론과 소론의 시비를 두려워하여 사양하였다. 그는 아들에게 자신이 죽은 뒤 무덤에 비석을 세우지 말고 나라의 증직(贈職)도 받지 않도록 훈계하였다. 예전에는 구정의 비각(碑閣)이 죽산 읍내에 있었는데 동학농민항쟁 때 불에 타버렸다.

〈참고문헌〉『廣州郡誌』; 『南漢秘史』

임성(任城) : 1713년(숙종 39) ~ 1779년(정조 3)

조선후기의 문신으로 본관은 풍천(豐川)이고 자는 성진(聖眞), 호는 수암(羞庵)이다. 임수헌(任守憲)의 아들이자 박만기(朴萬器)의 외손이며, 이몽언(李夢彦)의 사위다. 1755년(영조

31) 진사로 정시문과에 이형규(李亨逵)·박취원(朴取源) 등과 함께 병과로 급제한 뒤, 세자시강원 설서(世子侍講院說書)가 되었다. 세자가 대리청정하게 되자 그 측근에서 보필하였으며, 1758년(영조 34) 정언이 된 이후 강직한 성격으로 오랫동안 사간원의 관원을 역임하였다. 1762년(영조 38) 사서로 있을 때, 나경언(羅景彦)이 세자의 비행을 상주하자 영조가 크게 노하여 세자를 죽이려고 하였다. 그때 그는 세자의 잘못을 간곡하게 빌었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세자가 죽은 뒤, 그는 세자의 보필을 소홀히 하였다는 이유로 파직되었다. 그후 다시 지평에 기용되고 교리·승지를 지내다가 1775년(영조 51) 대사간에 임명되었으나 부임하지 않았다. 뒷날 이조판서에 추증되었다. 시호는 충희(忠僖)이며, 그의 묘는 하남시 초일동에 있다.



임성의 묘비

〈참고문헌〉 『朝鮮王朝實錄』; 『廣州郡誌』; 『京畿人物誌』;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김종수(金鍾秀) : 1728년(영조 4) ~ 1799년(정조 23)

조선후기의 문신으로 본관은 청풍(淸風)이고, 자는 정부(定夫)이며, 호는 진솔(眞率)·몽오(夢梧)이다. 서울출신으로 우의정을 지냈던 김구(金構)의 증손자이며, 시직(侍直) 김치만(金致萬)의 아들이고, 교리 윤득경(尹得敬)의 사위이다.

1768년(영조 44) 문과에 급제하여 예조정랑, 홍문관 부수찬을 지내고, 왕세손 시강원 필선으로 활동하였다. 이때 외척의 정치관여를 배제해야 한다는 의리론이 정조에게 깊은 감명을 주어 뒷날 정조의 지극한 신임을 얻게 되었다.

1772년(영조 48) 청명(淸名)을 존중하고 공론을 회복하여 사림정치의 이상을 이루려는 청명류의 정치적 결사에 연류되었던 그는, 이 조직이 드러나게 되어, 당시 당파를 없애려는 영조에 의해 경상도 기장현의 금갑도(金甲島)로 유배되었다가 다음해에 방면되었다. 영조가 죽자



김종수의 영정

행장찬집당상(行狀纂輯堂上)이 되었고, 이후 승지·경기도관찰사·평안도관찰사를 거쳐 규장각 제학에 임명되었다. 1781년(정조 5) 대제학에 오르고, 그뒤 이조판서·병조판서를 거쳐 1789년(정조 13)에 우의정에 올랐다.

1792년(정조 16)에 영남만인소(嶺南萬人疏)가 올라와 사도세자(思悼世子)를 위해 역적을 토벌하자고 주장하자, 순(舜)·주공(周公) 같은 대공지정(大公至正)의 도리로서 부모를 섬기는 것이 효도라는 내용의 상소문을 올려 이에 반대하였다.

이듬해에 좌의정에 올랐으며, 1794년(정조 18) 사도세자를 위한 역적 처벌을 다시 주장한 채제공(蔡濟恭)과 함께 설 수 없다는 의리를 굽히지 않음으로써, 정조가 주장하는 탕평책에 대한 배신자로 지목되어 평해로 유배되었다가 남해로 옮겨 유배생활을 계속하였다. 이 해에 관직을 그만두고 봉조하가 되었다.

그의 사후(死後) 순조 때에는 척신인 김구주(金龜柱), 심환지(沈煥之) 등과 당파를 이루어 정조를 속이고 뒤에서 그 치적을 파괴하여 자신의 이익을 추구했다 하여 관직이 추탈(追奪)되었다가 곧바로 회복되었다. 1802년(순조 2) 유언호(兪彦鎬)와 함께 정조묘에 배향되었다. 시호는 문충(文忠)이다.



김종수의 묘

임성주(任聖周)·윤시동(尹蓍東)·김상묵(金尙默) 등과 교류하였는데, 어려서부터 경술(經術)로써 세상에 이름났다고 하였다. 정조는 윤시동·채제공과 함께 세 사람을 자신의 의리를 조제하는 탕평의 기둥으로 지적하였다. 『문신강제절목(文臣講製節目)』을 찬진했으며, 저서로는 『몽오집(夢梧集)』이 있다. 그의 묘는 하남시 광암동에 있다.

〈참고문헌〉 『朝鮮王朝實錄』; 『夢梧集』;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정계순(鄭啓淳) : 1729년(영조 5) ~ 1789년(정조 13)

조선후기의 문신으로 본관은 동래(東萊), 자는 옥여(沃汝)이며, 유학 정석증(鄭錫曾)의 아들이다. 1765년(영조 41) 식년 진사시에 3등 75위로 합격하여 진사(進士)가 되고, 그 다음해에 음직(蔭職)으로 헌릉참봉(獻陵參奉)에 임명되었다. 이어 중부직장(中部直長)·의금부 도사(義禁府都事)·선공봉사(繕工奉事)·전생직장(典牲直長)을 역임하였다. 이 벼슬은 모두 집안 어른들의 상을 당하여 서용(敍用)된 것이며 간혹 바꾸어 임명하거나 서열에 따라 직위를 옮긴 것이다. 1776년(정조 즉위)에는 반궁(泮宮)에서 감제(柑製)를 설행하여 진사(進士) 정계순에게 바로 전시(殿試)를 보게 하였다. 이후 1777년(정조 1)에 문과에 응시하여 갑과(甲科)로 급제하였는데, 송(頌)에서 으뜸을 차지하였다. 그러나 이미 자계(資階)가 다하여 통정대부(通正大夫)로 승진하여 풍천(豐川)·청송(靑松)·초산(楚山) 등 3부의 부사로 임명되었다가 내직인 돈녕부 도정(敦寧府都正)으로 들어와 예·병·공 3조의 참의(參議), 승정원(承政院) 승지(承旨), 사간원(司諫院) 등을 역임하고 1785년(정조 9) 정월에는 사간원 대사간이 되었다.

그는 수시로 사람들에게 베풀었으며 관리가 하는 일을 하찮게 생각하지 않고 형벌을 너그럽게 하였다. 그러므로 백성들은 그를 믿었다. 관리 시절 그는 흉년을 만나면 상급 관청에 진곡(賑穀)의 대출(貸出)을 의논하여 곡물 4천석을 대출하였다. 이것은 곡물이 귀할 때 대출하고 곡물이 넉넉할 때 거둬들이려고 한 것이



정계순의 묘비



정계순·정기세의 호패

다. 그러나 이때 그는 “이것은 나의 뜻이 아니라 한결같이 낮은 가격으로 백성들에게 나눠주는 것이다”고 하였다. 또한 중대한 죄안(罪案)을 다룰 때 생사가 달려 있으면 사람 인자(人字) 한글자도 소홀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부인은 문화 류씨(文化 柳氏)로 현감(縣監) 류성모(柳聖模)의 딸이다. 그는 아들 셋을 두었다. 첫째 아들 정동만(鄭東萬)은 도정(都正)을 지내 판서(判書)에 증직(贈職)되었고, 둘째 아들 정동면(鄭東勉)은 부사를, 셋째 아들 정동일(鄭東逸)은 사서(司書)를 지냈다. 그의 묘는 하남시 교산동에 있는데 그 옆에 1834년(순조 34) 이상황이 찬한 신도비가 있다.

〈참고문헌〉『朝鮮王朝實錄』; 『鄭啓淳神道碑』; 『司馬榜目』

이벽(李穰) : 1754(영조 30)~1786(정조 10)



『이벽선생 몽회록』

조선후기의 학자로 배알미리에서 출생하였다. 그의 본관은 경주(慶州)이고, 자는 덕조(德操), 호는 광암(曠庵)이며, 세례명은 세례자요한이다. 그의 아버지는 이부만(李溥萬)인데, 그의 집안은 무반으로 대대로 이름난 가문이었다.

이벽은 이익(李瀼)을 스승으로 하는 남인학자의 일원으로 이가환(李家煥)·정약용(丁若鏞 : 이벽의 처남)·이승훈(李承薰 : 이벽과 동서)·권철신(權哲身)·권일신(權日身) 등과 교유관계를 맺고 있었다. 그의 아버지는 아들이 무반으로 성공할 것을 바랬으나, 벼슬길에 나가지 않고 평범한 서생으로 생애를 마쳤다. 그는 조선후기 주자학의 모순을 인식하고 새로운 대안을 찾던 가운데, 사신들을 통하여 청나라로부터 서학서(西學書)를 얻어 읽게 되었다. 당시 청나라에 와 있었던 서양선교사들과 청의 실학자 서광계(徐光啓)·이지조(李之藻) 등이 저술한 천주교서적들은 천주교 교리 뿐만 아니라 서구의 과학·천문·지리 등의 방대한 내용을 담고 있었다.

따라서 이러한 서적들은 읽고 연구하면서 자발적으로 천주교를 수용할 수 있는 단계에 도달하게 되었다. 1779년(정조 3) 권철신·정약전(丁若銓) 등과 함께 광주의 천진암(天真庵)과 주어사(走魚寺)에서 강학회를 열었는데, 이때 그는 천주교에 대한 지식을 동료 학자들에게 전하였다.

1784년(정조 8) 이승훈이 청나라에서 세례를 받고 돌아오자 그에게서 세례를 받고 정식으로 천주교 신자가 되었다. 이후 서울 수포교에 집을 마련하고 천주교를 연구하고 전교하였다. 이때 권철신·권일신·정약전·정약용·이윤하(李潤夏)·김범우(金範禹) 등이 세례를 받아 신자가 되었다. 신자들이 늘어감에 따라 교단조직과 교직자가 필요해지자 이른바 가성직자계급(假聖職者階級)을 형성하였고, 이벽은 이 교단조직의 지도자로서 활동하였다. 특히, 1785년(정조 9) 봄에 김범우의 집에서 설법교회(說法敎誨)하는 모임을 주도하다가, 이후 성균관 유생들의 척사운동(斥邪運動)에 의해 해산되었다.

이벽의 아버지 이부만이 아들이 천주교에 귀의한 것에 대해 결사적으로 반대하자, 이에 대해 고민하여 천주교 활동에 소극적이 되었다. 이벽은 1786년(정조 10) 폐스트에 걸려 사망했으며, 무덤은 경기도 광주군 퇴촌면 우산리에 있다. 그의 저서로 『성교요지(聖敎要旨)』가 남아 있다.

〈참고문헌〉 『朝鮮王朝實錄』;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김옥희, 『광암이벽의 서학사상』, 카톨릭출판사, 1979.



이벽의 묘

정기세(鄭基世) : 1814년(순조 14) ~ 1884년(고종 21)

조선후기의 문신으로 본관은 동래(東萊)이며, 자는 성구(聖九)이고, 호는 주계(周啓)이다. 그는 정계순(鄭啓淳)의 증손이고, 돈령부 도정(敦寧府都正) 정동만(鄭東晩)의 손자이며, 영의정 문충공(文忠公) 정원용(鄭元容)의 아들이다. 대사헌 김계락(金啓洛)의 외손이며, 김영수(金永受)의 사위이다. 우의정 정범조(鄭範朝)의 아버지이다. 정기년(鄭基年)·정기명(鄭基命)과 형제간이다.

그는 1831년(순조 31) 진사(進士)에 합격한 후, 1837년(헌종 3) 정시(庭試)에 이경재(李經在) 등과 함께 병과로 급제하였다. 1838년(헌종 4) 6월 한림소시(翰林召試)를 인정전(仁政殿)에서 베풀었는데, 홍재룡(洪在龍)·남병철(南秉哲)과 함께 뽑혔다. 이듬해 7월에는 주서(注

書) 추천에서 이인기(李寅夔)·서상교(徐相敎) 등과 함께 뽑혔으며, 충청우도 암행어사(忠淸右道暗行御史)를 지냈다. 1844년(헌종 10) 도청응교(都廳應敎)를 지내고, 1848년(헌종 14) 성균관 대사성을 역임하였으며, 헌납(獻納)·장령(掌令)·병조참의·성천부사(成川府使) 등을 역임하였다.



정기세의 묘비

한성부 판윤을 거쳐, 1856년(철종 7) 정월 형조판서, 같은해 7월 다시 한성부 판윤을 역임하고, 10월에 예조판서가 되었다. 11월 그는, “헌릉(獻陵)·정릉(靖陵)·선릉(宣陵)의 봄, 가을 봉심(奉審)과 수개(修改)하는 등의 절차를 광주부(廣州府)에서 맡아 거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인릉(仁陵)을 천봉(遷奉)한 뒤 봉심과 수개하는 절차를 한결같이 세 능침(陵寢)의 예(例)에 의거해 거행하는 것이 합당할 듯합니다. 그러나 일이 중대한데 관계되니 청컨대 대신(大臣)에게 하순(下詢)하시어 처리케 하소서”라고 철종에게 아뢰어 인릉의 봉심과 절차를 광주부와 똑같이 거행하게 하였다.

이어 1850년(철종 1) 5월 이조참의를 지냈고, 7월 규장각 직제학을 거쳐 11월 다시 이조참의가 되었다. 1851년(철종 2) 11월 홍문관 부제학을 지냈고, 1853년(철종 4) 3월 강화도 조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강화부 유수에 임명되었다가 12월 전라도 관찰사가 되었다. 1854년(철종 5) 윤 7월 을해일에 장계(狀啓)를 올리기를 “봉화(奉化)의 투서(投書)한 변괴(變怪)에 관해 금성옥(琴聖玉)·김두창(金斗昌)·윤이근(尹以根) 등의 공초(供招)를 받은 것이 구절마다 의심스럽고 현혹하여 마땅히 신의 감영(監營)으로부터 모두 즉시 잡아 올려 끝까지 사실을 가려야 합니다만, 이제 이미 병영(兵營)이 상주문(上奏文)을 올린 뒤라서 처분이 있기 전에 감히 갑자기 조사할 것을 청하지 못하는 바가 있습니다”라고 하여 봉화 패서사건을 담당하고 처리한 공로로 품계가 올라갔다. 이후 1855년(철종 6) 2월 18일 이조참판이 되었고, 11월

이후 12월에는 개성부 유수로 임명된 후 다시 품계가 올랐고, 1859년(철종 10) 5월에는 다시 예조판서가 되었다. 같은해 9월에는 규장각 제학(奎章閣提學)에 임명되었다. 이어 11월 판의금부사(判義禁府事)로 체직되고 다음해 2월 다시 형조판서·판의금부사, 9월 병조판서를 거쳐 1861년(철종 12) 3월 의정부 좌참찬이 되었다. 4월에는 한성부 판윤, 7월에는 예조판서, 이듬해 5월 판의금부사를 거쳐 같은달에 이조판서가 되었다. 또한 이해 8월 다시 판의금부사로 전직한 후, 같은달 형조판서, 다음해 2월 예조판서를 제수받았다. 1862년 농민항쟁이 일어나자 판의금부사와 형조판서로서 이정청 당상(釐整廳堂上)이 되었다.

고종 즉위후 권강관(勸講官)·병조판서·한성부 좌윤·『철종실록』찬집당상·제학·우찬성을 역임하였고, 『대전회통』 편찬을 위한 교식찬집소(敎式纂集所) 교정당상(校正堂上)이 되었다. 신미양요 때에는 광주유수(廣州留守)가 되었다가 다시 내직으로 들어가 각 조의 판서·제학·시강원 빈객을 지냈다. 임오군란 전에 수원유수로 있다가 난이 수습된 뒤에도 요충지라고 유임되었고 한성부 판윤으로 전임되었다. 제술관(製述官)과 문서사관(文書寫官)에 몇 차례 임명되었던 것으로 보아 문장과 서예에 조예가 있었던 것 같다. 묘는 하남시 교산동에 있다.

〈참고문헌〉『朝鮮王朝實錄』; 『司馬榜目』; 『文科榜目』;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구연태(具然台) : ? ~ ?

광주군 서부면 감일리(현재의 하남시 감일동) 사람이다. 선비로서 벼슬을 마다하고 일생을 부모에게 효도하며 살다가 고향에서 죽어 묘가 감일동에 있다. 천성(天性)이 아주 효성스러워 아버지가 병들었을 때 하늘에 기도하며 자기가 대신하기를 기원하였다. 아버지가 노루고기가 먹고 싶다고 하면 노루가 집안으로 뛰어 들어오고 꿩고기를 먹고 싶다고 하면 꿩이 날아들었으니 그의 효심과 기도가 진실되었다고 한다. 고종 때 광주향교(廣州鄉校)에서 관가에 진정하여 광주부윤(廣州府尹)과 관찰사(觀察使)의 제사(題辭)와 비답까지 있었으나, 마침 갑오개혁(甲午改革)이 되어 시행되지 못하였다.

〈참고문헌〉『朝鮮人物號譜』; 『廣州郡誌』; 『南漢秘史』

제4절 근현대

유길준(兪吉濬) : 1856년(철종 7) ~ 1914년



유길준

한말의 개화사상가이자 정치가이다. 본관은 기계(杞溪), 자는 성무(聖武), 호는 구당(矩堂)이다. 서울 계동(桂洞) 출신이며, 진사 진수(鎭壽)의 아들이다. 어려서부터 아버지와 외할아버지 이경직(李敬植) 등에게 한학을 배웠다. 1866년(고종 3) 병인양요가 일어나자 가족과 함께 광주군 동부면 덕풍리(현재 하남시 덕풍동)로 피난하여 3년간 거주하였다. 이곳에 거주하는 동안 그는 서당에서 『소학』·『자치통감』 등을 읽었는데 뛰어난 글재를 발휘하여 광주 인근에 이름을 드날렸다. 1870년(고종 7) 박규수(朴珪壽)의 문하에서金玉균(金玉均)·박영효(朴泳孝)·서광범(徐光範)·김윤식(金允植) 등과 실학사상을 배우는 한편, 위원(魏源)의 『해국도지(海國圖志)』와 같은 서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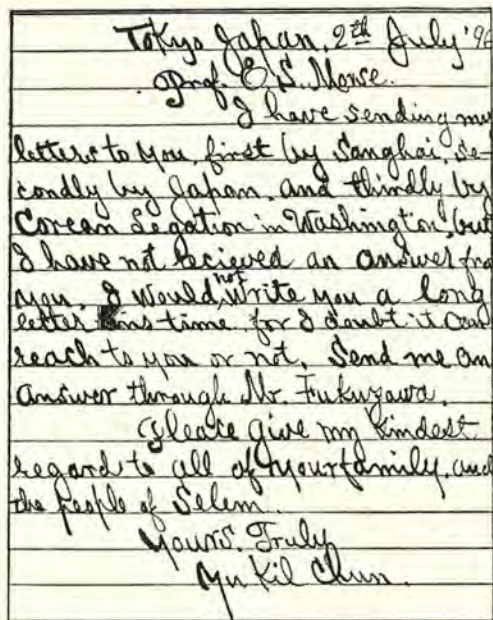
을 통하여 해외문물을 습득하였다.

1881년(고종 18) 박규수의 권유로 어윤중(魚允中)의 수행원이 되어 신사유람단에 참가, 우리나라 최초의 일본유학생이 되었다. 이때 일본의 문명개화론자인 후쿠자와 유키치(福澤諭吉)가 경영하는 게이오의숙(慶應義塾)에서 유정수(柳定秀)와 함께 수학하였다. 또 한국·중국·일본 등 동양 삼국의 단결을 목적으로 조직된 흥아회(興亞會)에도 참가하여 일본의 학자 및 정치가들과 교류하였다. 1882년(고종 19) 임오군란이 일어나자 민영익(閔泳翊)의 권유로 학업을 중단하고, 1883년(고종 20) 1월에 귀국하여 통리교섭통상사무아문(統理交涉通商事務衙門)의 주사(主事)에 임명되어 한성 판윤 박영효가 계획한 『한성순보(漢城旬報)』 발간사업의 실무 책임을 맡았다. 그러나 민씨 척족세력의 견제로 신문발간 사업이 여의치 않게 되자 주사직을 사임하였다.

그해 7월 보빙사(報聘使) 민영익의 수행원으로 도미하여 일본유학 때 알게 된 생물학자이며 처음으로 다윈(Darwin, C.)의 진화론을 일본에 소개한 매사추세츠주 세일럼시 피바디박물관장인 모스(Morse, E. S.)의 개인지도를 받았다. 가을 덤머고등학교[Governor Dummer Academy]에서 수학하여 우리나라 최초의 미국유학생이 되었다. 1884년(고종 21) 갑신정변이 실패하였다는 소식을 듣자 학업을 중단하고 유럽 각국을 순방한 뒤, 1885년(고종 22)에 귀국하였으나, 갑신정변의 주모자인 김옥균·박영효 등과 친분관계가 있었다고 하여 개화파의 일당으로 간주되어 귀국 후 체포되었다. 한규설(韓圭晷)의 도움으로 극형을 면하고 1892년(고종 29)까지 그의 집과 취운정(翠雲亭)에서 연금생활을 하면서 『서유견문(西遊見聞)』을 집필, 1895년(고종 32) 일본 동경의 교순사(交詢社)에서 출판하였다.

『서유견문』은 국한문혼용체로 서양의 근대문명을 한국에 본격적으로 소개하는 한편, 한국의 실정에 맞는 자주적인 개화 즉, '실상개화(實狀開化)'를 주장하였다. 그는 개화를 인간사회가 '지선극미(至善極美)'한 상태에 도달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역사가 '미개화 - 반개화 - 개화'의 단계를 거쳐 진보한다는 문명진보사관(文明進歩史觀)을 제시하였다. 그의 문명진보사관은 종래의 상고주의사관(尙古主義史觀)을 비판하여 문명의 진보를 주장하였다는 점에서 커다란 의의를 지닌다. 그의 개화사상은 실학의 통상개국론(通商開國論), 중국의 양무(洋務) 및 변법론(變法論), 일본의 문명개화론, 서구의 천부인권론(天賦人權論) 및 사회계약론(社會契約論) 등의 영향을 받아 형성되었으며, '군민공치(君民共治)' 즉, 입헌군주제의 도입, 상공업 및 무역의 진흥, 근대적인 화폐 및 조세제도의 수립, 근대적인 교육제도의 실시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의 개화사상에 나타난 개혁론은 갑오경장의 이론적 배경이 되었다. 1894년 동학농민운동을 계기로 한 청일전쟁과 함께 수립된 내각에 참여, 외아문참의 겸 군국기무처회의원(外衙門參議兼軍國機務處會議員)·도찰원도헌(都察院都憲)·내각총서(內閣總書)·내무협판(內務協辦)·내부대신(內部大臣) 등의 요직을 지내면서 갑오경장의 이론적 기초를 제공하였다.

1895년(고종 32) 10월에 을미사변의 뒷수습을 위하여 일본 공사 이노우에(井上馨)와 접촉



유길준의 영문편지

하는 한편, 내부대신이 되어 단발령을 강행함으로써 보수적인 유림과 국민들로부터 반감을 사기도 하였다. 1896년(건양 1) 2월 아관파천(俄館播遷)으로 친일내각이 붕괴되고 친로내각(親露內閣)이 수립되자 일본으로 망명하여 일본 육군사관학교 출신의 한국인 청년장교들이 조직한 일심회(一心會)와 연결, 쿠데타를 기도하였으나 실패하였다. 이 사건이 양국간의 외교분규로 비화되자 일본정부에 의하여 오가사와라섬(小笠原島)에 유배되었다.

1907년(융희 1) 고종이 폐위된 뒤 귀국하여 흥사단(興士團) 부단장, 한성부민회(漢成府民會) 회장을 역임하고, 계산학교(桂山學校)·노동야학회(勞動夜學會) 등을 설립하여 국민계몽에 주력하는 한편, 국민경제회(國民經濟會)·호남철도회사·한성직물주식회사 등을 조직하여 민족산업의 발전에도 힘을 쏟았다. 1908년(융희 2) 2월에는 강구회(講舊會)를 조직하였다. 또 1909년(융희 3)에는 국어문법서인 『대한문전(大韓文典)』을 저술·간행하였고, 1910년(융희 4)에 훈일등태극대수장(勳一等太極大綬章)을 받았다. 일진회의 한일합방론에 정면으로 반대하였으며, 국권상실(융희 4) 후 일제가 수여한 남작의 작위를 거부하였다. 1914년 9월 30일 59세를 일기로 생을 마치고 선영이 있는 하남시 덕풍동에 묻혔다가 도시개발로 인해 현재는 하남시 검단산에 이장되어 있다. 그의 저서로는 『서유견문』 외에 『구당시초(矩堂詩抄)』·『대한문전(大韓文典)』·『노동야학독본(勞動夜學讀本)』 등이 있으며, 1971년에 유길준전서 편찬위원회가 구성되어 『유길준전서』 전5권이 간행되었다.

〈참고문헌〉 俞東瀾, 『俞吉濬傳』, 一潮閣, 1987; 이광린, 『俞吉濬』, 동아일보사, 1992; 김봉렬, 『俞吉濬 開化思想의 研究』, 경남대 출판부, 1998.

김교영(金敎永) : 1857년(철종 8) ~ ?



김교영

독립운동가로 광주군 동부면 망월리(望月里 : 현재의 하남시 망월동) 323번지가 본적이다. 1919년 당시 62세였으며, 농업에 종사하였고, 천주교도였다. 3월 20일경 전국에서 독립운동이 벌어지고 있음을 전해 듣고, 27일 김용문(金用文)에게 조선 독립의 시위운동으로서 만세를 부를 것이니 사람들을 집합하라고 전하고, 이때 모인 9명을 규합하여 동부면 면사무소 앞으로 가서 오후 1시부터 오후 4시까지 '조선독립만세'를 불렀다. 이때 일본은 정치에 관하여 불온 언동을 하고 치안을 방해했다 하여 체포해서, 1919년 4월 29일 경성지방법원에서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였다. 1994년 건국훈장 애국장이 추서되었다.

〈참고문헌〉「3·1運動 裁判記録 ‘金敎永判決文理由書」, 『獨立運動史資料集』(5), 獨立運動史編纂委員會, 1972 ; 『獨立有功者功勳錄』(11), 國家報勳處, 1994.

이능화(李能和) : 1869년(고종 6) ~ 1943년

자는 자현(子賢)이고, 호는 간정(侃亭)·상현(尙玄)·무무(無無)·무능거사(無能居士)이다. 1869년(고종 6) 1월 19일 충청북도 괴산군 이도면 수진리에서 출생하였으며, 이원공(李源兢)의 아들이다. 어려서부터 향리에서 한문을 수학하였고, 15세에 정인호(鄭仁鎬)와 혼인하고, 20여 세에 아버지를 따라 한양에 왔다. 이때부터 격동하는 당시의 내외정세를 알고 국제문물에 접하기 위하여 정동영어학교, 한성한어학교를 다니며 영어·중국어 등 외국어 습득에 전력하였다. 1895년(고종 32) 관립법어학교(官立法語學校)에 입학하였으며, 남달리 성적이 뛰어나 1897년(광무 1) 졸업 전에 우리나라 사람으로는 최초로 불어를 가르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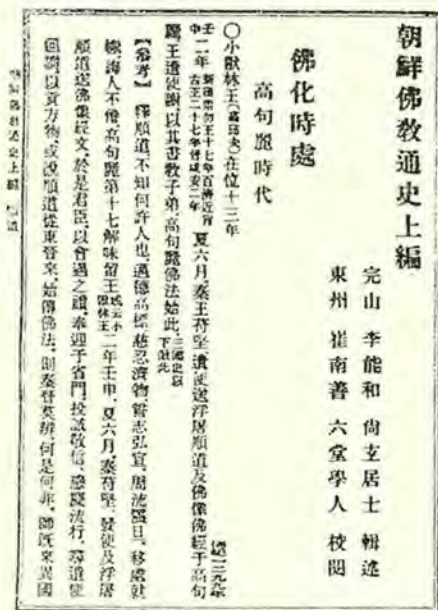
이능화

1906년(광무 10) 10월 관립한성법어학교 교장에 임명되었으며, 이어서 1909년(융희 3) 법어학교·영어학교·일어학교 등이 통합되어 관립한성외국어학교 학제가 시행될 때 학감으로 취임하여 1910년(융희 4) 학교가 폐쇄될 때까지 불어교육을 통한 인재양성에 주력하였다. 겸직으로 1902년(광무 6) 7월 청경예식사무소 위원직(稱慶禮式事務所委員職)을 맡았고, 1907년(융희 1) 3~4월 정부특명으로 일본의 관청을 시찰하고 온 뒤, 7월에는 국문연구소(國文研究所) 위원직을 맡아보았다.

한일병합이 되자 1912년 따로 사립보통학교를 만들어 교명을 자신의 이름과 부인의 이름에서 각각 ‘能’자와 ‘仁’자를 따서 ‘능인(能仁)’이라 하고 3년 동안 교장으로 있었다. 그리고 한일병합 전후에 일기 시작한 불교계 계몽운동의 흐름을 타고 1915년 30본산 주지와 50여 명의 신도가 중심이 되어 서울 각황사(覺皇寺)에서 조직·발족된 불교진흥회의 산파 역할을 하였다. 젊은 승려들의 추대로 불교진흥회 간사에 취임하였으며 1917년부터는 이사직을 맡았다. 『불교진흥회월보』·『불교계』·『조선불교총보』 등 불교 대중 교양잡지를 편집·발간하여 불교의 포교와 민족문화수호운동의 핵심체 역할을 수행하였다.

1922년 조선총독부가 조선사편찬위원회를 조직하여 그 위원의 한 사람으로 위촉하였을 때,

이를 수락하여 15년 동안 조선사 편찬에 종사하는 한편, 종교를 비롯한 민족문화 각 분야에 걸쳐 수집한 자료를 정리·연구하고 이를 후학에 전수하기 위하여 원고를 집필하였다. 한국학 발전에 신기원을 이룩한 원고는 거의 이 무렵에 집필된 것이다. 1930년 한국학 연구를 위하여 재한 일본학자들을 중심으로 청구학회(靑丘學會)가 발족하였을 때 평의원(評議員)으로 추대되어 1939년 학회가 해산될 무렵까지 계속 관계를 맺었으며, 또 조선총독부 보물고적보존회의 위원으로 있으면서 민족문화 수호에 관심을 표하기도 하였다. 1931년 최남선(崔南善)·박승빈(朴勝彬)·오세창(吳世昌) 등과 더불어 계명구락부(啓明俱樂部)를 설립하여 민족정신의 계몽과 양양에 앞장섰으며, 이 무렵 동국대학교의 전신인 중앙불교전문학교에서 조선종교사를 강의하였다. 총독부에서의 『조선사』 편찬이 일단락 된 1938년 이후에는 잠시 이왕직(李王職)에 나갔다. 이미 칠순의 노령에 접어들어 칩거하던 중 자녀들의 권유로 상경하여 1943년 4월 12일 서울 돈암동에서 74세로 죽었다. 묘는 하남시 덕풍동 선영 내에 있으며, 정부는 1962년 8월 15일 국민훈장 대통령장을 추서하였다.



이능화의 『조선불교통사』

는 민족정신을 발휘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실어야 한다고 주장하여 민족적 주체의식의 뚜렷함을 엿볼 수 있다. 전통문화연구에 관한 저서로는 『조선신교원류고(朝鮮神敎源流考)』·『조선유교지양명학(朝鮮儒敎之陽明學)』·『이조시대경성시제(李朝時代京城市制)』 등을 남겼다. 또 1923, 1924년에 조선사학회에서 간행한 조선사강좌분류사특별강의에 『조선불교사(朝鮮佛教

그의 한국학 관계 저술은 가치가 매우 뛰어난 것이다. 불교사 정리에 착수하여 한국 불교에 관한 일체 사료를 집성·망라하고 1918년 『조선불교통사(朝鮮佛教通史)』를 자비로 출판하였다. 이 책은 그의 학문적 업적 가운데에서 개척적인 명저이다. 국사학 분야에서는 1922년 12월 발족된 조선사편찬위원회에서, 그리고 그후 1925년 6월 조선사편수회로 개칭된 기관에서 『조선사』 편찬에 참여하여 주로 제4편(광해군~경종)과 제6편(영조~갑오개혁)을 분담하였다. 1923년 1월 8일 열린 제1회 위원회 석상에서 동료 이나바(稻葉岩吉)가 신라통일시대의 조선은 현대의 조선과는 그 지역이 다르고 현대의 조선에서 본다면 발해는 한 지방에 국한되었던 명칭이라고 발언하는 것을 듣고 한국사 체계에 발해사가 고구려사와 함께 들어가야 한다고 강력히 주창하였다. 특히, 건국신화

史』를 집필하였고, 1927년 『조선여속고(朝鮮女俗考)』·『조선해어화사(朝鮮解語花史)』·『조선무속고(朝鮮巫俗考)』와 1928년 『조선기독교급외교사(朝鮮基督教及外交史)』를 출간하였다. 또 『춘향전(春香傳)』을 한시(漢詩)로 풀이한 『춘몽록(春夢錄)』·『조선유학급유학사상사(朝鮮儒學及儒學思想史)』·『조선신화고(朝鮮神話考)』·『조선십란록(朝鮮十亂錄)』·『조선의약발달사(朝鮮醫藥發達史)』·『조선사회사(朝鮮社會史)』·『조선도교사(朝鮮道教史)』 등을 저술하였다. 이들 유고는 1959년 동국대학교에서 영인·간행한 바 있는 『조선도교사』를 제외하고는 모두 한국전쟁으로 흩어져 잃어버렸다.

그의 『조선해어화사』는 우리 사회에서 천류로 버림받아 온 기생을 주제로 하여 연정·치정·색정·음행·정열(貞烈)·시가(詩歌) 등 여러 부분에 걸쳐 그들의 생활상황과 주변에 관한 자료를 집대성한 것으로, 통혼·가족·수과(守寡)·복장·교육·연중행사 등을 중심으로 정리한 『조선여속고』와 함께 우리나라 여성사의 개척적인 명저이다. 『조선불교통사』와 함께 1968년 재판 영인되었다. 『조선기독교급외교사』는 능통한 불어를 통하여 달레(Dallet, C. C.)의 『조선교회사(朝鮮教會史) : Histoire de (Eglise de coree)』를 이해한 뒤 조선시대의 문적(文籍)을 더듬어 기독교사의 체계를 이룩해 놓은 것으로, 이 분야 연구의 개척적 저작이다.

〈참고문헌〉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李花』 121호; 『韓國의 人物』(상), 新丘文化社, 1965; 이하중, 「無能居士 李能和 研究」, 仁荷大 碩士學位論文, 1992; 신광철, 「李能和의 宗教史學과 韓國 基督教史 研究」, 『한국기독교와 역사』(4), 한국기독교연구소, 1995.

구희서(具義書) : 1871년(고종 8) ~ 1919년

독립운동가이다. 광주군 서부면 감일리(甘一里, 현재의 하남시 감일동) 246번지가 본적이고, 1919년 당시 48세였으며 농업에 종사하였다.

1919년 3월 27일 약 40여 명의 주민을 규합하여 서부면 면사무소 및 상일리(上一里) 헌병주재소 앞에서 '대한독립만세'를 불렀다. 이에 일본은 공안을 방해했다고 하여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8월을 선고하였다. 1992년 대통령 표창이 추서되었다.

〈참고문헌〉 「3·1運動 裁判記錄 '具義書判決文理由書」, 『獨立運動史資料集』(5), 獨立運動史編纂委員會 1972; 『獨立有功者功勳錄』(10), 國家報勳處, 199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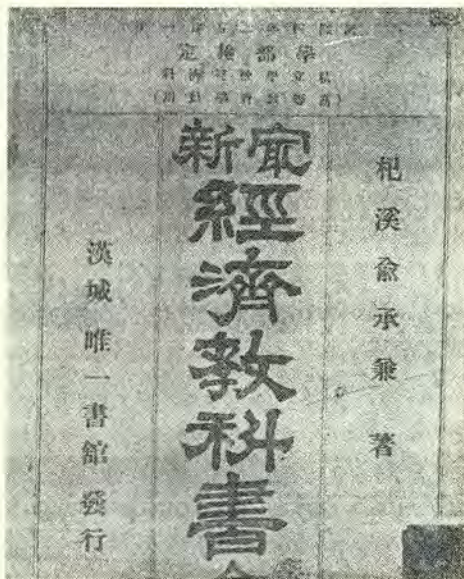


구희서

유승겸(兪承兼) : 1876년(고종 13) ~ 1917년

경제학자이자 교육자이며, 대한제국 관리이다. 자는 응조(應祖)이고 호는 동은(東隱)이다. 1876년(고종 13) 2월 29일(음) 경기도 광주군 동부면 덕풍리(현재의 하남시 덕풍동)에서 유효준(兪孝濬)의 차남으로 출생하였다. 덕수 이씨(德水 李氏)와 결혼하여 차순(且順)·우순(又順)을 두었고, 형 유창겸(兪昌兼)의 차남 옥(煜)을 양자로 입양하였다.

유길준(兪吉濬)과는 7촌인데, 서울 계동(桂洞)으로 이사가 유길준의 동생 유성준(兪星濬)과 앞뒤 집에 살며 어릴 때부터 가깝게 지냈다. 계산학교(桂山學校)를 졸업하고, 1895년(고종 32) 3월 19세에 관비유학생으로 선발되어 5월 도일하였다. 일본에 가서는 게이오의숙(慶應義塾) 보통과에 입학하였다. 이때 유길준의 적극적인 추천이 있었다고 한다. 일본에서는 게이오의숙 보통과·고등과를 마치고, 전수학교(專修學校) 이재과(理財科)에서 공부하였다. 이후 1900년(광무 4) 9월부터 1901년(광무 5) 12월까지 일본 대장성 사무견습과정을 마치고 1902년(광무 6) 3월 귀국하였다.



유승겸의 『최신 경제교과서』

이후 국내에 들어와서는 관리로 생활하면서 강의와 저술에 힘썼다. 주요 공직생활의 기록을 보면, 탁지부주사(度支部主事)·탁지부건축소사무관(度支部建築所事務官)·탁지부서기관(度支部書記官) 등을 역임하는 등 초기 탁지부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 1905년 4월부터 보성전문학교(普成專門學校) 경제학 담당 강사로 후학을 양성하였는데, 제자로는 박승희(朴承熙)·주정균(朱定均)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농상공학교(農商工學校) 교관으로 경제학을 강의했고, 양정의숙(養正義塾)에서도 후진을 양성했던 것 같다. 유학시절 당시 일본 경제사상의 주류는 독일의 친구 역사학과 경제학이 큰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일본내의 분위기와 당시 수학했던 전수학교의 자유주의적 경제학, 강

단 사회주의적 분위기 속에서 자유주의적 사상과 사회개량주의적 사상을 체득하게 되었다. 또한 개인의 노력이 사회경제 발전의 근본이라는 전제 아래, 놀고먹는 자를 사회의 공적(公敵), 나아가 사회의 대적(大賊)이라고 하였다. 이와 함께 자유주의적이고 보수적인 경제사상을 갖고 사회주의 사상에 대해서는 반기를 들었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조선 상류사회의 모고심(慕古

心)을 비판하며, 인시제의(因時制宜)를 주장하여 근대화에 대한 선진적인 사상도 피력하였다. 1910년 일제에 의해 조선이 식민지가 되자 탁지부 관리의 직에서 물러나고 동시에 부인을 잃었다. 이후 9개월 동안 조선총독부 군수로 전라북도 흥덕군(興德郡)과 정읍군(井邑郡)에서 근무했다. 이와 함께 경성조선인상업회의소(京城朝鮮人商業會議所) 특별의원(特別議員), 한성은행(漢城銀行) 평양지점 부지배인, 대구지점 부지배인 등을 역임했다.

1917년 4월 6일 2년여의 투병생활 끝에 41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모으고 남긴 재산이 없어 평소 잘 알고 지내던 사람들의 모금으로 장례를 치르고, 유해는 고향인 경기도 광주군 동부면(현재의 하남시) 선영에 안장되었다.

주요 논문과 저서를 보면, 먼저 논문은 「희망에 대한 행위의 득실」(『친목회회보(親睦會會報)』 5), 「경제학」(『소년한반도(少年韓半島)』 2), 「경제서를 독(讀)하다가 유자(儒者)의 현상을 탄(歎)함」(『대동학회월보』 3), 「개인의 노력은 사회경제의 근본」(『법학협회잡지(法學協會雜誌)』 1), 「누진세주의(累進稅主義)의 가부(可否)」(『법학협회잡지』 1) 등이 있다. 또한 저서로는 『중등만국사(中等萬國史)』(유일서관, 1909), 『최신경제교과서(最新經濟教科書)』(유일서관, 1910)가 있다.

〈참고문헌〉 『大韓帝國官憲履歷書』; 『舊韓國官報』; 『每日申報』; 李基俊, 『韓末西歐經濟學導入史研究』, 一潮閣, 1995.

유치형(兪致衡) : 1877년(고종 14) ~ 1933년

한말의 법률가로 본관은 기계(杞溪)이며, 경기도 광주 출신이고, 유진오(兪鎭午)의 아버지이다. 유길준(兪吉濬) 등 집안 개화지식인들의 영향을 받아, 1895년(고종 32) 3월에 관비유학생으로 뽑혀 일본 게이오의숙(慶應義塾) 보통과에서 공부하고 1896년(건양 1) 7월에 졸업하였다. 이어서 동경의 주오대학(中央大學)에 입학하여 3년간 법학을 공부하고 1899년(광무 3) 7월 12일에 졸업하였다. 졸업 후 일본 사법성과 각 재판소에서 견습을 한 뒤, 1899년 11월 귀국하여 이듬해 8월부터 공립 철도학교(鐵道學校) 교사가 되었고, 1901년(광무 5) 2월 주영공사관의 3등서기관으로 임명되었다. 이한응(李漢應)의 후임으로 영국에 부임하기로 되었는데, 러·일전쟁의 발발로 인천항의 러시아 선박이 격침되어 출국하지 못하였다. 이렇게 사정이 바뀌어 6월 21일에는 궁내부 회계과장으로 임명되었고, 10월에는 제실제도(帝室制度) 정리국 비서에 임명되었고 1906년(광무 10) 2월에는 궁내부 제도국참서관이 되었다. 같은해 12월에는 제실재정회의 기사장(記事長)이 되었다. 1907년(융희 1) 6월에는 수학원(修學院) 교관이 되



유지형의 묘

무를 수 없음을 깨닫고, 1913년 4월 주식회사 한성은행(漢城銀行) 서무과장으로 취직하여 계속 근무하였다. 묘는 하남시 상산곡동에 있다. 저서로는 『헌법』(1907)·『해상법』(1907)·『물권법 1·2부』(1908)·『경제학』(1908) 등의 단행본 교과서들이 있으며, 친필사본으로 『국제법약설(國際法略說)』·『일본헌법』·『일기』 등이 있다.

〈참고문헌〉『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崔鍾庫, 「韓國의 法律家像 俞致衡」, 『司法行政』(1983.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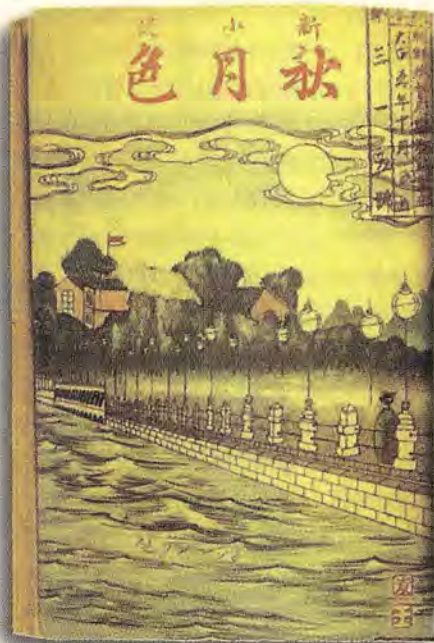
최찬식(崔讚植) : 1881년(고종 18) ~ 1951년

본관은 경주(慶州)이고, 자는 찬옥(贊玉), 호는 해동초인(海東樵人)·동초(東樵)이다. 하남시 풍산동에서 태어났는데, 아버지는 개화기 언론인이면서 제국신문(帝國新聞)을 발행한 최영년(崔永年)이고, 어머니는 청송 심씨(靑松沈氏)이다. 어릴 때에는 집에서 한학을 공부하여 사서삼경을 마쳤고, 갑오경장 후 1897년(광무 1) 아버지가 광주에 설립한 시흥학교(時興學校)에 입학, 신학문을 공부하였다. 뒤에 서울로 올라와 관립한성중학교(官立漢城中學校)에서 수학하였다. 신학문을 공부하고 문학에 뜻을 두어 1907년(융희 1)에 중국 상해에서 발행한 소설전집 『설부총서(說部叢書)』를 번역한 뒤 현대소설의 토대가 된 신소설 창작에 착수하였다. 『자선부인회잡지』 편집인과 『신문계(新文界)』·『반도시론(半島時論)』 등의 기자생활을 하였고, 말년에는 독섬에 있는 그의 농장에서 최익현(崔益鉉)의 실기를 집필하였으나 끝내지 못하고 죽었다.

있고, 대동전문학교(大東專門學校)·보성전문학교에서 헌법·민법·해상법 등을 가르쳤다. 그리고 6월에는 궁내부 참서관과 궁내부 대궁(大宮) 관방내사과장을 겸임하였다. 1908년(융희 2) 8월에는 궁내부서기관이 되었고, 같은달 31일부터는 어원사무국(御院事務局) 이사로 임명되어 3년간 봉직하였다. 1911년 2월에는 이왕직(李王職) 사무관으로 임명되었다. 그러나 이 민족의 지배 아래서는 관직에 머

대표작으로 꼽히는 『추월색(秋月色)』(1912)을 비롯하여, 『안(雁)의 성(聲)』(1914) · 『금강문(金剛門)』(1914) · 『도화원(桃花園)』(1916) · 『능라도(綾羅島)』(1919) · 『춘몽(春夢)』(1924) 등 많은 작품을 발표하였다. 그는 민족의식이나 자주독립 등의 정치적인 면보다는 애정문제, 풍속적 윤리·도덕문제에 더 관심을 두었다고 할 수 있다. 그의 작품에는 신식결혼관이나 연애가 표면적으로 등장하는데, 궁극적인 주제는 고대소설적인 윤리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기성 사회의 윤리관을 비롯한 사회문제에 대하여 비판적인 안목을 가지고 개혁의 방향으로 관점을 표시한 것은 그의 작가적 자세의 중요한 일면이라고 평가한다. 즉, 최찬식은 이인직(李人植) · 이해조(李海朝)와 함께 3대 신소설 작가로 불려질 만큼 초창기 한국 신문학(新文學)의 발전에 크게 공헌한 선구자라 할 수 있다. 1951년 71세에 별세하였다.

〈참고문헌〉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廣州郡誌』; 『京畿人物誌』; 이철재, 『하남의 역사』, 1995; 류양선, 『韓國現代小說史研究』, 민음사, 1984.



추월색

이대헌(李大憲) : 1883년(고종 20) ~ 1944년

독립운동가로 경기도 광주군 동부면 교산리(校山里 : 현재의 하남시 교산동)가 본적이다. 1883년(고종 20) 11월 14일 출생하여 1919년 당시 37세로 농업에 종사하고 있었다. 1919년 3·1운동이 일어나 지방으로 번지자 광주군에서도 3월 23일부터 만세운동이 시작되었다. 이대헌은 이장 최창근(崔昌根)으로부터 전국적으로 만세시위가 전개되었음을 듣고, 3월 26일 면사무소 앞에서 태극기 1개를 만들어 저녁무렵 마을 청년 10여 명을 규합하여 독립만세의 정당성과 앞으로의 사태를 설명하고 독립시위에 동참할 것을 권유하였다. 이어 27일 새벽 2시 경 산위에서 봉화를 올리고 만세를 부른 후 주민들을 모아 면사무소로 가 독립만세를 부르고 해산했다. 오전 11시에 다시 마을 주민 30여 명을 규합하여 태극기를 앞세우고 면사무소로 나가면서

독립만세를 외쳤다. 이때 망월리(望月里)의 김용문(金用文)이 주민들을 인솔하여 이곳으로 와 합류하게 되었다. 시위 군중은 더욱 기세를 올리며 면장과 면서기도 같은 민족이므로 동참할 것을 권유했으나, 이들이 거절하자 격렬한 야유를 보냈다. 시위대 앞에서 대한독립의 당위성과 일본의 정책에 대해 장차 호응하지 말고 저항할 것을 요청하였다. 시위대가 오후 2시까지 격렬하게 만세를 부르자 주재소원들이 출동하였고 현장에서 체포되었다. 1919년 4월 29일 경성복심법원에서 보안법 위반으로 2년형이 선고되자 항소하여 고등법원에서 1년으로 감형되었으나 다시 대법원에서 기각되고 형이 확정되어 옥고를 치렀다. 1927년 8월 광주지역 신간회 지회가 창립될 때 간사로 활동하였다. 1983년 대통령표창이 추서되었다.

〈참고문헌〉『京畿人物誌』; 「3·1運動 裁判記錄 '李大憲判決文理由書」, 『獨立運動史資料集』, 獨立運動史編纂委員會, 1972; 『獨立有功者功勳錄』(2), 국가보훈처, 1983; 『경기도 항일독립운동사』, 京畿道史編纂委員會, 1995.

김홍렬(金弘烈) : 1886(고종 23) ~ ?



김홍렬

독립운동가로 1886년(고종 23) 12월 7일 출생으로 본적이 서울 황금정(현재의 중구 을지로3가)이다. 1919년 당시 34세로 광주군 동부면 풍산리(豐山里 : 현재의 하남시 풍산동)에 주소를 갖고 농업에 종사하였다.

손병희 등의 독립선언에 따라 1919년 3월 26일 오후 10시경에 풍산동 주민들에게 독립만세를 부르자고 권유하여 이때 모인 20여 명과 함께 산 위에 봉화를 올리고 27일 오전 3시 경까지 독립만세를 불렀다. 이에 일제는 보안법을 위반했다고 하여 징역 1년을 선고하였다.

〈참고문헌〉「3·1運動 裁判記錄 '金弘烈判決文理由書」, 『獨立運動史資料集』(5), 獨立運動史編纂委員會, 1972; 『韓民族獨立運動史資料集 別集』(3), 國史編纂委員會, 1992.

홍병선(洪秉璇) : 1888년(고종 25) ~ 1967년

감리교 목사이자 YMCA운동가로, 호는 목양(牧羊)이다. 서울 출신으로 어려서부터 한학을 배웠고 1908년(융희 2)에는 일본에 건너가 도시사(同志社)대학 신학부에 입학하여 1911년에

졸업하고 귀국하였다. 그뒤 한양기독교회 전도사, 보성전문학교 교사, 피어선 기념성경학교 교수, 배화여학교 교사 등으로 활동하였다. 1920년 YMCA 활동에 가담하기 시작하였고, 1925년에는 남감리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음과 함께 YMCA 농촌부 감사로 취임하였다. 이때부터 농촌운동에 각별한 관심을 보여 1928년 덴마크의 농촌운동을 시찰하고 돌아온 뒤에는



옛 YMCA 건물

적극적으로 협동조합운동을 추진하였다. 1930년 윤치호(尹致昊)와 함께 『농업세계(農業世界)』를 간행하여 농업진흥을 민족문제와 연결시켰으며, 전국을 순회하며 강연회를 개최하고 협동조합과 소비조합을 조직하는데 온 힘을 기울였다. 그러나 1938년 조선 YMCA가 일본 YMCA로 흡수되면서 농촌운동의 추진력도 쇠퇴하여졌고 일제에 타협적인 내용의 글을 『청년(靑年)』에 발표하였다. 해방후 사회사업 활동에 참여하여 보림회 이사장, 성인교육 중앙총본부 회장 등을 역임하였고, 1957년 농림부 농림위원, 1963년 중앙 YMCA 명예회장으로 임명되었다. 저서로는 1929년에 간행된 『정말(丁抹)』과 『정말농민(丁抹農民)』을 비롯하여 아동심리학·농촌운동 등에 관한 10여 권을 남기고 있다. 그의 묘는 하남시 검단산 밑에 있다.

〈참고문헌〉 전택부, 「YMCA와 더불어 산 野人 故牧羊 洪秉璇牧師」, 『기독교사상』, 1967; 김양선, 『한국기독교회사연구』, 기독교문사, 1971; 전택부, 『한국기독교청년회운동사』, 정음사, 1978.

유만겸(兪萬兼) : 1889년(고종 26) ~ 1944년

유길준(兪吉濬)의 첫째 아들로 유억겸(兪億兼)의 형이다. 1889년(고종 26) 8월 유길준이 취운정(翠雲亭)에 유폐되어 있던 때에 태어났다. 어려서부터 모진 풍파에 시달렸는데, 4살 때에 아버지인 유길준이 7년 유폐에서 풀렸으나 8살 때에는 아관파천으로 일본에 망명하였다. 배재학당과 홍화학교·청년학원에서 공부하였다. 이후 어려운 집안 상황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공부에 진력하여 일본 제6고등학교를 거쳐 1917년 동경제국대학(東京帝國大學) 경제학과를 졸업하였다. 학업을 마친 후 관리생활을 하여 군수·도 사회과장·학무국 사회과장·평안남도

참여관(參與官)·경상북도 참여관 등을 거쳐 충청북도 지사(知事)를 역임하였다. 일제의 창씨개명(創氏改名)에 반대하여 성을 고치지 않아 마지막 민족의 양심을 지켰고, 이 일로 인해 면직되었다. 이후 아버지 유길준의 업적을 더듬으며 유고와 자료를 정리, 간결하고 사실적인 문체의 『선친약사(先親略史)』를 남겼다. 말년에 경학원부제학(經學院副提學)으로 있었다. 1944년 56세로 사망하였고 유해는 할아버지 유진수, 아버지 유길준 그리고 동생 유억겸과 함께 하남시 창우동 검단산에 있다.

〈참고문헌〉 俞東潐, 『俞吉潐傳』, 一潮閣, 1987.

유억겸(俞億兼) : 1895년(고종 32) ~ 1947년



유억겸

아버지는 유길준이며, 어머니는 순종의 황후 윤씨(尹氏)의 동생이다. 어려서부터 한학자인 할아버지에게 학문을 배웠으며 1909년(융희 3) 계산학교(桂山學校)를 졸업한 뒤, 일본으로 건너가 도시사(同志社)중학교와 경도관립 제3고등학교에서 수학하였다. 1920년 동경제국대학(東京帝國大學) 법학부를 졸업하고 귀국해서 중앙고등보통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다가 같은해 9월부터 연희전문학교(延禧專門學校) 상과에서 법학을 강의하였다.

1922년 연희전문학교 조교수, 1923년 연희전문학교 학감(學監)으로 재직하다가 1923년에 부교장을 겸임하였다. 특히, 체육에 관심이 깊어 그의 주선으로 연희전문학교주최 전국중학교 체육대회를 매년 개최하기도 하였다. 흥업구락부사건(興業俱樂部事件)으로 일제에 의하여 서대문경찰서에 3개월 동안 옥고를 치른 뒤 기소유예로 나와 연희전문학교 교수직을 사임하고 1937년부터 변호사업을 시작하였다. 1941년 윤치호가 연희전문학교 교장이 되면서 서무부장으로 복직되었는데 1942년 9월 일제의 사립학교 탄압이 가중되자 다시 사임하였다. 광복후 연희전문학교의 교장에 취임하여 학교의 기틀을 마련하고 이어 기독교청년회 회장을 지냈으며, 1946년에는 미군정의 문교부장(지금의 교육부장관)에 취임하였다. 당시 문교차장 오천석(吳天錫)이 제안한 국립대학안을 실현시키는 등 대한민국 교육정책 수립의 기초작업을 하였다. 또한

1927~1947년까지 제8대·12대 대한체육회 회장을 지냈으며, 각종 국제회의에 우리나라 대표로 참석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업적을 기려 1962년 제17회 광복절을 맞아 교육부문의 대한민국장을 수여하였다. 연세대학교에 유억겸기념관이 있다. 묘는 하남시 덕풍동에 있다가 그 지역의 도시개발로 인해 현재는 창우동에 이장되어 있다.

〈참고문헌〉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 俞東潛, 『俞吉潛傳』, 一潮閣, 1987 ; 俞東潛, 「연세인물 열전 45, 유억겸선생」, 『연세동문회보』, 1998.

유진오(俞鎭午) : 1906년(광무 10) ~ 1987년

소설가이자 법학자이며, 정치가이다. 본관은 기계(杞溪)이고, 호는 현민(玄民). 유치형(俞致衡)의 아들이다. 1924년 경성제일고등보통학교를 거쳐, 1927년 경성제국대학(京城帝國大學) 법학부를 졸업하고 경성제국대학 법문학부 형법연구실 조수로 학자생활을 시작하였다. 재학시절 뜻맞는 친구들과 문우회(文友會)를 조직하고, 동인지 『문우』와 시집 『십자가』를 펴냈으며, 경제연구회를 조직하기도 했다. 경성제국대학 강사(과목 : 법학통론) · 보성전문학교(普成專門學校) 강사를 거쳐 보성전문학교 법과 과장, 고려대학교 교수 겸 정법대학장, 같은 대학 대학원장, 총장을 역임하면서 일생을 후학 양성에 힘썼다. 1945년 해방후 대한민국 건국의 기초사업에 착수 법전편찬위원회 위원, 대한민국



유진오

헌법 기초위원, 법제처장, 고등고시위원, 한국공법학회(韓國公法學會) · 한국법철학회(韓國法哲學會) · 한국국제법률가협회(韓國國際法律家協會) 회장을 역임하였다.

정치에도 관여하여 1967년 신민당(新民黨)이 창당될 때 대표위원으로 피선되었고, 이후에 총재가 되었다. 또 제7대 국회의원으로 종로구에서 당선되기도 하였다. 5·16 군사쿠데타 후에는 국가재건 국민운동 본부장을 맡았다. 1951년에는 한일회담 대표로, 1952년에는 하버드 대학 연구원으로 도미한 바 있고, UN한국대표단 고문으로도 활동하였다. 또 1957년에는 영국 정부의 초청으로 영국을 시찰하였고, 1960년 한일회담 수석대표, 1965년 이디오피아의 세계 교육자대회에 참석하는 등 외교활동도 활발히 전개하였다. 학창시절부터 글쓰기를 좋아하여

많은 문학작품과 논문을 발표하였다. 소설집으로 『봄』(1940)·『화상보』(1941)·『김강사와 T 교수』(1976)·『서울의 이방인』(1977) 등과 수필집 『젊은날의 자화상』(1976)·『미래를 향한 창』(1978) 등이 있다. 그리고 법학관계 저서로는 『헌법이론과 실제』·『헌법의 기초이론』·『헌법강의』·『헌법입문』 등이 있다.

1959년 대한민국 학술원상, 1962년 대한민국 문화훈장 등을 받았다. 묘는 하남시 상산곡동에 있다.

〈참고문헌〉 『廣州郡誌』; 『韓國人物史』; 이철재, 『하남의 역사』, 1995.



유진오의 묘

김유정(金裕貞) : 1908년(음희 2) ~ 1937년

일제시대의 소설가이다. 본관은 청풍(淸風)이고, 강원도 춘성군 출신으로 아버지 김춘식(金春植)과 어머니 청송 심씨의 8남매 가운데 막내로 태어났다. 원래 갑부의 집안이었으나, 일찍 부모를 여의고 고향을 떠났다. 12세 때 서울 재동공립보통학교에 입학하였고, 1929년에 휘문고등보통학교를 마쳤으며, 이듬해 연희전문학교 문과에 진학했으나 중퇴하였다. 1932년에는 고향 실례 마을에 금병의숙(錦屏義塾)을 세워 문맹퇴치운동을 벌이기도 하고, 한 때는 금광업에 손을 대기도 하였다. 1935년 단편소설 「소낙비」가 『조선일보』에, 「노다지」가 『중앙일보』의

신춘문예에 당선되어 문단에 등단하였다. 이후 후기 구인회(九人會)의 일원으로 김문집(金文輯)·이상(李箱) 등과 교분을 가지면서 창작활동을 하였다. 등단하던 해에 「금을 따는 콩밭」·「떡」·「산골」·「만무방」·「봄봄」 등을 발표하였고, 1936년 「산골 나그네」·「봄과 따라지」·「동백꽃」 등을 세상에 내놓았다. 불과 2년 남짓한 작가 생활을 통해서 30편 내외의 단편과 1편의 미완성 장편, 그리고 1편의 번역소설을 남겼다.

대표작 「동백꽃」은 사춘기 남녀가 애정과 개성에 눈을 떠가는 과정을 전원의 서정 속에 특유의 해학적 수법으로 표현한 것으로 유명하다. 김유정은 글은 본질적으로 희화적(戲畵的)이어서, 냉철하고 이지적인 현실감각이나 비극적인 진지성보다는 따뜻하고 희극적인 인간미가 넘쳐 흐르는 것이 특징이다. 1937년 3월 29일, 나이 30세로 광주군 중부면 상산곡리(현재의 하남시 상산곡동) 100번지 매형 유세준의 집에서 죽었다. 작품집으로는 1938년에 나온 「동백꽃」이 있고, 1968년에 『김유정전집』이 출간되었다.

〈참고문헌〉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金文輯, 「金裕貞의 藝術과 그의 人間秘密」, 『朝光』, 1937. 4; 尹柄魯, 「金裕貞論」, 『現代文學』, 1960. 3; 李在鉉, 『韓國短篇小說研究』, 一潮閣, 1972; 金文輯, 「金裕貞의 秘話를 公開한다」, 『文學思想』, 1976. 2; 金永琪, 『金裕貞 - 그 문학과 생애』, 지문사, 1992.

김용기(金容基) : 1909년(음희 3) ~ 1988년

농민운동가이다. 호는 일가(一家)로 경기도 남양주군 조안면 능내리 봉안마을에서 1909년 아버지 김춘교와 어머니 김공운 사이의 5남 가운데 넷째 아들로 태어났다. 독실한 기독교 가정에서 생활하며 어려서부터 우리 문화를 기독교와 접목시키려는 노력을 하였다. 특히, 여운형이 세운 광동학교에서 교육을 받으면서 여운형의 민족구원의 지도이념을 충실히 따르게 되었다. 1929년 김봉희와 결혼하여 1984년 1월 사별할 때까지 55년간 황무지 개척의 동반자로 함께 일했다.

1931년 고향인 봉안에 봉안 이상촌을 건설하여 환경개선·식생활 개선·의생활 개선·농업기술 보급과 새로운 국민의례를 창안하여 상·혼·제례를 간소화하고, 마을 협동기능을 강화하여 협동조합을 통해 마을의 공동이익을 높이며, 애국지사를 후원하는 등 정



김용기

신개조를 통한 독립운동을 전개하였다.

1954년 11월 16일 하남시 풍산동에 정착, 황무지를 개척하여 가나안농장을 가꾸었으며, 1962년 2월 1일 근로·봉사·희생정신을 내걸고 가나안농군학교를 설립하였다. 가나안농군학교는 정신개척의 도장으로 김용기의 개척정신을 구현하는데 중점을 두고 의식의 혁명·생활의 혁명·인격의 혁명을 중요한 교육과제로 하였다. 가나안농군학교의 설립은 경제개발계획과 맞물려 국가가 펴는 국민운동과 맥을 같이 하였기 때문에 국가적 관심도 컸다. 1970년에는 풍산동 지역주민과 함께 가나안신용협동조합을 조직하여, 18년만에 조합원 10,000여 명, 자산규모 150억을 보유하는 건실한 조합으로 성장하여, 저축의 생활화와 주민의 화합과 신용사회건설에 크게 이바지했다. 또 1973년에 가나안복민회(復民會)를 설립하여 경기도 하남시 소재 제1가나안농군학교와 강원도 원주시 신림면 소재 제2가나안농군학교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복민운동의 실천기반을 확보하였고, 다음해에는 복민주의연구실을 설치하여 복민사상의 이론이 체계화되도록 하는데 노력하였다.

그는 1980년 가나안농군학교를 수료한 수료생을 중심으로 일가기념재단을 조직하여 복민운동의 주체로 키웠다. 자녀들도 복민운동의 역군으로 교육시켜, 세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두 딸과 사위 모두가 가나안의 식구로 일하고 있다. 또 학교를 설립하여 죽을 때까지 351,114명의 사회지도자·종교지도자·공무원·군인·농부 등 다양한 계층을 교육시켰다. 1966년 8월 31일 사회교육의 공로를 인정받아 막사이사이상을 수상하였고, 1988년에 죽었다. 저서로는 『참살길 여기에 있다』, 『이렇게 살 때가 아닌가』, 『심은대로 거두리라』, 『증 쫓음에게』, 『운명의 개척자가 되자』, 『그분의 말씀을 따라』, 『나의 한길 60년』, 『조국이며 안심하라』, 『영광된 내일을 위하여』, 『가나안으로 가는 길』이 있다.

〈참고문헌〉 이철재, 『하남의 역사』, 피플뱅크, 1995.

장기영(張基榮) : 1916년 ~ 1977년

금용인이자 언론인이며 정치인으로 호는 백상(百想)이다. 서울에서 태어났으며, 아버지는 곡물 무역상 장동후(張東厚)이고, 어머니는 고성 이씨(固城 李氏)이다. 일찍이 아버지를 여의고 외할아버지 이종묵(李鍾默)에게서 한문 수학을 하며 유년 시절을 보냈다. 한남보통학교(漢南普通學校)를 거쳐, 1934년 선린상업학교를 졸업하고 조선은행에 들어갔다. 광복후 1948년에는 한국은행 조사부장으로 취임하였다. 1950년 동경지점의 개설에 참여하고 한국은행 부총재로 승진하였으나, 1952년에 사임하였다.

그후 언론계에 투신, 『조선일보』 사장으로 취임하였다. 정부가 서울로 되돌아온 뒤 어수선하던 시기에 『조선일보』를 재건하고, 1954년 『태양신문』을 인수, 『한국일보』와 『코리아타임즈』를 창간하여 사장으로 취임하였다. 1957년에는 대한방송주식회사를 설립하여 텔레비전 시대를 열었다. 1960년에는 『서울경제신문』과 『소년한국일보』를, 1969년에는 『일간스포츠』를 창간하였고, 이어 『주간한국』과 『주간여성』 등 6개의 자매지를 발행하였다.



장기영

한편, 1961년 국제신문협회 한국위원회 초대 회장을 역임하였고, 1961년 대한축구협회 회장과 대한체육회 부회장이 되었으며, 1966년 대한올림픽위원 및 아시아경기연맹 회장으로 활약, 한국의 체육발전에 힘썼다. 1967년 국제올림픽위원이 된 것을 계기로 아시아경기대회의 유치 등 스포츠의 국제교류에 눈부신 활동을 보였다. 특히, 1961년 최초로 공산권 국가인 유고슬라비아에 우리 축구팀 단장으로 원정, 공산권과의 체육외교를 폈다.

1964년에는 정일권(丁一權) 내각의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장관으로 발탁되어 3년 반 동안 산업의 근대화와 경제자립의 터전을 마련하는데 힘썼다. 금리 현실화와 유리창 행정, 연탄의 흑백 논쟁 등 술한 일화를 남기면서 고도성장의 기틀을 잡았다. 1964년 박정희(朴正熙) 대통령의 독일 방문과 1965년 미국 방문, 그리고 1966년 태국 등 아시아 여러 나라의 방문을 수행하여 경제외교에도 힘썼다.

한일간의 국교 정상화를 위하여 막후에서 일해 왔으며, 1969년 한일간의 현안문제를 타결하기 위하여 대통령 특사로서 일본에 파견되었다. 같은해에 한일협력위원회를 창설, 창립총회 부의장이 되기도 하였다.

1971년 민주공화당 서울특별시 종로지구당 위원장에 선출된 것을 계기로 정계에 발을 들여놓게 되어 1973년 제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되기도 하였다. 또한 '10만 어린이 부모찾기 운동'을 벌이는 등 민족분단의 설움과 이산가족문제에 비상한 관심을 쏟아왔는데, 1972년 남북조절위원회 부위원장, 1973년 남북조절위원회 서울측 공동위원장대리로 취임, 남북대화와 평화통일의 길을 여는데 앞장섰다.

정치·경제·문화·언론·체육 등 각 분야에서 활동·이바지한 공으로 수교훈장 광화장을 비롯하여 청조근정훈장, 국민훈장무궁화장, 그리고 인권옹호상·체육공로상·최고체육장을 받았다. 외국으로부터는 독일1등대십자공로훈장과 월남보국2등훈장, 중화민국1급문화훈장을 받았다. 묘는 하남시 창우동 검단산 자락에 위치하고 있다.

〈참고문헌〉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이철재, 『하남의 역사』, 1995.

최인규(崔仁圭) : 1919년 ~ 1961년



최인규

하남시 미사동에서 최광섭의 큰아들로 출생하였다. 10세 때 광주군 구천면 상일공립보통학교(上一公立普通學校)에 입학, 4학년 때인 1932년 서울 중앙기독교청년회 속성과에서 1년을 공부한 실력으로 1933년 서울의 보성고등보통학교 2학년 보결시험에 합격하였다. 1941년 경성고등상업학교를 졸업하고 조선생명보험주식회사에 입사하여 광복 때까지 근무하였다. 1947년 뉴욕대학교 상과대학에 편입학하고, 1949년 졸업하여 귀국하였다. 같은해 대한교역공사(大韓交易公社) 업무부장으로 들어가 1950년 동남아 무역사절단 정부대표로 파견되었으며 이사장까지 승진하였다. 그러나 이 공사의 해산으로 1951년 발족한 한국무역진흥주식회사로 옮겨 상무이사로 재직하다가, 1954년 5·20 민의원 선거에 자유당 공천으로 경기도 광주에서 입후보하였으나 낙선하였다. 1955년 이기붕(李起鵬)의 주선으로 국제연합한국부흥위원회 뉴욕주재 한국대표로 임명되었고, 같은해 제네바 회담에 한국 옵서버로 참석하였으며, 1956년 외자청장(外資廳長)이 되었다. 1958년 5·22 민의원 선거에 다시 광주군에서 자유당 공천으로 입후보하여 당선되고, 9월에 교통부장관에 기용되었다. 이듬해 3월 선거를 전담하는 장관인 내무부장관에 발탁되었다. 1960년 4·19혁명으로 자유당 정권이 무너지자, 3·15 정·부통령 부정선거를 총지휘한 원흉으로 지목받아 같은해 5월 3일 구속되었다. 1961년 12월 혁명재판부에서 3·15 정·부통령선거의 부정선거를 지령한 혐의로 사형이 확정됨으로써 12월 서울교도소에서 사형이 집행되었다.

〈참고문헌〉『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이철재, 『하남의 역사』, 1995.

〈장 득 진〉